

2009

협성대학교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www.uhs.ac.kr

제출일 : 2009년 11월 30일

협성대학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H Y U P S U N G U N I V E R S I T Y



협성대학교
HYUPSUNG UNIVERSITY



인 사 의 글

최근 국제화 · 개방화로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창의적 글로벌 인재육성만이 대학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 상황에 처하면서 대학의 교육 환경도, 교육에 대한 평가도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대학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크게 바뀌고 있으며, 변화의 핵심은 과거 중앙집중식 타율적 평가에서 대학의 자율적 자체평가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또 정부는 자체평가제도와 함께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자체평가와 정보공시제도는 분명히 기존의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차이의 핵심은 자기점검을 통한 경쟁력 관리 체계라는 점입니다. 각 대학은 스스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중장기 세부 계획과 특성화를 시도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지원도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제는 대학이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대학은 위와 같은 시대적 소명과 교육 환경과 정부 정책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학년도 협성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작성을 계기로 전 구성원들에게 평가의 취지와 중요성을 인식시켰고,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유도하여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자체평가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자체평가연구위원회에서 제반 사항을 심층 분석한 이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며,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자체평가의 과정에서 발견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은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앞으로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자체평가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위원회의 평가기구를 가동하여 학과 평가부터 행정부처 평가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우리 대학의 역량과 경험 강화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끝으로 본 자체평가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자료수집, 연구, 집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연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위원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자체평가 결과를 잘 활용하여 우리 대학이 발전하고 도약하는데 발판과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11월

협성대학교 총장

이문진



목 차

제 I 장 대학 현황 및 자체평가 개요

1.1 대학 현황	
1.1.1 대학 연혁	5
1.1.2 대학 현황	8
1.2 자체평가 개요	
1.2.1 자체평가의 목적	14
1.2.2 자체평가의 추진 체계	15
1.2.3 자체평가의 내용	18
1.2.4 자체평가의 평가 방법	18

제 II 장 자체평가 결과 보고

2.1 대학 경영 영역	
2.1.1 대학 경영	28
2.1.2 대학 발전	38
2.1.3 대학 재정	44
2.2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 영역	
2.2.1 학생	50
2.2.2 교수	62
2.2.3 직원	67
2.3 교육 및 사회봉사 영역	
2.3.1 교육과정	75
2.3.2 교육운영	86
2.3.3 사회봉사	96



2.4 연구 및 산학협력 영역

2.4.1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102
2.4.2 저서·역서 실적	106
2.4.3 연구비 수혜 실적	107
2.4.4 산학연 인적 교류	108

2.5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영역

2.5.1 학생지원 체계	118
2.5.2 교육지원 체계	123
2.5.3 정보지원 체계	126
2.5.4 학술활동 지원	128

2.6 대외협력 및 국제화 영역

2.6.1 대외협력	131
2.6.2 국제화	135

제Ⅲ장 요약 및 종합논의

3.1 요약

3.1.1 대학 경영 영역	138
3.1.2 구성원 영역	140
3.1.3 교육 및 사회봉사 영역	144
3.1.4 연구 및 산학협력 영역	146
3.1.5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영역	147
3.1.6 대외협력 및 국제화 영역	149

3.2 종합논의



제IV장 결과 활용 및 향후 계획

4.1 결과 활용

4.2 향후 계획

4.2.1 평가지표의 개발	155
4.2.2 결과 활용과 성과주의 문화의 확립	156
4.2.3 성과의 상시 관리와 외부평가에 대한 준비	156
4.2.4 전략중심형 조직으로 발전	156



제1장 대학 현황 및 자체 평가 개요

1.1 대학 현황

1.2 자체평가 개요

H Y U P S U N G U N I V E R S I T Y



협성대학교
HYUPSUNG UNIVERSITY



제 I 장 대학 현황 및 자체평가 개요

1.1 대학 현황

1.1.1 대학 연혁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창학이념으로 삼고 있는 학교법인 삼일학원에 속해있는 개교 32년된 대학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개화 초기 개신교 선교활동의 흐름과 오랜 역사적 맥락이 닿아있다. 특히 1885년 미국의 의사이자 감리교 선교사인 스크랜톤(Scranton)에 의하여 1889년에 세워진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가 설립한 학교이다.(대학설립 당시 담임 목사: 박설봉 감독) 120여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상동교회는 한일합방 이전에는 스크랜톤에 의해 운영되던 감리교병원(1887년 고종에 의해 ‘施病院’이란 이름을 하사받음)을 중심으로 병원선교에 주력하였다. 일제 강점시대에는 전덕기(全德基) 목사에 의하여 운영되던 상동교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항일독립운동과 교육 사업을 전개해 왔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민족복음화 운동과 교육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한국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면면히 한국의 감리교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상동교회에서 전개된 항일강점기의 항일독립운동과 청년교육사업은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자주 국가를 위한 국민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교회 설립 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탄생된 우리 대학은 1977년 유능한 감리교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감리교 서울신학교로 출발하여, 1994년에는 협성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21세기가 요구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종합대학교로 발전하였다.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상동교회의 민족정신과 기독교 교육에 대한 열정이 지금의 협성대학교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감리교의 정통성 계승과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었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 대학교의 창학 이념인 “대한민국 민주교육의 기본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적 신학과 경건주의 생활 신앙에 입각하여 진리 탐구와 더불어 인간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목회자와 유능한 인재양성을 창학 이념으로



한다.”에 반영되어 있다.

우리 대학의 연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이사회 실행부가 1977년 감리교 서울신학교 설립을 결의하여 1977년 4월 1일 「감리교 서울신학교」로 개교하였다. 1982년 3월 문교부의 신학교 정비방침에 의거,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연회별로 설치되어 있던 6개 신학교를 「감리교 협성신학교」로 통합하고, 1983년 3월 4일 당시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 남양주군에 교사를 신축·이전하였다. 이어 1985년 1월 8일에는 4년제 대학 학력인정교로 지정되었고, 1988년 12월 31일에는 교사를 현재의 봉담 캠퍼스로 이전하였다. 1991년 11월 15일에는 「협성신학대학」으로 개편인가를 받았고, 1993년 2월 22일에는 「협성신학대학교」로, 1994년 9월 1일에는 「협성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일반대학원 및 4개 특수대학원, 5개 단과대학에 약 5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개교 이후 우리 대학이 걸어온 주요 발자취를 요약하면 <표 1-1-1>과 같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짧은 역사임에도 우리 대학은 교육여건의 개선과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0여년 사이에 본관, 학생회관 등 다수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렇듯 우리 대학은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성된 체계를 갖추었다기보다는 아직 더 큰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은 2004년 전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협성대학교 비전과 대학종합 발전계획」을 발표하였고, 2008년에는 「웅비2022」를 수립하였다. 발전계획에서는 믿음, 사랑, 봉사 정신의 함양과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될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인프라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으로서 미래상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 대학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대내적으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외국 대학과의 학술 교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내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2007년 11월 신학관, 학생회관 및 예술대 실습관을 준공하였다. 대외 협력을 위해 일본, 러시아, 중국, 영국, 미국 등지의 대학들과 학술 교류·협력을 강화한 결과 2008년 말까지 모두 11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내적으로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관 증축, 체육관 신축, 각종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대외적으로는 외국 대학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대내외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앞으로 10년 이내 지역 내 거점대학으로 성장해 갈 전망이다.



<표 1-1-1> 협성대학교 주요 연혁

연 월 일	내 용
1977.2.7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리원 이사회에서 감리교 서울신학교 설립 결의
1977.4.1	서울신학교 개교
1983.3.4	감리교 협성신학교 설립인가 및 개교. 삼일학원 이사장 박근수 감독, 초대 학장 김관련 박사 취임
1985.1.8	4년제 대학 학력인정교 지정
1985.9.12	연건평 580평의 입석캠퍼스 본관 준공
1987.11.9	경기도 화성군 봉담캠퍼스 기공
1988.12.31	봉담캠퍼스로 이전
1991.11.15	협성신학대학으로 개편 인가
1992.3.1	박근수 교장 초대학장 취임
1993.2.22	협성신학대학교로 명칭 변경 인가
1993.3.1	박근수 학장 초대 총장에 취임
1994.9.1	협성대학교로 명칭 변경 인가
1994.9.17	미술학과, 산업디자인과 실습실 준공
1994.10.21	신학대학원 설립 인가
1995.10.18	경영정보대학원 설립 인가
1996.6.17	군중사관 후보생 선발 대상 대학교로 지정
1997.7.2	경인지역 대학 학부학생 학점교류 협정 체결(경기대 포함 21개 대학)
1997.8.22	본관 및 제1교육관 준공, 국내 최초의 “성서고고학 박물관” 개관
1998.1.12	협성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인가
1998.10.14	중국 연산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1999.1.12	미국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1999.8.30	도서관 증개축 준공 및 기숙사 준공
1999.11.2	일반대학원, 음악대학원, 조형대학원 설립인가
1999.11.19	교육대학원 신설인가
2000.11.25	예술관 준공
2001.3.1	제4대 김광식 총장 취임
2002.6.12	중국 상해사범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03.4.1	제5대 백석기 총장 취임
2004.7.27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립
2005.5~7	미국 센터리리대학, 독일 뮌헨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05.6.17	수원권 대학협의회 협약 체결(강남대학교 외 9개 대학)
2005.9.8	Wesley Theological Seminar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06.4.4	미국 세인트 폴 신학대학원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07.6.1	제6대 최문자 총장 취임
2007.10.24	영국 웨슬리대학과 자매결연 협정 체결
2007.11.19	신학관, 학생회관, 예술대 실습관 준공
2008.06~11	일본 야마나시에이와 대학, 러시아 국립 연해주 농업대학교, 중국 사천외국어 대학, 중국 목단강대학, 중국 하남사범대학, 중국 사천사범대학, 토고 로메신학대학 등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09.1.6	원터치 행정센터 준공 및 가동
2009.1~2	미국 게렛대학, 미국 클레아몬트대학, 중국 하문화하직업대학, 중국 하문동해 직업대학 등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09.3.2	외국인 유학생 유치
2009.3.2	제2생활관 입주
2009.9	음악최고경영자과정, 기업인최고경영자과정, 기독교여성고위지도자과정 개설
2009.9.28	테크노센터 건축계획 확정



1.1.2 대학 현황

1.1.2.1 조직 현황

우리 대학은 시대의 흐름과 교육 수요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연한 조직 체계를 갖추어 왔다. 2009년 10월 현재 대학본부에 5처(기획처, 교무처, 학생복지처, 입학홍보처, 총무처) 2실(교목실, 전산정보실) 1관(학술정보관)이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5개 단과대학(신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이공대학, 예술대학 등)이 있으며, 24개 학부 혹은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신학 및 도시건축공학) 및 4개 특수대학원(신학, 사회과학, 예술, 교육 등)이 있다. 이 외 9개의 부설연구소와 7개의 부속기관 및 7개의 부설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 대학교의 조직기구 총괄표(2009.10.1기준)는 아래 <그림 1-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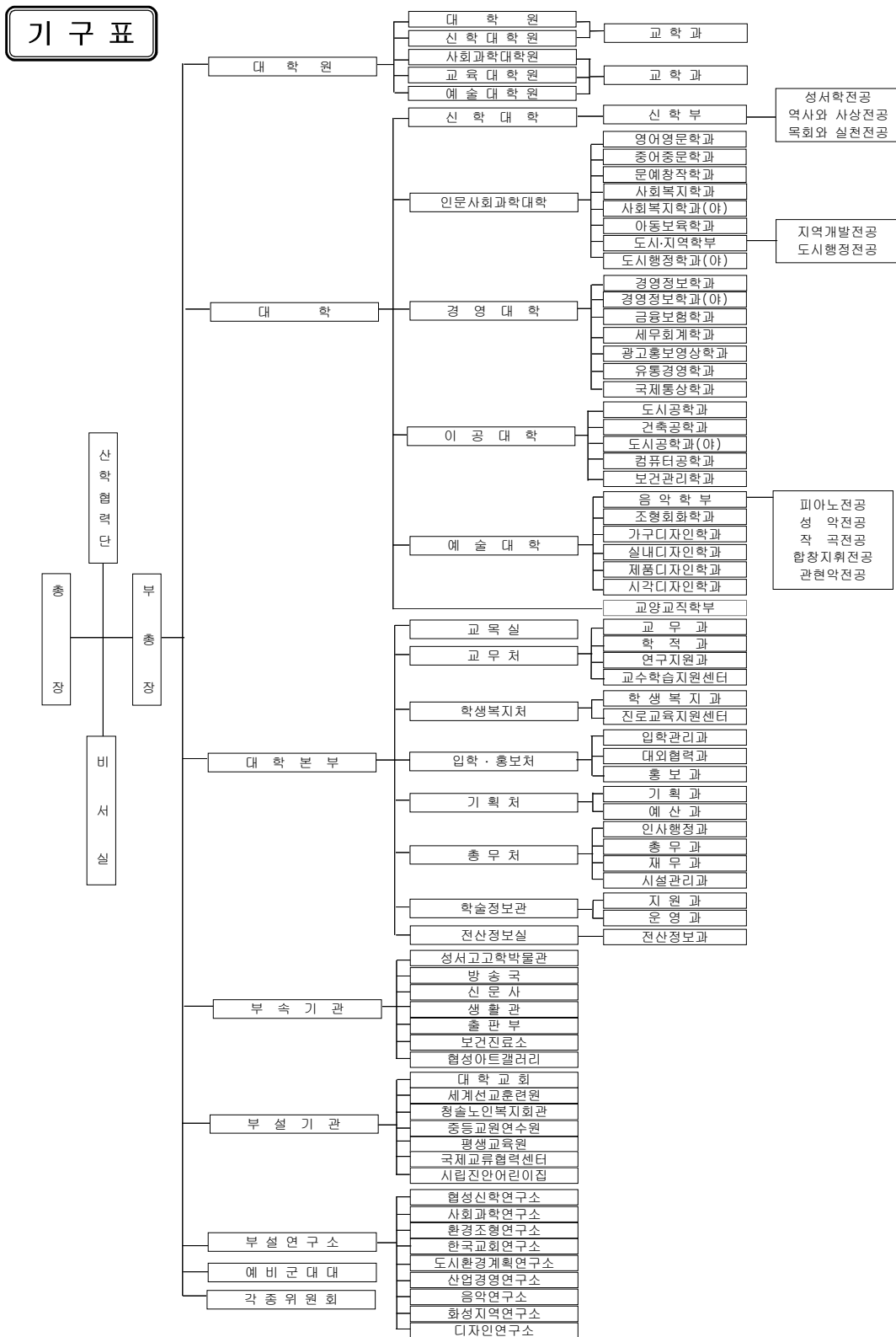
1.1.2.2 구성원 현황

1) 교원

우리 대학의 전임 교원은 2008년 말 기준 112명이며(대학원 2명 포함), 학부 전임 교원의 직급별 구성을 보면 교수 41명, 부교수 51명, 조교수 11명, 전임강사 7명 등이다. 2009년(10월 1일 기준)에는 2008년 대비 총 28명의 교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26명은 신입 교원의 충원이었고, 나머지 2명은 복직이었다. 전임 교수 중에는 중국,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등 다양한 국적을 보유한 7명의 외국인 교수가 포함되어 있다. 전임교원의 채용은 연구실적과 소양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에 부합하는 기독교인을 우대한다. 학교 당국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외국인 교수를 포함한 전임 교원의 수를 계속 늘릴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 10월 1일 현재 전임교원 확보율이 편제정원 기준 59.1%에 이르렀고, 교원 확보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림 1-1-1> 협성대학교 조직 기구표





<표 1-1-2> 교원 현황

연 도	합계	학부							대학원		
		소계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소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2006	423	395	113	23	64	13	13	282	28	1	27
2007	499	449	112	35	51	18	8	337	50	2	48
2008	526	470	110	41	51	11	7	360	56	2	54
2009. 4.1	563	526	117	41	52	11	13	409	37	2	35
2009.10.1	524	485	139	51	43	12	33	347	39	1	37

주 1) 2006~2008년은 4월 1일 기준이며, 조교와 총장은 포함되지 않았음.

2) 비전임교원 = 명예교수 + 겸임교원 + 초빙교원 + 시간강사

<표 1-1-3> 전임교원 및 교원 확보율

연 도	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확보율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
2006	47.7	56.5
2007	49.1	55.6
2008	47.5	51.3
2009	59.1	66.2

주 1)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교원 법정 정원 수, 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겸임교원 + 초빙교원)/교원 법정 정원 수

2) 2009년은 10월 1일 기준임

2) 학부생

2009년 기준 우리 대학의 편제상 정원은 학부 4,320명, 대학원 740명으로 모두 5,060명이다. 대학원의 편제 정원이 약간 변동한 것을 제외하면 학부의 편제정원은 수년 동안 변화가 없다. 학부는 편제 정원 대비 거의 100%에 가까운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재학률을 보이고 있다. 대학원은 편제 정원 대비 약 70% 내외의 재학생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비율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편제정원의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우리 대학의 전체 학생 현황과 각 학문 단위별 재학생 현황이 다음 <표 1-1-4>와 <표 1-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5>의 학부 학과별(전공별) 재학생 현황은 2008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2009년에는 신학부, 음악학부 및 도시·지역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부가 학과제로 개편되었다.

<표 1-1-4> 학생 현황

연 도	합 계		학 부		대학원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2006	5,112	4,715	4,320	4,155	792	560(204)
2007	5,068	4,750	4,320	4,215	748	535(176)
2008	5,050	4,857	4,320	4,315	730	542(167)
2009	5,060	4,842	4,320	4,330	740	512(130)

주) () 내 숫자는 교육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 및 예술대학원의 재학생 수임.



<표 1-1-5> 2008학년도 학부 학과별(전공별) 재학생 현황

대 학	학 부(과)	재학생
신학대학	신학부	338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133
	중어중문학과	114
	문예창작과	140
	사회복지학과(주)	204
	사회복지학과(야)	178
	아동보육학과	162
	도시·지역학부*	67
	도시·지역학부 지역개발전공	83
	도시·지역학부 도시행정전공	91
	도시행정학과(야)	63
경영대학	소 계	1,235
	경영학부*	125
	경영학부(경영)	99
	경영학부(세무)	93
	경영학부(금융)	105
	경상학부*	156
	경상학부(광고)	170
	경상학부(국제통상)	127
	경상학부(유통경영)	121
	경영정보학과(야)	50
이공대학	소 계	1,046
	도시건축공학부*	74
	도시건축공학부(도시)	74
	도시건축공학부(건축)	83
	도시공학과(야)	141
	컴퓨터공학과	174
	보건관리학과	157
예술대학	소 계	703
	음악학부	305
	조형학부(미술)	132
	조형학부(가구)	144
	디자인학부(실내)	126
	디자인학부(제품)	125
	디자인학부(시각)	161
	소 계	993
	합 계	4,315

주) * 표시는 2009년 이전 학부제로 입학한 재학생을 의미함.



3) 대학원생

우리 대학의 대학원은 신학과 도시건축공학 전공의 일반대학원과 신학, 사회복지, 교육 및 예술 전공의 4개 특수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기준 542명의 대학원생이 재학하고 있다. 일반대학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에 모두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사회와 윤리, 목회와 상담, 기독교 교육, 선교와 문화, 예배와 설교 등의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교육대학원은 계절학기로 운영되며 국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교육행정, 상담심리 등의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사회과학대학원에는 사회복지학이, 예술대학원에는 미술, 디자인, 음악 등의 대학원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표 1-1-6>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학 전공의 특수대학원 재학생이 전체의 60.7%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으며, 다른 대학원의 재학생 수는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원의 활성화는 교내 연구 분위기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교원의 연구 실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학생 유치 방법과 장학금 제도의 개선, 산학 협력 등 각종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전망이다.

<표 1-1-6> 2008학년도 대학원 학과별 재학생 현황

대학원		학과(전공)	재학생
일반대학원		신학과(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목회와 상담, 기독교 교육, 선교와 문화, 예배와 설교, 사회와 윤리)	36
		도시건축공학과(도시공학, 건축공학)	10
특수대학원	신학대학원	신학과(목회와 상담, 기독교 교육,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사회와 윤리, 선교와 문화, 예배와 설교)	329
	사회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54
	교육대학원	교육학과(국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교육행정, 상담심리)	87
	예술대학원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음악학과	26
합 계			542



4) 직원

우리 대학은 상당 기간 70여 명 내외의 정규직 직원을 유지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계약직을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전체 직원 정규직원 중 68.6%는 일반 행정직(48명)이고, 그 외 기술직(10명), 기능직(9명), 별정직(3명) 등이 약 31.4%를 차지하고 있다. 재학생 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직원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1-7> 직원 현황

연 도	합계	정규직					계약직
		소계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2006	71	69	45	11	9	4	2
2007	71	68	44	11	9	4	3
2008	69	66	44	10	9	3	3
2009	77	70	48	10	9	3	7

1.2 자체평가 개요

1.2.1 자체평가의 목적

최근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학 환경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질적 성장을 위해 현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이명박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질 제고 및 정보의 공개라는 큰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공시제와 대학 자체평가라는 새로운 고등교육의 질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즉, 정부는 정보공시제와 대학 자체평가라는 두 제도적 틀을 법제화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고(WCU 사업), 대학의 우수역량 강화를 위하여 과거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할 예정인데, 재정 지원사업을 정보공시-자체평가-외부평가-평가결과의 활용 등과 연계시켜 운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자체평가는 바람직한 정보공시와 외부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동시에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따라 해당 대학의 발전과도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우리 대학 자체평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대학의 정보공시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2007.5)」을 제정하여 정보공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일반 사립대학은 13개 영역 51개 항목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학 자체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정보공시를 수행하는 것이 자체평가의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 대학 자체의 발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기 점검의 과정으로써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평가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활동으로 현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점을 찾아냄으로써 미래의 발전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의 대학 발전계획과 경영 현황, 교수·학생·직원 등 구성원들의 활동, 교육 및 지원체계, 대외협력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봄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규명하며, 나아가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중국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혁적이고 창의적인 발상과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다른 대학과의 인적·물적 정보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대학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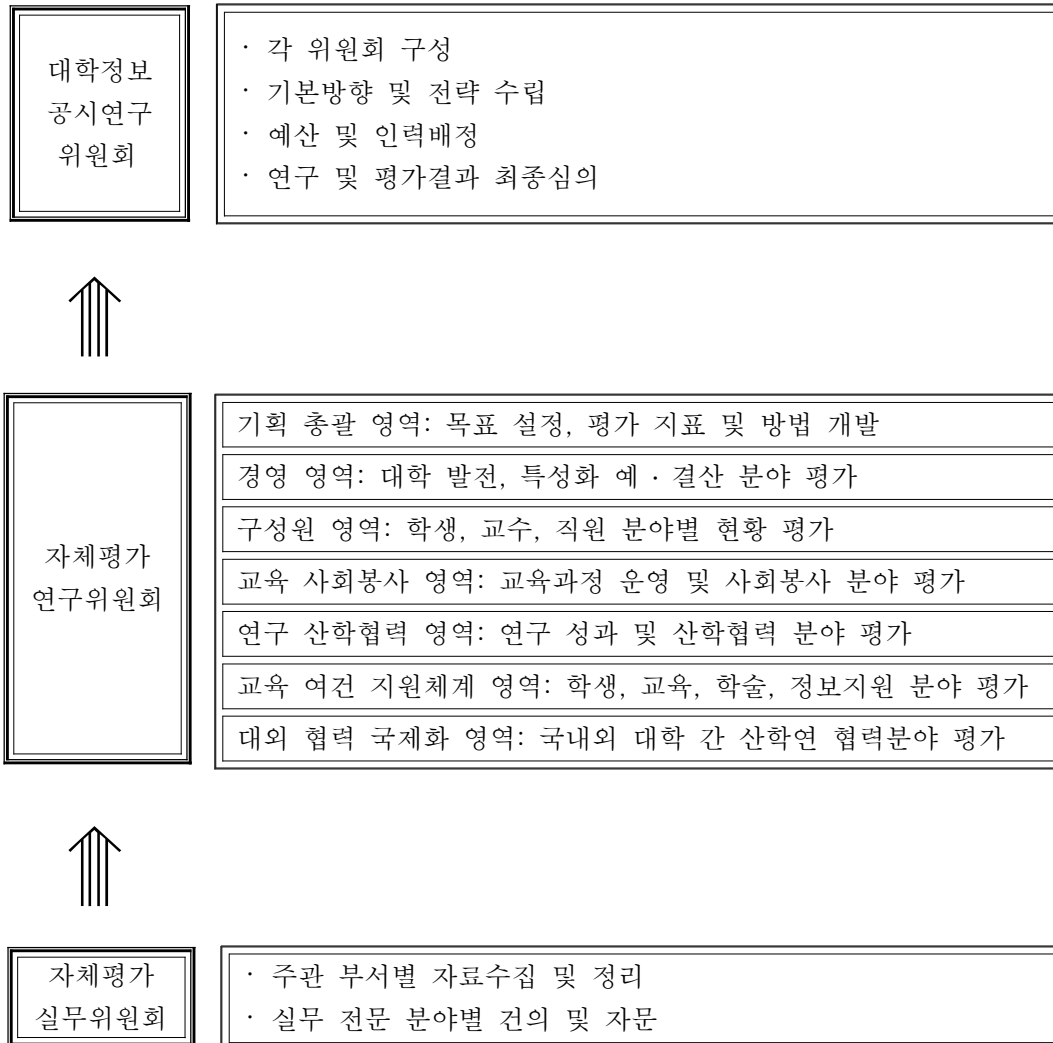
1.2.2 자체평가의 추진 체계

대학 자체평가는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추진되지만, 우리 대학은 자체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학정보공시연구위원회, 자체평가연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였다. 대학정보공시연구위원회는 우리 대학의 「대학정보공시연구위원회 규정」에 따라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대학원장 및 각 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분야별 평가 전문 교수로 구성되었다.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평가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자체평가연구위원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담 직원의 배치와 각 부서의 과장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조직 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

각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면 대학정보공시연구위원회는 우리 대학의 「대학정보공시연구위원회규정」에 따라 자체평가 연구위원회 및 자체평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한다. 동시에 자체평가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최종 심의한다.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는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개발하며, 이를 근거로 실제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자체평가 실무위원회는 연구위원들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실무 차원의 건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그림 1-2-1> 자체평가 추진체계도



평가결과는 정보공시연구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친 후 대학 홈 페이지에 공시하며 교육과학부에도 보고한다. 대학 당국은 분석 및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다음 평가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한다. 2009년도 자체평가와 관련된 추진체계와 각 위원회의 명단 및 역할은 <그림 1-2-1>와 <표 1-2-1> 및 <표 1-2-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1> 대학정보공시연구위원회

구 분	성 명	직 책	직 급	소 속
위원장	임영택	부총장	교 수	신학부
위원	황현숙	신학대학원장	교 수	신학부
	김원기	사회과학·교육·예술대학원장	교 수	조형회화학과
	정효현	총무처장	3급	총무처
	정동환	교무처장	교 수	문예창작학과
	서명수	학생복지처장	부교수	신학부
	황인태	입학·홍보처장	교 수	금융보험학과
	조영국	기획처장	교 수	도시·지역학부
	고재모	자체평가연구위원장	교 수	경영대
간 사	홍창의	과 장	5급	기획처 기획과

<표 1-2-2> 자체평가 연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 분		담당영역	성 명	직 급	소 속
연구 위원회	위원장	총괄, 대학 경영	고재모	교 수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위원	1.대학 경영 영역	김성기	조교수	교양교직학부
		2.학생·교수·직원 영역	김광희	부교수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3.교육·사회봉사 영역	김영주	조교수	예술대학 가구디자인학과
		4.연구·산학협력 영역	김완기	부교수	이공대학 건축공학과
		5.교육여건·지원체계 영역	홍순원	전임강사	신학대학 신학과
		6.대외협력·국제화 영역	구광본	조교수	인문사회과학대학 문예창작학과
	간사	행정지원 총괄	홍창의	5급	기획처 기획과
실무 위원회	위원	교무과	이흥호	4급	교무처 교무과
		학생복지과	이동욱	5급	학생복지처 학생복지과
		대외협력과	배상범	5급	입학홍보처 대외협력과
		재무과	신상균	3급	총무처 재무과
		기획과	홍창의	5급	기획처 기획과



1.2.3 자체평가의 내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과학의 13개 정보공시 항목, 자체평가 시범대학 운영 결과, 외부 평가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중앙일보의 평가항목 등을 종합하여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시범대학은 교과부가 제시한 의무항목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발전 및 혁신과 연계된 자체평가를 함으로써 평가항목의 수가 130개 정도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은 올해에 처음으로 자체평가를 시행하는 만큼 교육과학부의 정보공시 내용과 같은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평가에 임하고자 한다. 시범대학 대부분이 우리 대학의 규모에 비해 훨씬 큰 대규모 국공립 혹은 사립대학들로서 시범 사례를 그대로 수용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제시한 13개 영역 51개 정보공시 항목을 분석해 본 결과 상호 연관성이 큰 항목들을 묶어서 다음에 제시한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비교적 효과적이라 판단되었다. 즉, 6개 영역은 1)대학 경영 영역, 2)대학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 영역, 3)교육 및 사회봉사 영역, 4)연구 및 산학협력 영역, 5)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영역, 6)대외협력 및 국제화 영역 등이다.

6개 영역별 평가결과가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학문 단위별(학과별)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과별 평가는 교수, 학생 및 재정이바지도의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이는 앞서 6개 영역별 평가의 결과를 학과별로 분류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역별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다시 학문 단위별로 구분하는 이유는 평가결과의 피드백과 활용을 위함이다. 즉, 장기적으로 영역별 평가결과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어느 단위 위에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해서 대응방법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년에는 학문·행정 단위별 평가를 유예하고, 다음 자체평가 시기부터 평가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각 단위별로 평가에 대비한 준비 기간이 부족했고, 대학 전체적으로도 2004년 이후 발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 보완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1.2.4 자체평가의 평가 방법

자체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가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자체평가의 방법과 관련된 몇몇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교과부 혹은 법률 규정에 따라 기준이 제시된 경우 이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교원 확보율, 신·편입생의 충원율, 예결산과 관련된 각종 명세 등이 그것이다.

둘째, 교과부 혹은 법률 규정에 제시된 기준이 없을 경우 대부분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교수들의 논문 발표 실적, 외국인 학생 비율 등이 그것이다.

셋째, 위의 두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일부 지표는 우리 대학에서 자체 개발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었다. 예를 들면 발전계획의 적절성, 강의평가 결과, 사회봉사 실적 등이 그것이다.

모든 평가지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학사운영, 특성화, 교육과정 등과 같이 정량평가가 어려운 일부 지표는 해당 항목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의 적절성을 주요 기준으로 설정하여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6개 주요 영역별 세부 평가방법을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학 경영 영역

대학 경영 영역은 대학 규정, 대학 발전 및 대학 재정의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대학 규정은 「협성대학교 대학규정」 내 150개 정도의 각종 규정·세칙 등이 제정·개정·수정 시 합리적 과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구성원이 쉽고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는지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대학 발전은 대학 발전 계획과 특성화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2004년도에 수립된 ‘협성대학교 비전과 종합 발전계획’은 동 계획의 수립·실천 과정의 적절성, 민주성, 실현 가능성 등을 정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우리 대학의 특성화 사업은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추진과정에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개선해야 하는지 등이 검토되었다.

대학재정 분야는 매년 교과부에 보고되는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 기준)’ 중 수입과 지출 명세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적립금, 기부금, 등록금, 지원금 등의 내용은 정량적으로 평가되었고,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가는 정성적으로 평가되었다. 산학협력단 회계의 평가는 앞의 교비회계 평가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2) 구성원(학생·교수·직원) 영역

이 영역은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 교수, 직원을 구분하여 각각의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작성하였다. 학생 분야는 학생 선발, 학생 충원 및 유지, 학생 진로 등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교수 분야는 교원현황과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평가하였고, 직원 분야는 직원 현황, 직원 능력개발 및 직원 업적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평가지표와 측정방법은 교과부에서 이미 제시한 기준이 있거나 대부분 대학에서 늘 사용해 왔다. 따라서 정량적 분석이 비교적 쉬운 영역이다. 평가의 근거 자료로는 교육기본통계조사 제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원 현황 통계, 대학정보공시 제출자료 등이 활용되었다. 다만, 입학전형, 교수역량개발 등과 같은 일부 지표는 정성적으로 평가되었다. 또 평가의 결과가 어떤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수도권에 있으면서 우리 대학과 규모가 유사하거나 경쟁 대상이 되는 몇몇 대학과 비교 분석하여 그 성과를 객관화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대학의 정보는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자료를 이용하였다.

3) 교육 및 사회봉사 영역

이 영역은 크게 교육과정 및 운영과 사회봉사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전자는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과 개선 노력, 강의계획서에 의한 수업관리 실태, 강의평가 결과의 시행과 적절성 등이 주요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후자는 재학생, 교수, 직원 등의 사회봉사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일반화된 측정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우리 대학의 역량과 현실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4) 연구 및 산학협력 영역

이 영역은 교수의 연구 성과와 산학협력 분야에 대한 평가이다. 연구 성과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발표하는 등재 후보지 이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결과, 저서와 역서의 발간 실적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교내외 연구비 수혜실적도 검토의 대상에 포함해 우리 대학의 종합적인 연구 지원 역량을 평가하고자 시도하였다. 산학협력 분야는 우선 산학협력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고서 우리 대학에서 개설되고 있는 강의가 산업 현장과 얼마만큼 연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5)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영역

이 영역은 학생지원, 교육지원, 학술지원 및 정보지원의 네 분야로 나누어 평가되었다. 학생 지원 분야에서는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복지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교육 지원 분야는 교육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지와 교사 확보 현황,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되어 평가되었다. 학술 활동 지원 분야는 교내 연구소에 대한 지원과 연구소별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보지원 분야는 학생의 교육과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도서관의 장서 보유 현황, 등록금 대비 도서관 예산 비율, 전자도서 현황과 활용 등이 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되었다.

6) 대외협력 및 국제화 영역

이 영역은 외국인 유학생, 해외파견 교환학생, 외국인 교원 등을 지표로 하는 국제화 분야와 국내외 대학이나 산업체와의 교류·협력 여건 등을 고려한 대외협력 분야로 나누어 평가되었다. 대부분 지표는 정량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우리 대학의 역사가 짧고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치는 두드러지지 않아 비교적 간략히 서술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영역별 주요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공시항목과의 관계 등을 다음 <표 1-2-3> ~ <표 1-2-8>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1-2-3> 대학 경영 영역의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공시 항목
대학 경영	대학 경영	대학규정	■ 대학 규정운영의 적합성 ■ 학사운영의 적합성	○ 정관, 학칙 등 제규정의 합리적 운영/정성평가	1-가
				○ 합리적 학사운영 및 관리 여부/정성, 정량평가	1-나
	대학 발전	대학발전 계획	■ 발전계획의 적절성 ■ 발전계획의 실행	○ 계획 수립 및 내용의 적절성/정성평가	10-가
				○ 계획 실행 및 달성 비율/발전지수 ○ 발전지수=목표치/실제치, 혹은 당해 연도 값/기준연도 값	
		대학 특성화 계획	■ 특성화계획의 적절성 ■ 특성화계획의 실행	○ 특성화 수립 및 내용의 적절성/정성평가	10-가
				○ 계획 실행 및 달성 비율/발전지수	
	대학 재정	재정여건	■ 예·결산 구조분석 ■ 적립금 비중 ■ 기부금 비중 ■ 등록금 비중 ■ 재정지원금 확보 실적	○ 주요 항목별 예·결산 구조	8-가
				○ 적립금/예산	8-나
				○ 기부금/세입	8-마
				○ 등록금/세입	13-아
				○ 지원금/세입	8-사
		예산운용	■ 예산운용의 투명성 ■ 예산운용의 효율성	○ 예산운용 절차의 투명성	자체
				○ 세입 대비 주요 지출 항목의 적정성	
		산학 협력단	■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 산학협력단 회계	8-바



<표 1-2-4> 대학 구성원 영역의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공시 항목
학생 · 교수 · 직원	학생	학생 선발	■ 입학전형 및 모집요강 ■ 기회 균형 선발 비율 ■ 신입학 경쟁률 ■ 편입학 경쟁률	○ 입학 전형방법의 적절성	3-가 4-가,나
				○ 입학홍보의 적절성	3-가,나
				○ 신입학 지원자 수/신입학 정원	4-다
				○ 편입학 지원자 수/편입학 정원	4-라
		학생 충원 및 유지	■ 신입생 충원율 ■ 편입생 충원율 ■ 재학생 유지율 ■ 중도 탈락률	○ 신입학 등록학생 수/신입학 정원	4-다
				○ 편입학 등록학생 수/편입학 정원	4-라
				○ 재학생 수/편제정원	4-마
				○ 중도탈락학생 수/신입학 등록 학생 수	4-사
		학생 진로	■ 졸업생 취업률 ■ 졸업생 진학률 ■ 정규직 취업률 ■ 취업자의 전공일치 비율	○ 취업자 수/졸업자 수	5-가
				○ 진학자 수/졸업자 수	5-나
				○ 정규직 · 비정규직 취업자 수 /졸업자 수	자체
				○ 취업자 중 전공일치 취업자 수 /취업자 수	5-다
		교육비	■ 학생 1인당 교육비 ■ 교육비 환원율	○ 교육 관련 제비용 지출액/재학생	자체
				○ 교육 관련 제비용 지출액/등록금	
	교수	교원 현황	■ 전임교원 비율 ■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 전임교원/전체 교원	6-가
				○ 확보율-교과부 기준 적용	6-다
				○ 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총 개설강의 학점	11-나
				○ 재학생 수/전임교원 수	6-나
				○ 산업체경력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수	6-라
		교수 역량 개발	■ 교수학습 개발지원 실적 ■ 교수역량강화 교육 실적	○ 교수학습개발프로그램 수 및 지원실적	자체
				○ 교육역량강화 교육 및 참여 실적	
	직원	직원 현황	■ 업무별 직원 현황 ■ 직원 1인당 교원 수 ■ 직원 1인당 학생 수	○ 직원 현황 및 규모 · 업무 적정성	13-사
				○ 전임교원 수/직원 수	
				○ 재학생 수/직원 수	
		직원 능력 개발	■ 직원능력 개발지원 실적 ■ 교직원 후생복지	○ 직원능력 개발 지원 실적	13-사
				○ 직원 후생복지 시설 및 지원실적	
		직원 업적	■ 행정 효율화 · 전문화 실적 ■ 자기계발 · 포상 실적	○ 인사제도 평가	13-사
				○ 훈 · 포상 실적	



<표 1-2-5> 교육 및 사회봉사 영역의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공시 항목
교육 · 사회 봉사	교육 과정 편성	교육 과정 편성	■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 교육과정 개선 노력	○ 전공 최저 이수 학점 /총 필요 이수 학점	2-가
				○ 산학협력 혹은 실무 교과목 수 /총 개설 교과목 수	
				○ 공인인증 교과목 수 /총 개설 교과목 수	
	교육 과정 및 운영	교육 운영 성과	■ 강의계획서에 의한 수업관리 ■ 강의평가 결과 ■ 성적평가 결과(성적 분포) ■ 복수 · 부전공 이수학생 비율 ■ 세미나, 특강 등 개최 실적	○ 강의계획서 입력 및 이행 만족도 - 전산자료 활용	2-나
				○ 강의평가 결과-전산자료 활용	2-나
				○ 성적평가 결과-전산자료 활용	5-나
				○ 복수 및 부전공 이수학생 수 /총 재학생 수	자체
				○ 연간 세미나, 특강 등 개최실적	자체
	사회 봉사	사회 봉사 성과	■ 재학생 사회봉사 참여 실적 ■ 교직원 사회봉사 참여 실적	○ 재학생-교내외 학술, 비 학술 각종 활동	자체
				○ 교직원 • 교내-행정보직, 위원회활동 등 • 교외 봉사-학술단체 임원, 공공기관 위원, 방송출연 등 • 대학발전이바지-기금유치, 벤처 창업, 취업알선, 비학술분야 활동 등	자체



<표 1-2-6> 연구 및 산학협력 영역의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공시항목
연구 · 산학 협력	연구 성과	논문 발표	■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 국외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 국내학술대회 논문 발표 실적 ■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실적	○ 학진 등재후보 이상 논문 ○ SSCI, SCI, A&HCI, 기타 해외 저명학술지 ○ 공동게재 혹은 발표-본교 규정	7-가
		저·역서 발간	■ 저서·역서 발간 실적	○ ISBN 등록 (서평, 개정 증보판 제외) ○ 공동 저·역서-1/n	7-나
		연구비 수혜	■ 교내연구비 수혜 실적 ■ 교외연구비 수혜 실적	○ 교내 연구비 지급 규모 ○ 교외 연구비 수혜 규모	11-가
	산학 협력	기술 실적	■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 계약, 출원, 등록 등/건수 계산	11-바 11-사
		산학 협력 실적	■ 산학협력 실적 ■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 산학협력 실적 ○ 산업체 연계 교과목 개설 수/총 교과목 수	자체 11-마

<표 1-2-7>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의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공시항목
교육 여건 · 지원 체제	학생 지원	장학금	■ 장학금 수혜율	○ 교내 장학금/등록금	11-다
			■ 학생 1인당 장학금	○ 교내 장학금/재학생 수	
		학생 복지시설	■ 기숙사 수용률	○ 기숙학생 수/재학생 수	13-마
			■ 학생 상담실 운영 실적	○ 상담실 운영 실적	자체
	학생 진로교육 지원	학생 진로교육 지원	■ 취업 프로그램 수	○ 교내 취업 프로그램 수	자체
			■ 취업 프로그램 참가자 수 ■ 취업 교육프로그램 지원액	○ 교내·교외 취업 프로그램 참가자 수	
	교육 지원	교육지원 시설	■ 교지 확보 현황 ■ 교사 확보 현황 ■ 교육환경 개선 실적	○ 교지, 교사 등 교육시설	13-다 13-라
				○ 교육환경 개선 실적	자체
	학술 지원	학술활동 지원	■ 각종 학술대회 지원 ■ 교내 연구소지원 및 성과	○ 학술대회 지원 실적 ○ 교내 연구소 지원 실적 ○ 연구소별 성과	자체
	정보 지원	도서 확보	■ 도서관 예산 비중 ■ 학생 1인당 장서 수 ■ 전자도서 활용 현황 ■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 도서관 예산/전체 예산	12-나
				○ 총 장서 수/재학생 수	12-가
				○ 전자도서 현황 및 활용실적	자체
				○ 총 도서구입비/재학생 수	12-나



<표 1-2-8> 대외협력 및 국제화 영역의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평가영역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공시 항목
대외 협력 · 국제화	국제화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학생 비율 ■ 외국인 교환학생 수 ■ 자비 유학생 수	○ 외국인 학생 수/재학생 수 ○ 교환학생 수/재학생 수 ○ 자비 유학생 수/재학생 수	4-바
		해외파견 · 교환학생	■ 파견 · 교환 학생 수 ■ 학생 1인당 지원액	○ 파견 · 교환학생 수 ○ 파견 · 교환학생 지원 금액	4-바
		외국인 교원	■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 원어강좌 비율	○ 외국인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수 ○ 원어강좌 교과목 수 /총 개설 교과목 수	6-마
	대외 협력	외국대학 교류	■ 교류 · 협력 대학 현황 ■ 공동 · 복수학위 현황	○ 교류 · 협력대학 수와 분포 ○ 공동 · 복수학위 수여 대학 수	11-라
		외국업체 교류	■ 연중 해외 산업체 실습 ■ 해외 실습학생 지원 규모	○ 재학생 해외 실습 실적 ○ 해외실습 지원액	자체



제2장 자체평가 결과 보고

- 2.1 대학 경영 영역
- 2.2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영역
- 2.3 교육 및 사회봉사 영역
- 2.4 연구 및 산학협력 영역
- 2.5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영역
- 2.6 대외협력 및 국제화 영역

H Y U P S U N G U N I V E R S I T Y



협성대학교
HYUPSUNG UNIVERSITY



제 II 장 자체평가 결과 보고

2.1 대학 경영 영역

대학경영은 대학의 교육을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의 총칭이다. 따라서 대학경영은 목표와 추진역량을 통해 효율적 운영 여부를 가름하며, 발전계획을 통해 현실에 대한 통찰과 장래의 비전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협성대학교 자체평가 첫 영역에서 우리 대학의 경영과 발전에 관한 내용을 평가함으로써 협성대학의 현실과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출발점이 되고자 한다.

2.1.1 대학 경영

대학경영에 관해서는 경영목표와 대학규정을 분석하여 평가한다. 목표가 적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서와 규정에 의한 합리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표와 규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1.1 경영목표

경영목표는 대학의 나침반과 같다. 어떤 방향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쉽게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게 좌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영목표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경영목표와 전략의 타당성·체계성, 그리고 경영목표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1) 경영목표와 전략의 타당성 및 체계성

경영목표와 전략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사회 실정에 들어맞는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대학은 기독교적 창학정신에



맞는 경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대학은 1977년 4월 1일 감리교 서울신학교로 개교한 이후 1982년 3월 감리교 협성신학교로 통합, 1983년 3월 4일 문교부승인 개교, 1985년 1월 8일 4년제 대학 학력인정교로 지정, 1988년 12월 31일 현재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으로 이전, 1991년 11월 15일 협성신학대학으로 개편인가, 1993년 2월 22일 협성신학대학교로 명칭 변경, 1994년 9월 1일 협성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학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 민주적 지성을 갖추게 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학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교수하여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실천하여 왔다.

우리 대학은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하고 나서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교훈인 ‘믿음·사랑·봉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라는 신조 하에 많은 봉사와 협동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수원시로부터의 청솔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경인지역 대학협의회 활동, 화성지역연구소의 설치, 화성시 관·학협의회, 화성시와 정기적인 공동세미나 개최,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 무료개방, 지역주민들에게 운동장(인조잔디) 개방, 음악연구소부설 화성오페라단의 적극적인 활동, 지역주민 음악회 무료초대, 청소년음악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대동제,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자문, 경기도교육청 성과관리 참여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업들을 펼쳐왔다.

또한, 학생들의 민원처리 과정을 원활히 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터치 행정서비스센터를 제2교육관 1층에 준공하여 효율적인 원터치 행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창학이념과 교육목표, 경영전략 등은 모두 긴밀히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은 창학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창학이념은 국가의 보편적 교육목적인 교육이념과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 신학과 경건주의 신앙생활에 입각한 진리탐구와 참된 인간의 가치추구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위 창학이념에 충실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기독교 전문사역자와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고 믿음·사랑·봉사를 실천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실천하는 신앙인, 봉사하는 지도자, 능력 있는 전문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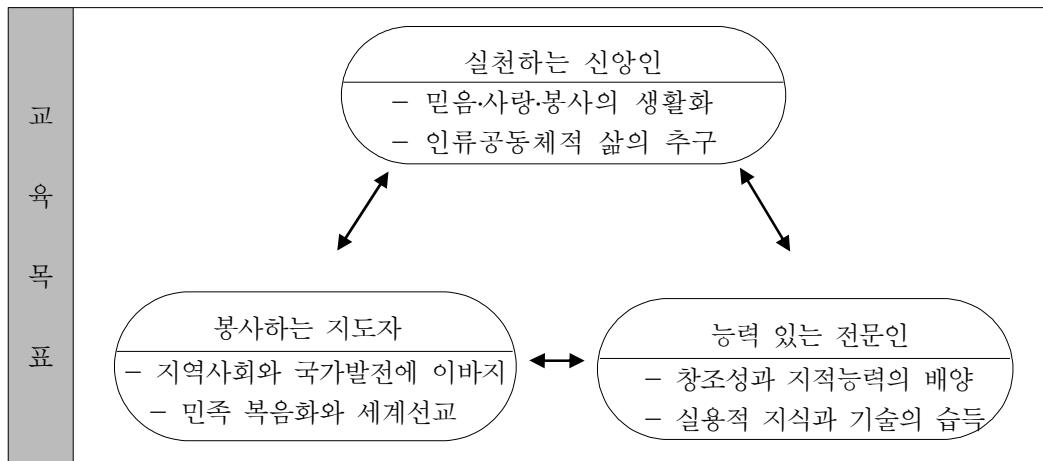


<그림 2-1-1> 교육이념 · 교육목적 · 교육목표 체계도

창학이념	본 대학은 대한민국 민주교육의 기본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적 신학과 경건주의 생활 신앙에 입각하여 진리 탐구와 더불어 인간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목회자와 유능한 인재 양성을 창학이념으로 한다.		
	목회자와 유능한 인재의 양성		



교육목적	본 대학은 미래 사회를 열어갈 전문 지식, 지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믿음 · 사랑 · 봉사를 실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시민 자질 함양	믿음·사랑·봉사의 실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양성



학부 전공 및 학과의 교육목표



2) 목표 추진 실적

우리 대학은 위와 같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4년과 2008년에 ‘협성대학교 비전과 대학종합 발전계획’을 세워 세부과제들을 추진했다.

<표 2-1-1> 전략 대비 추진 실적

전 략	추진 목표 및 과제	실적
민음 · 사랑 · 봉사정신의 함양과 실천	■ 교직원 대상 실적 □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전 개최되는 교직원 예배 프로그램 개선 □ 매일 오전 8시 40분 교직원 아침예배 활성화 □ 교직원 기독교인 소그룹 활동 활성화(교직원 중창모임 등)	완료
	■ 재학생 대상 실적 □ 채플시간 중 비기독교 재학생을 위한 비기독교인 특강 증가(전교생 대상 말씀축제, 영성축제의 실시) □ 기독교인 재학생에 대한 심화프로그램 운용 - 기독교 영상포럼, 방학 중 신앙수련회 개최 등 - 신학부 재학생의 영성훈련 M.T. 지원	완료
	■ 8차 교과과정에서 봉사활동의 학점화	완료
최고의 학생중심적 교육인프라 구축	■ 학생회관, 신학관 및 예술대 실습관 신축	완료
	■ 학술정보관 개축 및 시설 확대	미착수
	■ 종합전산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 □ 홈페이지 전면개편, 포탈시스템 구축, 행정전산망 완료 등	완료
	■ 제8차 교과과정 개편위원회 발족 및 활동	완료
	■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립(2005년 4월 직제 개편) □ 진로상담 전문가 2명(박사급) 신규 채용	완료
	■ 학생종합봉사실의 확대개편(2005년 4월 직제 개편)-진로교육지원센터로 대체 □ 민원서류의 one stop service system 확립(2교육관 1층)	완료
특성화된 교육중심 대학으로의 발전	■ 특성화 사업 확정 및 추진 □ 건강도시구현을 위한 지속가능 도시건축 프로그램 및 e-health 프로그램 □ 학교기업 나무망치 육성 사업, 재래상인육성프로젝트	완료
	■ 학과(전공)별 특성화 계획 수시 접수 및 검토	진행중
	■ 교수 신규채용 확대 □ 전임교원 2006년 114명에서 2009년 140명으로 26명 증가	진행중
	■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설립(2005년 4월 직제 개편)	완료



전 략	추진 목표 및 과제	실적
	■ 수업행동분석실 설치(2008.12)	완료
	■ 우수학생 확보를 위해 입시담당 업무를 교무처에서 분리하여 입학홍보처로 개편(2005년 4월 직제 개편)	완료
지역사회와 함께 세개로 뻗어가는 대학	■ 화성지역연구소의 개설 □ 화성시와 공동세미나 개최(2004년) 등	완료
	■ 지역주민과 중고생들에게 도서관 개방 실시(2005년 3월)	완료
	■ 음악연구소 부설 화성오페라단의 적극적 활동 □ 수원시와 공동으로 '정조대왕의 꿈' 공연 (2005.1, 예술의 전당)	완료
	■ 학생 해외연수 강화 □ 재학생 해외연수 실시, 학점인정 및 왕복 항공료 전액 지원	완료
	■ 외국 대학과의 교류 확대 □ 미국 세인트 폴 신학대학원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2006.4) □ 영국 웨슬리대학교 자매결연 협정 체결(2007.10) □ 일본 야마나시에이와 대학 학술교류 협정 체결(2008.6) □ 러시아 국립 연해주 농업대학교 학술교류 협정 체결(2008.8) □ 중국 사천외국어대학교 학술교류 협정 체결(2008.8) □ 중국 목단강대학교 학술교류 협정 체결(2008.8) □ 중국 하남사범대학교 학술교류 협정 체결(2008.9) □ 중국 사천사범대학교 성도학원 학술교류 협정 체결(2008.11) □ 토고 로메신학대학 학술교류 협정 체결(2008.11) □ 미국 게렛대학 학술교류 협정 체결(2009.1) □ 미국 클레이몬트대학 학술교류 협정 체결(2009.2)	완료
	■ 산학협력단 설립(2004.8) 및 활성화 □ 산학협력단 산하 도시환경계획연구소 설립(2005.5) - 도시기후연구소, 어메니티자원연구소 등 6개 연구소, NGO 단체로서 시민계획스튜디오, 기업체로서 (주)그린플랜 등에서 생태,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가 참여	완료
	■ 외국어교육원 설립 □ 중국유학생 유치(2009학년도)	진행중
건전재정 운용 및 재원의 다양화	■ 협성대학교 발전기금 제도정비 및 모금 활동 전개(2004.12) □ 감리교 각 연회 및 동문대상 모금활동 전개 □ One plus One(1개 교회가 재학생 1인 장학금지급)운동 전개	진행중
	■ 신축건물 경비절감 및 효율적 감리를 위한 CM(Construction Management) 도입(2005.1~2007.2. 약 5억 원 소요)	완료
	■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한 외부 자문	진행중



위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학생의 교육여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몇몇 지표를 비교해 본 결과 2004년 ‘협성대학교 비전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비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6~2008년의 3년 평균 재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확보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은 2004년에 비해 훨씬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의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생 등록금 의존도는 아직 목표치보다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두 분야의 개선은 다양한 재원의 확보와 지속적인 전임교원 충원이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한 분야이다. 우선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에만 26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하여 2009년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59.1%까지 높아졌다. 앞으로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점차 감소하여 보다 나은 교육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1-2> 2004년 종합발전계획서 수립 당시의 현황과 목표 및 최근 실적

구 분	2004년 현황	2010년 목표	2006~2008년 실적 (평균)
재학생 1인당 교육비(천원)	590	800	684
교사(校舍)확보율(%)	76	85	98.0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명)	36	30	37.3
전임교원 확보율(편제정원 기준, %)	51	62	48.1
학생 등록금 의존도(%)	93	85	79.2

2.1.1.2 대학 규정

대학 규정은 그것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될 때 대학경영을 효율적이면서 융통성 있게 만들 수 있다. 대학의 의사결정은 대학 고유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대학은 직제규정과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분장 규정과 위임전결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인이사회의 의사결정은 비교적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학사 관련 규정

우리 대학은 변화에 적응하면서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 대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4년마다 교과과정을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교양과목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년마다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학칙시행세칙」 제44조).

우리 대학의 전공교육과정은 전공필수과목을 대폭 축소하여 교수중심의 교과목 편성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복수전공, 부전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공필수 18학점, 전공 선택 48학점으로 조정하였다. 다만 학과의 교과편성 자율성과 학업선택의 폭을 강화하기 위해 학과별로 총 90~108 학점의 전공 교과를 편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중 단일전공자의 최소 이수학점은 66학점,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 48학점, 제2전공 39학점, 부전공자는 제1전공 66학점, 제2전공 21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직과정은 이수신청자가 소속된 학과의 당해 연도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이수자를 선발하도록 하며, 이수 학점은 제1전공 66학점, 교직과목 29학점이다.

학칙은 대학 재학 중에는 물론 졸업 후에도 대학과 관련된 학생들의 위상을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합리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우리 대학은 학생의 학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학칙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학사관리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시험 및 성적 관련 규정(「학칙」 제7장 및 「학칙시행세칙」 제8장): 매 학기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과목에 대하여 학기말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학기당 평점평균이 1.75(4.5만점 기준) 미만인 자는 학사 경고 조치를 하며, 재학기간 통산 4번째 학사경고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한다.
- 졸업 및 학위와 관련한 규정(「학칙」 제11장 및 「학칙시행세칙」 제18장): 학년별로 수료 학점을 규정하여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정의 과정을 마친 이는 졸업 논문(졸업논문, 실기 발표 혹은 졸업시험)을 합격해야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휴학, 복학, 제적, 퇴학에 관한 규정(「학칙」 제10장 및 「학칙시행세칙」 제17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기간도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재학 기간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복학 또한 휴학사유가 소멸된 후 복학 해당 학기의 등록 기간 안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정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유 없이 소정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이중 학적을 가진 자, 재학기간 학사경고를 통산 4회 받은 자, 재학연한 내에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수업 일수 4분의 1을 무단결석한 자는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평생교육 지원 관련 규정

우리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원, 중등교원연수원, 청솔노인복지회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대학은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각 「평생교육원운영규정」, 「중등교원연수원운영규정」, 「청솔노인복지회관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운영규정에서는 명칭, 설립 목적, 조직, 운영위원회, 설치과정, 수강생 활동 및 포상, 회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3) 사회봉사활동 지원 관련 규정

우리 대학의 학생봉사활동을 위한 지원 관련 규정으로는 「학칙시행세칙」 가운데 「사회봉사활동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목적, 사회봉사 영역의 범위 및 사회봉사기관의 선정 기준, 학생봉사활동 지도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는 교수가 사회봉사활동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독려하고 있다. 「교수업적평가규정」에서는 교수의 교내봉사와 교외봉사를 교수 업적 평가 규정 가운데 봉사영역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을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학생 봉사활동은 개인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적십자사 헌혈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학생의 사회봉사참여에 관한 규정을 「사회봉사활동운영규정」에 마련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 대학은 학생의 개인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한 학기에 한 해 1학점으로 환산해주고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 학점 취득제도는 개인의 봉사활동 장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봉사활동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4) 교원인사관리 관련 규정

우리 대학은 교원임용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원인사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원인사행정의 신뢰성 확보의 기본이 되는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원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협성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신규교원을 채용할 때 3단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각 단계의 위원회에서는 「신임교원채용전형지침」 등 교수 채용에 관한 각종 규정 및 내규에 따라서 해당 위원회에 맡긴 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명확한 원칙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 대학의 교수업적평가는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교수들의 업적을 합리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함으로써 교수의 강의와 연구 및 사회 봉사활동을 독려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승진과 재임용 계약을 위한 심사는 교원의 승진 임용 기간에 따라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해당 교원이 교원업적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을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면, 학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규정된 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한다. 그리고 평가 자료는 교원인사위원회에 부쳐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승인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우리 대학은 전임 교수가 전공분야의 연구에 충실하고 학문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연구년제운영규정」을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간강사는 전공 학과 및 교양교직학부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우리 대학은 「비전임교원인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두고 운영 중이다. 이 규정에서는 시간 강사의 자질 및 수업부담 시간, 위촉의 제한 조건 등을 계량적으로 객관화하여 학연 및 지연에 의한 무분별한 강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특히 추천된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를 밝기 때문에 시간강사들의 자질과 전공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양적으로 풍부한 지원인력이 대학 교수의 강의와 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수업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조교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조교 임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의 유급조교는 행정조교와 실습조교로 구분된다. 우리 대학의 유급조교의 자격 요건 및 근무시간, 담당업무 내용 등은 「조교임용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조교의 임용 기간은 1년



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은 조교에게 그 직능에 따라 매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행정조교, 실습조교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며,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고용보험, 의료복지제도 등의 후생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조교는 명문화된 인사규정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하고 있다.

5) 직원인사관리 관련 규정

우리 대학의 직원 인사에 관한 규정은 직원의 임용자격, 임면, 승진, 신분보장 및 상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과 대학의 「직원인사규정」 이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리 대학의 「직원근무평정규정」 에 제도화되어 있다. 우리 대학의 직원 채용은 조직체의 인적자원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직원 채용 제도는 직원인사규정을 근거로 하며, 기획처에서 잠정정원을 확정 → 직원인사위원회 협의를 통한 인력수급계획 확정 → 법인 채용승인 요청 → 직원인사위원회를 통한 선발방법 확정 → 인사행정과에서 모집공고를 통하여 직원채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직원 업무평가제도는 「직원근무평정규정」 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정은 업무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고, 평정절차를 다원화하고 있다.

6) 장학생 선발 관련 규정

우리 대학에서는 「학칙」 제61조에 명시된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장학금지급규정」 에 자세히 명시하였다. 학생들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구분하고, 교내장학금은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제한조건,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교외장학금은 지급 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7) 연구지원 업무처리를 위한 편람 및 규정

교수들이 효과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을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관련된 규정으로는 「교내연구비지급규정」, 「교외연구비관리규정」, 「부설연구소설치 및 운영규정」 등이 있다. 특히, 「교내연구비지급규정」 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2004년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교수들의 연구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1.2 대학 발전

2.1.2.1 대학 발전계획

우리 대학은 2004년부터 ‘협성대학교의 비전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실행계획을 설정, 추진해가는 과정 중에 있으며, 2008년에는 2008~2022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1) 발전계획의 적절성

우리 대학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 민주적 지성을 갖추게 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학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교수하여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봉사활동의 학점인정, 바른 가치관을 지닌 젊은이로의 변화 등 참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교육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별 전략을 세워 구체적 이면서도 현실적인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1-2> 협성대학교 장단기 발전계획 구상도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기반구축단계로서 교육중심대학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왔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략적 준비단계로서 우리 대학의 제2창학을 모토로 특성화된 교육중심선도대학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발전적 준비단계로서 우리 대학이 교육중심대학으로 성공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자 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지속적 준비단계로서 세계 수준의 교육중심대학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칠 것이다. 현재 이러한 계획은 캠퍼스 마스터플랜의 꾸준한 실행으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2) 발전계획의 실행

위와 같은 발전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우리 대학은 다음과 같이 추진방향을 정하고 세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3> 협성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방향과 과제

추진방향	추진과제
전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 학과별 책임 운영 • 학과 교육과정의 특성화
인성교육의 제도적 강화	• 전인적 인격을 갖춘 전문인 양성 • 교육목표와 연계된 교원확보
현장교육의 시스템 확립	• 산학협력 활성화 • 평생교육 활성화 • 행·재정의 혁신
섬김과 나눔 화합의 다기능 캠퍼스 구축	• 창학정신 실현 • 고품질,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특성화된 교육중심 교육모델 제시	• 특성화 추진

□ 전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우리 대학은 학과별 책임 운영과 학과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통해 전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중심대학에 적합한 특성화 추진, 대학전체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성화 추진(대학발전을 선도하는 특성화), 단과대학 또는 대학 전체 단위의 특성화 모색, 특성화와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 인성교육 및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양 교육과정 개편, 실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전공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추진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은 2010년에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인성교육의 제도적 강화

우리 대학은 전인적 인격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고 교육목표와 연계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임교원 확보율의 지속적 개선, 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른 교원 확충, 외국인 교원 및 실무교육 전담 교수 비율 제고 등의 추진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은 2010년에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장교육의 시스템 확립

우리 대학은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며 행·재정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현장교육중심의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의 고품질화, 제 규정의 정비를 통해 모두가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행정문화의 정착, 재정 수입구조의 개선, 전산화,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성과지표에 연계된 행·재정 운영제도의 정착을 통해 예산 효율성 제고 등의 추진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은 2010년에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섬김과 나눔 화합의 다기능 캠퍼스 구축

우리 대학은 장학이념을 실현하고 고품질·고효율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지만 최적의 캠퍼스 환경 조성을 겨냥한 캠퍼스 마스터플랜의 수립,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 및 대학 재정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캠퍼스 환경 조성, 경쟁 교육중심대학보다 미비한 교육시설의 우선적 확충, 용도별(행정용 시설, 교육연구용 시설, 교육 부대시설) 및 단과대학별 건물 분리 고려 등의 추진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은 2010년에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특성화된 교육중심 교육모델 제시

우리 대학은 교육의 특성화를 추진함으로써 특성화된 교육중심 대학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후발, 소규모, 교육중심대학으로서의 우리 대학 위상에 맞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분명한 성과 지표를 가진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추진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은 2010년에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2-1-3>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 계획

시기	단기		중기		장기	
	2008	2012	2013	2017	2018	2022
도입시설	·원터치행정서비스센터 구축 ·공학관(테크노센터) ·국제관 ·협성비전센터 ·외국어교육원 ·평생교육원강의실 ·수익공간 ·주차장 ·근린상가부지매입	→ ·학술정보관 ·박물관 ·생활관 ·예술대 실습관 증축 ·대학교회 ·분천리 부지활용	→ ·대학본부 ·제2교육관 리모델링 ·산학협력관 ·실내종합스포츠센터	→ ·경영관 ·종합관		

2.1.2.2 특성화 계획

많은 대학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고유의 특화된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성적 학교 발전은 곧 대학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핵심분야를 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영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도 특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 대학도 2004년도에 특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특성화 추진일정에 따라 특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특성화 계획을 공모하여 이공대학에서 제시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산·학·연·관 프로그램’을 특성화 과제로 선정하였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왔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재래시장 육성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전문유통인 양성교육프로그램 구축사업(유통경영학과)’과 ‘학교기업 「나무망치」 운영사업(가구디자인학과)’을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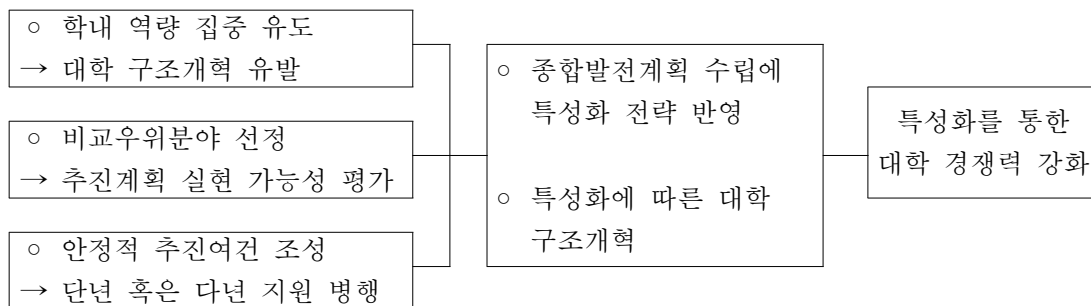
1) 특성화 계획의 적절성

우리 대학은 2004년에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산·학·연·관 프로그램’을 특성화 목표로 3개의 실천목표(교과부문, 연구부문, 봉사부문)를 선정하여 추진했다. 이 특성화 과제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건강도시 구현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전문 인력의 필요성”과 둘째, “향후 신입생 경쟁률과 졸업생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건강도시연구센터에서는 특성화 분야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외부기관 연계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부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력양성과 지역사회 봉사라는 우리 대학의 비전과 건강도시 구현의 특성화 주제는 서로 일맥상통하며 연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07년부터는 우리 대학의 종합발전계획을 기초로 비교 우위에 있는 기능과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정책에 부합한 과제를 개발하여 재정지원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특성화 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4> 2007~2008 특성화사업의 기본방향



2007~2008 특성화사업의 추진방침은 다음과 같다.

- 특성화 지원 사업은 특정 학과나 전공 단위의 구분이 아닌 개별 사업과제 단위로 추진한다.
- 특성화 사업과제는 유관 학문분야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특성화 사업과제는 사업성과가 가시적 측정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년 단위로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선정된 과제 중 우리 대학의 특성화 정책으로 맞는다고 판단되면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대학구조개혁 사업으로 발전시켜 추진한다.

2009년 현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중심대학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즉 어떤 한 분야의 특성화라기보다는 대학경영의 특성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구나 봉사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육’에 역점을 두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포부이다. 이는 실무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대학의 목표에도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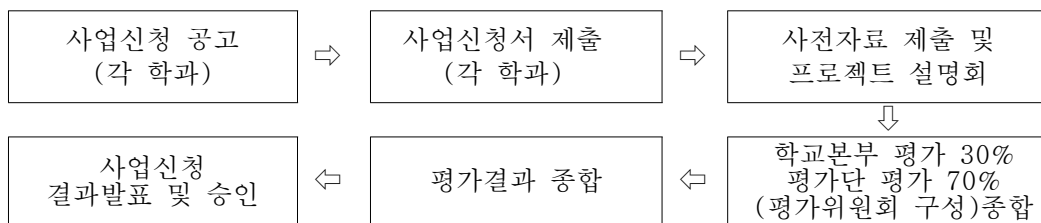


2) 특성화 계획의 실행

앞서 밝힌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산·학·연·관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2002년 11건에 240,026천원, 2003년 12건에 268,340천원, 2004년 6건에 203,200천원의 연구 과제를 유치하는 등 초기에 활동적인 사업들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만들었다. 그 이후에는 특성화의 초점이 ‘교육중심대학’이라는 교육중점의 특성화로 바뀔에 따라 ‘건강도시 프로그램’의 진행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특성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평가, 선정하고 있다.

<그림 2-1-5> 우리 대학의 특성화 평가 및 선정 과정



이 특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도 예산에는 총 1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즉 2009학년도 신규 특성화 지원사업(2개 과제) 예산 5,000만원, 계속 집행과제의 경우 년 단위로 구분하여 총 5,000만원을 지원한다. 우리 대학의 특성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범위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중심대학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학은 핵심 교육분야의 선정과 집중육성, 특성화의 추진, 우수교원의 확보와 실무교육 강화, 최고수준의 교육내용 제공, 우수학생의 확보와 지속적 관리 등 세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대학은 특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2004학년도에 수립하였고, 이를 2005학년도부터 시행하였다. 몇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교육분야의 선정과 집중육성을 위해 학과별 차별화된 교과과정을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둘째, 우수교원의 확보와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2004학년도 2학기에 교수채용기준 개정 및 우수교수를 충원하였으며, 2005학년도 1학기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였다.

셋째, 최고수준의 교육내용 제공을 위해서 2005년도 1학기부터 교수학습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의평가제도와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규정 및 연구년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수학생의 확보와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우수학생 유치 및 재학생 유지를 위한 주요 수행과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2.1.3 대학 재정

2.1.3.1 교비회계의 수입과 지출 구조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결산액 기준 교비회계의 수입과 지출 명세는 각각 다음 <표 2-1-4>와 <표 2-1-5>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 대학의 연간 총 수입액은 약 400억 원 내외의 규모이며, 가장 큰 수입원은 운영수입으로 전체 수입의 9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운영수입은 등록금, 전입 및 기부금, 교육 부대수입, 교육 외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대학의 법인은 순수 학교법인으로 사업체를 통한 수입원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수입은 1% 미만의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 학교의 역사가 짧고 교세가 약해서 외부로부터의 기부금도 적은 편인데, 다만 기부금의 규모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간 구성원들의 기부금 모금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대학은 대학원 과정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부대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은 매우 높아서 2006년 83.0%, 2007년 70.0%, 2008년 85.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학년도 등록금 의존율이 70.0%로 낮은 이유는 신학관, 학생회관, 예술대 실습관 등 주요 건축물을 완공하면서 약 80억 원의 건축기금 인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수입 구조 특징은 전기로부터의 이월금을 제외하면 등록금 수입에 대한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지출은 크게 운영지출, 자산 및 부채지출, 차기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출의 구성 항목 중 우선 두드러진 내용은 최근 수년 동안 몇몇 신축 건물을 완공하거나 신축 부지의 매입이 이루어지면서 투자와 기타 자산에 대한 지출 및 고정자산 매입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정자산 매입을 위해 2006년과 2007년은 각각 101억 원과 121억 원, 2008년은 54억 원 등이 지출되었다. 지난 3년간 약 370억 원의 지출이 고정자산 매입을 위해 지출되었다.

우리 대학의 연간 총 지출 규모가 약 400억 원 안팎이라 할 때 매우 큰 비중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학교 당국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표 2-1-4> 교비회계 자금 계산서-수입(결산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결산액	비율	결산액	비율	결산액	비율
운영 수입	등록금수입		31,201,944	82.97	31,460,650	69.56	35,329,737	84.99
	전입 및 기부금 수입	전입금	0	0.00	230,000	0.51	324,415	0.78
		기부금	362,287	0.96	544,459	1.20	872,680	2.10
		국고보조금	52,262	0.14	121,693	0.27	325,584	0.78
	교육부대수입		878,722	2.33	1,045,299	2.31	971,988	2.34
	교육 외 수입		768,606	2.04	986,031	2.18	1,128,995	2.72
	소 계		33,263,821	88.47	34,388,132	76.03	38,953,399	93.71
	투자과 기타 자산 수입		2,982,897	7.93	8,121,074	17.95	25,200	0.06
고정자산 매각 수입		16,565	0.04	1,740,156	3.85	272,520	0.66	
고정부채 입금						10,000	0.02	
전기 이월금		1,335,435	3.55	981,737	2.17	2,309,085	5.55	
합 계		37,598,719	100.0	45,231,099	100.0	41,570,205	100.0	

주) 각 항목별 비율은 합계에 대한 비율임

전체 지출 중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운영지출은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 외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교직원의 보수는 총 지출액의 약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균형 잡힌 비중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말 몇몇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서 관리운영비의 지출이 종래의 10% 수준에서 17% 이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앞으로 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학금과 학비감면의 규모는 총 지출이 약 10% 수준으로 전국의 일반 대학과 비슷한 수준이며, 연구비는 총 지출의 1%에도 미달하여 연구 여건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표 2-1-5> 교비회계 자금 계산서-지출(결산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결산액	비율	결산액	비율	결산액	비율	
운영 지출	보 수		13,692,013	36.42	14,124,444	31.23	14,487,030	34.85	
	관리 운영비	시설관리비	931,225	2.48	1,616,248	3.57	3,944,071	9.49	
		일반관리비	983,588	2.62	984,908	2.18	1,445,770	3.48	
		운영비	1,682,169	4.47	1,783,100	3.94	1,878,666	4.52	
		소 계	3,596,982	9.57	4,384,256	9.69	7,268,508	17.48	
	연구 학생 경비	연구비		230,344	0.61	276,630	0.61	312,293	0.75
		학생 경비	장학금	188,659	0.50	254,684	0.56	337,161	0.81
			학비감면	3,079,531	8.19	3,267,330	7.22	3,545,369	8.53
			실험실습비	358,154	0.95	359,267	0.79	420,872	1.01
			학생지원비	611,287	1.63	792,014	0.75	1,103,211	2.65
			기타	167,314	0.44	191,376	0.42	164,864	0.40
		입시관리비		418,316	1.11	528,749	1.17	858,872	2.07
		소 계		5,053,605	13.44	5,670,050	12.54	6,742,642	16.22
	교육 외 비용		72,666	0.19	46,464	0.10	29,477	0.07	
	소 계		22,415,266	59.62	24,225,212	53.56	28,527,657	68.63	
자산 및 부채 지출	유동부채 상환		493,784	1.31	0	0	0	0	
	고정부채 상환		91,912	0.24	557,137	1.23	353,577	0.85	
	투자과 기타 자산 지출 (특정기금적립)		3,527,341	9.38	6,046,242	13.37	5,438,570	13.08	
	고정자산 매입 지출		10,088,678	26.83	12,093,422	26.74	5,450,853	13.11	
	소 계		14,201,715	37.77	18,696,802	41.34	11,243,000	27.05	
차기 이월금			981,738	2.61	2,309,085	5.11	1,799,548	4.33	
합 계			37,598,719	100.0	45,231,099	100.0	41,570,205	100.0	

주) 각 항목별 비율은 합계에 대한 비율임



2.1.3.2 산학협력단의 수익과 비용 구조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03.4)」이 제정되고 나서 이 법에 따라 우리 대학은 2004년 8월 산학협력단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하였다. 산학협력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산학협력 사업 및 그와 관련된 회계관리인 데, 역사가 짧아 아직 많은 활동 내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의 연간 예·결산 명세를 보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수익과 비용의 총 규모는 약 20억 원 안팎에 불과한 정도이다.

산학협력단의 수입 구조를 보면 약 절반 정도는 산학협력에 의한 수입이고, 그 외 보조금 수입과 기초 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출은 산학협력에 따른 비용, 일반 관리비 및 차기 이월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의 70% 이상이 산학협력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외부 연구과제의 수탁 건수를 늘리고 평생교육원의 활성화, 학교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수입원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표 2-1-6> 산학협력단 회계-수입 및 지출(결산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결산액	비율	결산액	비율	결산액	비율
수 익	운영 수익	산학협력수익	778,758	71.0	919,304	48.2	1,091,052	42.6
		보조금수익	272,118	24.8	562,915	29.5	1,047,330	40.9
		전입 및 기부금수익	0	0.0	0	0.0	0	0.0
		운영 외 수익	299	0.03	557	0.03	564	0.02
	자산 및 부채 수익		0	0.0	61,250	3.2	0	0.0
	기초 자금		45,797	4.2	363,910	19.1	420,893	16.4
	합 계		1,096,972	100.0	1,907,936	100.0	2,559,839	100.0
비 용	운영 비용	산학협력비	1,013,520	92.4	1,420,424	74.4	2,030,186	79.3
		보조사업비	0	0.0	0	0.0	0	0.0
		일반관리비	46,643	4.3	66,619	3.5	79,009	3.1
		운영 외 비용	0	0.0	0	0.0	0	0.0
	자산 및 부채 변동		0	0.0	0	0.0	△355,310	△13.9
	기말 자금		36,809	3.4	420,893	22.1	805,954	31.5
	합 계		1,096,972	100.0	1,907,936	100.0	2,559,869	100.0

주) 각 항목별 비율은 합계에 대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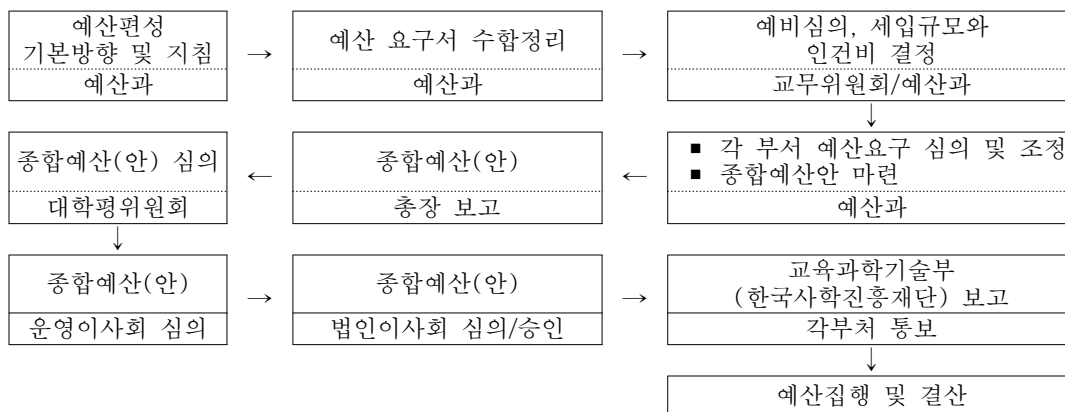


2.1.3.3 예산편성 적절성과 검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의 연간 예·결산 규모는 약 400억 원 정도로, 대학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규모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규모가 유지될 전망인데, 이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만한 항목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주어진 예산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학의 예산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편성되며, 예산과가 주무 부서이다. 우리 대학은 단기 계획보다 중·장기계획에 중점을 두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예산의 집행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구체적 예산 편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6> 우리 대학의 예산 편성 과정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고 혹시라도 부적절한 쓰임이 있지 않은지는 사후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 검증을 위해 우리 대학은 매년 정기적으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한다. 내부감사는 입시감사와 법인감사가 있는데, 전자는 입시의 공정한 관리에 대한 감사이고, 후자는 주로 회계에 대한 감사이다. 법인이사회는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회계검증을 통해 합리적 자금운용을 유도한다. 만약 부정이나 오류 등 지적사항이 나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함으로써 업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감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입학 정원 1천명 이상의 대학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회계감사이며, 감사의 결과는 공개된다. 우리 대학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내부 및 외부감사를 받음으로써 깨끗한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2.2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 영역

대학의 주체는 학생과 교수 그리고 직원이다. 따라서 이들의 역량과 역할은 곧바로 대학의 효율적 경영은 물론 미래의 성장과도 직결된다. 이 영역에서는 이들 세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였으며, 평가 대상 항목 수는 모두 28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19개 항목은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졌고,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나머지 9개 항목은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 분야는 크게 학생선발(입학 전형 및 모집요강, 기회 균형 선발 비율, 신·입학 경쟁률, 편입학 경쟁률)과 학생충원유지(신입생 충원율, 편입생 충원율, 재학생 유지율, 중도 탈락률), 학생진로(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진학률, 정규직 취업률, 취업자의 전공일치 비율), 교육비(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정량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교수 분야는 크게 교원현황(전체교원 대비 전임교원비율,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과 교수역량개발(교수학습 개발 지원 실적, 교수역량강화 교육실적)로 나누어 정량 혹은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원 분야는 크게 직원현황(업무별 직원 현황, 직원 1인당 교원 수, 직원 1인당 학생 수), 직원능력개발(직원능력 개발 지원 실적, 교직원 후생복지), 직원업적(행정 효율화·전문화 실적, 자기개발·포상 실적) 등의 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가 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간이었으며, 자료 이용이 가능한 일부 항목은 2009년의 최근 자료까지 취합하여 평가하였다. 아울러 우리 대학의 현재 위치가 국내 주변 대학과 어느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경기권에 소재하는 몇몇 대학을 선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비교 대상이 되는 대학의 선정 기준은 입학 성적, 재학생 규모, 평판도 등을 참조하였다. 즉, 우리 대학과 매년 합동 입시 설명회를 하는 4개 대학, 건학 이념이 유사하면서도 규모가 비슷한 2개 대학 등 모두 6개 대학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6개 대학의 정보는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추출하였다. 분석 자료를 비교할 때 가능하면 주관적 주장을 지양하고 객관적 서술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해당 대학의 오해가 없도록 직접 대학명을 거명하지는 않았다.



2.2.1 학생

2.2.1.1 학생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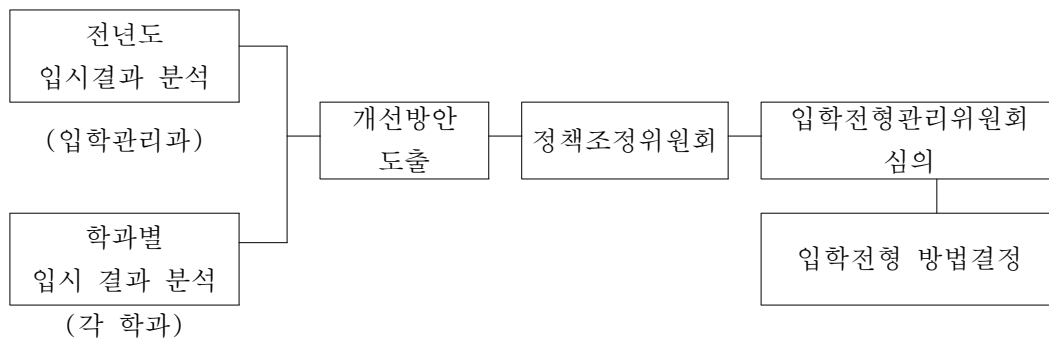
1) 입학전형, 모집요강 및 전형의 적절성

모든 대학은 자질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훌륭한 인재로 키우고자 노력한다. 왜냐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느냐가 대학의 발전과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고, 해당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수 학생의 유치는 입학전형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입학전형은 대학의 많은 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의 대학 교육정책은 대학에게 입학전형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각 대학의 입시전형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고 참신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입시 환경의 변화 때문에 대학의 입학전형 방식은 바로 해당 대학의 경쟁력으로 표출되고 있다.

우리 대학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입학전형 방법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매우 신중히 그리고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입학전형에 대한 구체적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2-2-1>과 같다.

<그림 2-2-1> 입학전형 결정 프로세스



가. 전년도의 입시결과 분석

해당 연도 신입생 모집이 종료되면 우리 대학의 입학관리과에서는 전년도 입시결과에 대해 포괄적인 분석을 추진하고, 아울러 각 학과 단위의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그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주체들은 향후의 발전방안을 논의 및 모색하게 된다.



나. 개선방안 도출

입학관리과의 자체 분석 결과와 각 학과의 건의 사항을 취합하여 입학관리과에서는 다음 연도의 전형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다. 정책조정위원회

입학관리과에서 도출한 입학전형 개선방안은 우리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게 된다. 정책조정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각 처장 및 관련 과장들로 구성된다.

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입학전형방법 개선안은 각 학과장으로 구성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상정된다.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입시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임시로 운용되는 위원회 이긴 하지만 전형방법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총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학전형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이다.

이상의 세부 내용이 현재 우리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는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결정 과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과 전문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모든 것이 결정되므로 우리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은 비교적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기회 균형 선발 및 홍보의 적절성

이 평가 항목은 우리 대학의 기회 균형 선발 및 홍보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2009학년도 입시에서 첫 시행된 기회 균형 선발제는 법정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만을 모집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선발방식이다. 저소득층 학부모의 자녀들에게 고등교육의 수혜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즉, 저소득층 학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공립대 학비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차상위 계층 학생은 무이자 학자금 대출 시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의 정원 외 선발이었던 농어촌 및 전문계고 학생 특별전형에 더해 대학 지원 시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전형을 추가한 것이다.

우리 대학의 2009학년도 수시 1차 모집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기회 균형 선발제를 실시하였다. 모집 인원은 우리 대학 편제정원 (1,080명)의 2%(21명)였으며, 전형방법은 자격심사 및 학생부 성적 100%를 기준으로 선발 하였다. 그 결과 21명 모집에 202명 지원해 9.62: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입시 홍보는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이념, 인재상, 특성화 등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험생 본인, 학부모 및 교사에게 알렸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검증된다.



즉, 우리 대학이 수행하는 입시홍보가 효과적이라면 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 우리 대학의 이미지와 선호도, 진학 희망도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입시 홍보를 평가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매체인 일간지나 입시 전문 책자 등의 광고, 홍보책자나 리플렛을 통한 홍보, 각종 입시설명회, 고교방문 등을 시의 적절하게 잘 병행하여 추진했느냐를 평가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 대학의 입시전형을 위한 홍보는 인터넷 매체, 인쇄매체, 언론매체, 입시설명회, 고교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IT(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홈페이지의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대학도 학교 홈페이지 외에 입학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인쇄매체로는 일간지 및 정기 간행물에 모집요강을 홍보하고, 별도의 리플렛, 모집요강 등을 제작하여 전국 고등학교 및 학원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홍보했다.

언론매체는 중앙일간지, 지방지 등에 총장 인터뷰 또는 학교 탐방기사 등을 게재해 홍보하고 있으며,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홍보는 각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이루어지는 입시설명회이다. 특히 경기권 4년제 5개 대학(성결대, 안양대, 평택대, 한신대, 협성대)은 매년 합동 입시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 합동설명회에서는 직접 고3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경우에 따라선 약 100개교 정도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대학 입학관리과 관계자들은 수시로 고교를 방문하여 전년도 입시분석결과를 제공하고 협조를 구한다. 고교 방문 시 경인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고교 3학년 진학부장들과의 간담회, 전년도 우리 대학 지원 우수 50개 고교 집중 홍보 등 다양한 입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의 결과 최근 3년 동안 우리 대학의 전체 경쟁률은 수도권 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2-1> 최근 3년간 입시 경쟁률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학의 입시 홍보는 매우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2-1> 최근 3년간 입시 경쟁률

구분	수시 경쟁률	정시 경쟁률
2007	16.2:1	9.5:1
2008	11.6:1	9.4:1
2009	12.1:1	—

3) 신입학 경쟁률

신입학 경쟁률은 그동안 우리 대학이 추구해 온 교육이념, 인재상, 특성화 등이 수험생, 학부모, 교사,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잘 수용되었는가 하는 하나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학생은 교육의 주체(학생, 교수, 직원) 가운데 유일하게 수요자라는 측면에서 신·입학 경쟁률의 결과는 모든 평가지표에 우선하는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 대학의 신입생 경쟁률은 아래의 <표 2-2-2>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2006년에는 ‘11.2:1’(정원 내 기준), 2007년에는 ‘15.2:1’, 2008년에도 ‘13.9:1’이었다. 상당히 높은 경쟁률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 교육목표, 발전방향 등이 수험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 대학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경기권 6개 대학의 2008학년도 신입생 경쟁률을 살펴보면 평균 경쟁률은 약 ‘10:1’이었다. 우리 대학의 신입생 경쟁률이 다른 6개 대학의 그것보다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많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경쟁률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의 높은 입시 경쟁률 유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표 2-2-2> 신입생 경쟁률

연도	모집인원(명)	지원자 수(명)	신입학 경쟁률 (정원 내 지원자 수/정원 내 모집인원)
2006	1,156(1,083)	12,727(12,091)	11.0:1(11.2:1)
2007	1,191(1,095)	17,752(16,586)	14.9:1(15.2:1)
2008	1,179(1,082)	16,116(15,015)	13.7:1(13.9:1)

주) () 안은 정원 내 수치임.

4) 편입학 경쟁률

근래 편입은 대학에 있어 제2의 입시로 불릴 만큼 그 규모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만큼 교육 수요자(재학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 대학의 편입학 경쟁률은 아래의 <표 2-2-3>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2006년에는 ‘4.4:1’(정원 내 기준)이던 것이 2007년에는 ‘4.6:1’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2008년에는 ‘3.1:1’을 기록하면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경기권 6개 대학의 2008학년도 평균 편입학 경쟁률도 ‘4.4:1’ 정도에 머물러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2-2-3> 편입학 경쟁률

연도	모집인원(명)	지원자 수(명)	편입학 경쟁률 (정원 내 지원자 수/정원 내 모집인원)
2006	132(115)	529(504)	4.0:1(4.4:1)
2007	132(116)	585(530)	4.4:1(4.6:1)
2008	179(156)	532(490)	3.0:1(3.1:1)

주) () 안은 정원 내 수치임.



2.2.1.2 학생충원 및 유지

1) 신입생 충원율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해당 대학의 그 어떤 지표보다 중요함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우리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아래의 <표 2-2-4>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2006년에는 98.6%(정원 내 기준)였던 것이 2007년에는 100.2%로 상승하였고, 2008년에도 100.6%라는 대단히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2007년 기준 경인지역 소재 공·사립대 포함 4년제 대학 38개교의 평균 충원율이 94.8%였고, 우리 대학만이 충원율 100%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놀랄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2008년에도 경인지역에 소재 모든 공·사립대 포함 4년제 대학 37개교의 평균 충원율은 95.1%였다는 점, 그리고 우리 대학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기권 6개 대학의 2008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평균이 98.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대학의 높은 충원율 유지가 일회성이 아님을 입증한 것이다.

특히 수시모집 당시 신입생 예치금 등록 현황을 보면 2008학년도 49.7%, 2009학년도 54.4%, 2010학년도 53.9% 등으로, 2009학년도 이후 50%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지방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대학이 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대학의 높은 신입생 충원율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표 2-2-4> 신입생 충원율

연도	모집인원	입학자 수	신입생 충원율(%) (정원 내 입학자 수/정원내 모집인원)
2006	1,156(1,083)	1,135(1,068)	98.2(98.6)
2007	1,191(1,095)	1,188(1,097)	99.8(100.2)
2008	1,179(1,082)	1,182(1,089)	100.3(100.6)

주) () 안은 정원 내 수치임.



2) 편입생 충원율

최근 몇 년 동안 편입으로 인한 학생들의 대거 이동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신입생 충원율과 더불어 편입생 충원율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 대학의 편입생 충원율은 아래의 <표 2-2-5>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2006년에는 92.2%(정원 내 기준)였던 것이 2007년에는 89.7%, 2008년에도 87.2%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경기권 소재 6개 대학의 편입생 충원율 평균은 83.2%였다. 결과만으로 비교한다면 우리 대학의 편입생 충원율이 결코 낮지 않지만 신입생 충원율이 100%를 상회하는 우리 대학의 현황에 비추어 본다면, 80% 전후에 머물고 있는 편입생 충원율은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표 2-2-5> 편입생 충원율

연도	모집인원	입학자 수	편입생 충원율(%) (정원 내 입학자 수/정원 내 모집인원)
2006	132(115)	112(106)	84.9(92.2)
2007	132(116)	116(104)	87.9(89.7)
2008	197(156)	143(136)	79.9(87.2)

주) () 안은 정원 내 수치임.

3) 재학생 유지율

재학생 유지율은 앞서 거론한 신입생 충원율과 더불어 학생 관련 평가지표의 가장 중요한 두 지표이다. 신입생 충원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재학생 유지율이 낮다면 이는 입학 이후의 재학생들이 학교의 교육여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학생 유지율의 저하는 학교의 대외적 위상은 물론 대내적 재정여건과 면학 분위기 함양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대학의 재학생 유지율은 아래의 <표 2-2-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6년에는 96.1%였던 것이 2007년에는 97.5%, 2008년에도 99.8%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대학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기권 소재 6개 대학의 2008년도 재학생 유지율 평균은 100.2%로 나타나 우리 대학에 비해 근소하지만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우리 대학이 재학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표 2-2-6> 재학생 유지율

연도	편제정원	재학생 수	재학생 유지율(%) (재학생 수/편제정원)
2006	4,320	4,155	96.1
2007	4,320	4,215	97.5
2008	4,320	4,315	99.8

주) 재학생 수는 매년 4월 1일 기준임.

4) 중도 탈락률

재학생 유지율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도 탈락률의 높고 낮음은 해당 대학에 대한 재학생의 교육 만족도, 학생지도, 비전, 나아가 사회의 인지도 등과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3년 간 우리 대학의 중도 탈락률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2-7>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2006년에는 5.7%였던 것이 2007년에는 7.2%, 2008년에도 7.5%로 탈락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우리 대학의 중도 탈락률 결과는 경쟁관계에 있는 수도권 몇몇 대학의 중도탈락률 5.2%와 비교하더라도 다소 높은 수치이다. 재학생들의 중도 탈락 사유가 대략 자퇴, 미복학, 미등록 등이라고 할 때 그 원인을 추적하여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표 2-2-7> 중도 탈락률

연도	재적학생 수	중도 탈락 학생 수	중도 탈락률(%) (중도 탈락학생 수/재적학생 수)
2006	5,705	328	5.7
2007	5,850	420	7.2
2008	5,879	438	7.5

주) 중도 탈락 학생수는 미등록, 미복학, 자퇴 등을 합산한 것임.



2.2.1.3 학생 진로

1) 졸업생 취업률

취업률은 기업과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해당 대학에서 얼마나 적절히 양성해 배출하였느냐를 직접 반영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취업은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성취동기의 근거가 된다. 대학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하는 것도 개인의 인격 함양과 더불어 취업을 돕고자 함이다. 이런 이유로 취업률의 정도는 신입생들이 학교와 학과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아래의 <표 2-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에는 67.8%였던 것이 2007년에는 62.8%로 하락하였다가 2008년에는 다시 64.2%로 미미하지만 상승 추이를 보였다. 최근의 불경기 여파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 대부분의 대졸자 평균 취업도 대략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2008년 기준으로 경기권 소재 6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평균이 59.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대학의 같은 해 취업률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청년의 취업이 졸업생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의 위상과 직결된다고 볼 때 우리 대학은 더욱 적극적인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표 2-2-8> 졸업생 취업률

연도	졸업생 수	졸업생 취업자 수	졸업생 취업률(%)
			취업자/{졸업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 유학생)}
2006	780	468	67.8
2007	857	497	62.8
2008	915	565	64.2

주) 졸업생 수=졸업자-(입대자+진학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

2) 졸업생 진학률

최근 3년간 우리 대학의 졸업생 진학률은 다음의 <표 2-2-9>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6년의 졸업생 진학률은 11.4%였으나 2007년에는 7.4%로 급속히 하락하였고, 2008년



에는 더욱 낮아져 3.8%를 기록하여 2006년의 3분의 1수준까지 떨어졌다. 2008년 기준 경기권 소재 6개 대학의 졸업생 진학률 평균은 6.5% 정도로 우리 대학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졸업생의 진학은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국가 경제의 호·불황, 졸업생 당사자의 학문 연마에 대한 취향 등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의 진학률 저하는 최근의 불경기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학 재학생들의 학문적 수준을 고려할 때 대학원 진학은 개인의 취업이나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대학 차원에서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2-2-9> 졸업생 진학률

연 도	졸업생 수	졸업생 진학자 수	졸업생 진학률(%) (진학자 수/졸업생 수)
2006	780	89	11.4
2007	857	63	7.4
2008	915	35	3.8

3) 정규직 취업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신입생들의 학교 선택과 사회적 평판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 가운데서도 정규직 취업률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학교 선택과 평판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 대학의 정규직 취업률은 아래의 <표 2-2-10>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6년에는 48.0%였던 것이 2007년에는 44.6%로 하락하였고, 2008년에는 더욱 떨어져 40.1%를 기록하여 2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2008년 기준 경기권 소재 6개 대학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률 평균도 37.4%에 머물러 우리 대학의 같은 해 정규직 취업률이 특별히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이 같이 낮은 정규직 취업률은 근래의 국내외 경기 불황과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및 기업의 채용방식 변화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이는 각종 경제여건과 기업의 전략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대학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표 2-2-10> 정규직 취업률

연도	졸업생 수	정규직 취업자 수	정규직 취업률(%) 정규직 취업자/(졸업자-(입대자+취업 불가능자+외국인 유학생))
2006	780	331	48.0
2007	857	353	44.6
2008	915	353	40.1

4) 취업자의 전공일치 비율

취업자의 전공일치 비율은 대학 4년 동안 자신이 축적한 지식을 취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항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08년 4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과 졸업 후 전공 관련 일자리 만족도 및 임금과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대학에서의 진로교육과 진로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케 한다.

우리 대학 취업자의 전공일치 비율은 다음의 <표 2-2-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6년 그 비율은 73.7%였으나 2007년에는 75.4%로 약간 상승하였고, 2008년에도 72.0%를 유지하였다. 2008년도 경기권 소재 6개 대학 취업자의 전공일치 비율 평균이 65.4%였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 대학 졸업 취업자의 전공일치 비율은 대체로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2-2-11> 취업자의 전공일치 비율

연도	취업자 수	전공일치 취업자 수	취업자의 전공일치 비율(%) (전공일치 취업자 수/취업자 수)
2006	468	345	73.7
2007	497	375	75.4
2008	565	407	72.0



2.2.1.4 교육비

1)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학교로부터 투자되는 각종 비용을 총괄하여 표시한 평가지표이다. 이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육 관련 제비용’이란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기타학생경비, 집기비품비,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 등의 총액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우리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다음의 <표 2-2-12>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재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06년 504천원에서 2007년 795천원으로 많이 상승하였다가 2008년에는 753천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우리 대학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기권 소재 6개 대학의 2008학년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약간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1인당 교육비의 많고 적음은 곧 교육의 질과 직결되고, 나아가 교육성과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 대학은 학생회관, 신학관, 예술대 실습관 등을 잇달아 신축하면서 건축용 비용에 대한 지출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교육관련 제비용의 증가가 여의치 못했다. 우리 대학은 아직 교육시설과 관련된 기초 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다. 즉 도서관, 이공대학 실습실, 체육관 등 몇몇 주요 시설의 신축 혹은 증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비 지출의 증가가 비교적 단기에 가시적 교육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12> 학생 1인당 교육비

연도	재학생 수	교육 관련 제비용 지출액(천원)	학생 1인당 교육비(천원) (교육 관련 제비용 지출액/재학생 수)
2006	4,715	2,374,831	504
2007	4,750	3,776,378	795
2008	4,857	3,655,556	753

주) 재학생 수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수이며, 매년 4월 1일 기준임.



2) 교육비 환원율

교육비 환원율이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대비 운영비와 기자재 및 도서 구입비 등 학교 교육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비 환원율은 각 대학의 교육에 대한 투자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다.

우리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아래의 <표 2-2-13>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교육비 환원율은 2006년 7.6%에서 2007년에는 12.0%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2008년에는 10.3%로 다소 하락하였다. 앞서 1인당 교육비의 추이와 비슷한 결과이며, 그 이유 또한 주요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교육비의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일부를 다시 학생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에서 이 비율을 높이는 것은 대학의 책무인 동시에 사회적·교육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낮은 교육비 환원율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의 자산 증가와 관련된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물의 설치에 외부로부터의 기부금,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2-2-13> 교육비 환원율

연도	등록금(천원)	교육 관련 제비용 지출액(천원)	교육비 환원율(%) (교육 관련 제비용 지출액/등록금)
2006	31,201,943	2,374,831	7.6
2007	31,460,650	3,776,378	12.0
2008	35,329,737	3,655,556	10.3

주) 교육관련 제비용=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기타학생경비+집기비품+기계기구+도서구입비



2.2.2 교수

2.2.2.1 교원 현황

1) 전임교원 비율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비율은 학생지도와 대학 교육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온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대학의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비율은 <표 2-2-14>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즉, 그 비율은 2006년 27.0%였고, 2007년에는 22.8%였으며, 2008년에는 21.3%였다. 전임교원 비율이 2006~2008년 기간에 약간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던 것이 2009년 10월 현재 26.7%를 기록하여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전임교원 비율이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전임교원 충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학은 2009년에 26명의 전임교원 충원과 2명의 복직으로 모두 28명의 전임교원이 증가하였다. 학교 당국의 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였으며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표 2-2-14>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비율

연도	전체 교원 수	전임교원 수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비율(%) (전임교원 수/전체 교원 수)
2006	423	114	27.0
2007	499	114	22.8
2008	526	112	21.3
2009	524	140	26.7

주 1) 2006~2008년은 4월 1일 기준이며, 2009년은 10월 1일 기준임.

2) 전임교원 수=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전체 교원 수=전임교원 수+비전임교원 수

2)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 교육의 질과 수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대학 평가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하였던 대학구조 개혁방안에 따르면, 2009년까지 연구중심대학은 교원 확보율 65%를 유지해야 하고, 교육



중심대학은 이 비율을 최소 61% 정도 유지하도록 제시하였다. 만약 이 기준에 미달하면 정원 감축을 포함한 각종 제재와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우리 대학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다수 전임교원을 충원하였고, 그 결과가 아래 <표 2-2-15>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편제정원 기준 2006년 47.7%, 2007년 49.1%, 2008년 47.5%, 2009년 59.1% 등이다. 교원 확보율은 편제정원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교과부가 제시한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우리 대학과 비교되는 경기권 소재 6개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전임교원의 충원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2-2-15> 교원 및 전임교원 확보율

연도	확보율(%)	
	전임교원 확보율 (편제정원 기준)	교원 확보율
2006	47.7	56.5
2007	49.1	55.6
2008	47.5	51.3
2009	59.1	66.2

주 1) 2006~2008년은 4월 1일 기준이며 2009년은 10월 1일 기준임.

2)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교과부 기준 교원 법정 정원 수, 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 겸임교원 + 초빙교원)/교원 법정 정원 수. 교원 법정 정원 수는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고려한 수치이며, 학부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학생 25명 당 교원 1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은 학생 20명 당 교원 1명으로 계산하였음.

3)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아래의 <표 2-2-1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다. 2006년에는 43.3%였던 것이 2007년에는 43.8%로 미미한 상승세를 보여주더니 2008년에는 오히려 40.2%까지 하락하였고 2009년에는 41.8%로 다시 회복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주변 대학과 비교하더라도 이 비율은 다소 낮은 편이다. 이는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비율이 낮아서 초래된 현상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임교원의 확보율을 높이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미루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16>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연도	총 개설강의 학점 수	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수/ 총 개설강의 학점 수)
2006	2958.7	1280.3	43.3
2007	3048.8	1335.1	43.8
2008	2996.0	1205.5	40.2
2009	3167.6	1324.0	41.8

주) 분반일 경우 총 학점은 학점/시간으로 계산함.

4)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재학생 수를 전임 교원 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따라서 해당 대학의 교육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이 분명하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아래의 <표 2-2-17>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연도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6년 36.4명, 2007년 37.0명, 그리고 2008년 38.5명이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08년까지 증가했다. 2009년에는 상당수의 전임교원을 충원하면서 그 비율이 많이 낮아져 30.9명이 되었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경기권 소재 6개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평균은 33.7명이었다. 같은 해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당분간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2-2-17>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연도	전임교원 수	재학생 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재학생 수/전임교원 수)
2006	114	4,155	36.4
2007	114	4,215	37.0
2008	112	4,315	38.5
2009	140	4,330	30.9

주) 매년 4월 1일 기준임. 단, 2009년은 10월 1일 기준임.



5)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최근 많은 대학에서 일고 있는 대표적인 움직임 가운데 하나가 산학(産學) 협력이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주요 내용이 산업현장에서의 인력수요를 전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의 연계는 당연한 귀결이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대학의 산업체 경력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비율은 아래 <표 2-2-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2005년 58.3%, 2006년과 2007년 100%, 그리고 2008년과 2009년 66.6%이다. 다만 이 통계는 최근 5년 동안 해당 연도에 신규 임용된 교수에 한정하여 산업체 경력 여부를 평가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 대학이 새로이 교원을 충원함에 있어서 산학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큰 의미도 전달하고 있다.

<표 2-2-18> 신규임용 전임교원 중 산업체 경력자 비율

연도	신규임용 전임교원 수	산업체 경력자 수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산업체 경력자 수/신규임용 전임교원 수)
2005	12	7	58.3
2006	1	1	100.0
2007	3	3	100.0
2008	3	2	66.6
2009	6	4	66.6
합 계	25	17	68.0

주) 2005년 4월 1일 이후 2009년 4월 1일까지 신규 임용된 교원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2.2.2.2 교수 역량개발

우리 대학은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5학년도 1학기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매체 제작과 활용법에 관한 워크숍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세미나, 전공별 교수법 세미나, e-class를 활용한 강의 지원 등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수행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지원 실적이 다음 <표 2-2-19>에 제시되어 있다.



<표 2-2-19> 교수 학습 개발 프로그램 수 및 지원 실적

구분	교수 학습 개발 프로그램 수 및 지원 실적			참여자 수 (참여자 수 / 참여대상 교원 수)
	프로그램명	실시일자	주요방법	
2006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교수법 특강	2006.4.17	특강 및 질의응답	23/114
2007	전공별 교수법 세미나: 교양교직학부 전공교수법 자유토론	2007.11.9	교양교직학부와 교직과 정 교육방법 점검, 강의 노하우에 관한 자유토론	7/7
	전공별 교수법 세미나: 사회복지 전공교수법 자유토론	2007.11.28	사회복지학과 특성에 따 른 교수법 토론, 강의정 보에 관한 자유토론	4/5
	전공별 교수법 세미나: 가구 디자인 전공교수법 자유토론	2007.12.14	전공개설과목에 대한 교 수법 토론, 강의정보에 관한 자유토론	3/3
2008	전공별 교수법 세미나: 교원양성과정의 교수법	2008.6.12	사례발표 및 자유토론	2/2
	동영상편집과 플래쉬 제작기법	2008.12.5	특강 및 질의응답	12/111
2009	전자칠판의 다양한 기능 이해와 활용	2009.3.31	특강 및 질의응답	6/111
	전공별 교수법 세미나 : 교직이론과목과 중국어 교과교육과목의 효과적인 교수방법	2009.6.11	사례발표 및 자유토론	3/3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준비한 각종 매체와 특강이 이루어진 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참여 교수들의 질의·응답을 통한 자유토론, 사례발표 등이 수행되었다. 전공별 교수법 세미나는 해당 분야의 모든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법 특강에는 20% 미만의 교수가 참여하였다. 더욱 많은 교수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우수한 사례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2.3 직원

2.2.3.1 직원 현황

1) 직원 구성

대학에서 효과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지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대학의 구성원 중 교수와 학생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행정전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고, 우수한 능력을 갖춘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도 기울였다. 더불어 기존 직원들의 능률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힘을 쏟아 최근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 정규직 및 비정규직 구성

우리 대학의 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정규직은 2009년 10월 현재 총 70명으로 일반직 48명, 기술직 10명, 기능직 9명, 기타(별정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정규직은 모두 7명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산실, 시설관리과, 운전기사, 교목실, 평생교육원 등에 배치되어 있으며 석사급 이상 전문 상담원 2명이 재학생 상담을 위하여 배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나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비율은 낮을수록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업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변동과 부침이 심한 업무를 모두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은 대학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학교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9.1% 수준의 비정규직이라면 사회적 통념상 적절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대학과 비교 대상이 되는 A, B 두 대학은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23.0%(정규직 107명, 비정규직 32명)와 16.7%(정규직 100명, 비정규직 20명)였다.

나. 정규직 직원의 직군별 분포와 전문성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학문을 전수하는 지속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당이다. 대학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행정영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직원 구성의 적절성은 담당업무의 종류와 특성에 맞게 우수한 직원을 확보하느냐와 직군별로



직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직원 구성은 우선 직군별로 지나친 편중 현상이 없으면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학 직원들의 업무 가운데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많이 존재한다. 우리 대학 직원의 직군은 일반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으로 분류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2-2-20>과 같다. 정규직 직원은 모두 70명으로 이들 제한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는 것은 대학 경영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대학의 「행정업무편람」에는 각 행정부서별 명확한 업무분장을 서술해두고 있다. 또 업무의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표 2-2-20> 정규직 직원의 직군별 분포와 전문 분야

구 분	인원	종 류
일반 행정직	48	일반 행정 및 관리
기술직	10	사서, 전산, 전기
기능직	9	건축, 운전, 전기, 난방, 통신, 기계, 사무보조, 방호원 등
별정직	3	예비군 중대장, 간호사, 교목
합 계	70	-

다. 정규직 직원의 연령별 분포

다음의 <표 2-2-21>은 우리 대학 직원의 직군별 분포와 나이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31세 이상 50세 이하의 직원이 전체의 6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간 연령의 분포가 직원 조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상적인 구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30세 이하의 직원이 11.4%를 점유하고 있어 신규 직원의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51세 이상의 직원 역시 30세 이하의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분포를 보이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지닌 직원들의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해 조직과 업무의 안정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2-21> 정규직 직원의 연령별 분포

구 분	일반사무직	기능직	계	비율(%)
1980년생 이하	8	0	8	11.4
1979~1970년생	17	3	20	28.6
1969~1960년생	23	3	26	37.1
1959년생 이상	13	3	16	22.9
합 계	61	9	70	100.0

주) 200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 직원 1인당 교원 수

우리 대학의 직원 1인당 교원 수는 아래의 <표 2-2-22>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2006년 1.61명, 2007년 1.61명, 2008년 1.62명, 2009년 1.82명 등으로 약간씩 증가했다. 이는 최근 많은 전임교원을 충원한 때문이다. 우리 대학과 경쟁관계 있는 경기권 소재 6개 대학의 직원 1인당 평균 교원 수가 1.6명이었다. 우리 대학의 비정규직 직원의 수가 비교적 적고, 다른 6개 대학의 직원 1인당 수도 비정규직까지 모두 포함해 산출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우리 대학의 직원 수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2-22> 직원 1인당 교원 수

연도	직원 수			전임교원 수	직원 1인당 교원 수 (전임교원 수/직원 수)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2006	71	69	2	114	1.61
2007	71	68	3	114	1.61
2008	69	66	3	112	1.62
2009	77	70	7	140	1.82

주) 매년 4월 1일 기준이며, 2009년은 10월 1일 기준임.



3) 직원 1인당 학생 수

우리 대학의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아래의 <표 2-2-23>에 제시되어 있다.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2006년 58.5이였으나 2007년에는 59.4명, 2008년에는 62.5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9년 현재의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56.2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9년도에 필요한 직원을 다수 충원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 기준 경기권 소재 6개 대학의 직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도 우리 대학의 그것과 비슷한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23> 직원 1인당 학생 수

연도	재학생 수	직원 수	직원 1인당 학생 수 (재학생 수/직원 수)
2006	4,155	71	58.5
2007	4,215	71	59.4
2008	4,315	69	62.5
2009	4,330	77	56.2

주) 매년 4월 1일 기준이며, 2009년은 10월 1일 기준임.

2.2.3.2 직원 능력개발과 후생복지

대부분 대학은 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교수와 학생의 능력개발 혹은 학습효과 증진에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한다. 그러나 직원의 업무능력개발이나 복지향상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 직원도 학교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앞에서 학생과 교수분야 평가를 수행하면서 우리 대학도 이 분야에 적지 않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투자는 비교적 인색한 편이다. 다음 <표 2-2-24>와 <표 2-2-25>는 우리 대학과 비교 대상이 되는 일부 대학의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실적 및 복지후생 수준을 정리한 내용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직원들이 학원 수강이나 대학원 진학을 할 때 학교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대학에서는



직원들이 해당 분야의 각종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 이외 특별한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 또한 교직원 보험을 제외하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아직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완비되지 않은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 직원의 능력개발이나 복지증진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임이 분명하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직원의 업무능력개발 또한 대학 전체의 내실과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요망된다.

<표 2-2-24> 직원능력 개발 지원 실적

구 분	협성대	A대	B대	C대	D대	E대
학원비 지원	X	학교 어학원 무료	X	학교과정 교육프로그램 100%지원 /학원비 지원 (50%) 검토	X	X
대학원 진학	X	X	대학원 진학 시 (행정전문가 과정) 80% 지원	X	X	X
출장 (교육)	협의회 기타 교육출장	연1회 협의회, 기타교육 (인사과 검토)	협의회 기타 교육출장	협의회 기타 교육출장	협의회 기타 교육출장	협의회 기타 교육출장

<표 2-2-25> 직원 복리후생

구 분	협성대	A대	B대	C대	D대	E대
콘도 (계좌)	4	5	3	1	X	4
동아리 지원	X	X	모임(10명) 년 2회 30만×2회=60만원 지급	모임(20명) 80만원~160만원 지원	X	모임 1인당 5만원 년 2회, 7개 동아리
급식비 지원	○	X	학교식당 이용시 보조금 1,000원 지원(4천원→3천원)	X	연봉제 (급식무료)	X
문화비 지원	X	X	X	부서 워크숍 지원, 1인당 6만원 지급	X	X
교직원 보험	○	○	○	○	○	○



2.2.3.3 직원 업적

1) 업적평가의 공정성과 승진 제도

우리 대학의 직원인사는 크게 신규채용과 승진·승급, 그리고 기타(포상, 징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합리적인 제도와 엄정한 운용은 직원들의 사기, 업무능률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다.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평가, 자기평가, 부서장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직원의 근무평정 방법과 평정요소는 「직원근무평정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근무평정은 크게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 등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정의 방법으로 평정자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피평정자를 평가하도록 하며, 타인의 간섭과 협의 없이 양심적이며, 공정하게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평가서의 세부 평정 요소는 창학이념 및 교육목표실천(20점), 전문지식 활용(20점), 업무처리능력(20점), 책임감 및 인화협조(20점), 품위유지(20점)로 구성된다.

근무평정의 결과는 승진과 직결된다. 우리 대학의 직원 승진은 정관에 따르며, 공정성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능력주의 원칙, 장래성의 원칙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승진 대상자 중에서 상위 직급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한다. 총무처 인사행정과는 직원 근무평정규정에서 정한 근무평정결과를 포함하여 경력 및 기타 가점을 합산하여 승진심사 대상자 인사자료를 작성한다.

승진 심사위원 및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당일 또는 전일에 임명하며, 평가는 보직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이처럼 우리 대학의 승진제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의 업무내용, 업무성취도, 업무수행능력 등을 여러모로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승진 소요연수를 고려하면서도 승진 대상자의 직급별 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등 승진제도 운영에 합리성을 부가하고 있다.

2) 직원 채용제도의 합리성

우리 대학 직원 인사에 관한 규정은 직원의 임용자격, 임면, 승진, 신분보장 및 상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과 대학의 「직원임용규정」이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리 대학의 「직원근무평정규정」에 제도화되어 있다. 아울러 직원채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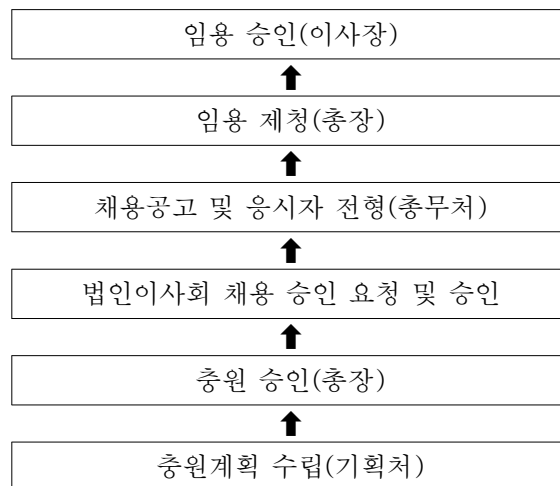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직원 채용은 「직원임용규정」을 근거로 하며, 기획처에서 인력수급계획을 확정하고, 법인에 채용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선발방법을 확정하며, 마지막으로 인사행정과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필요 인력을 충원한다.

3) 직원 채용제도의 엄정성

우리 대학의 직원 신규채용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채용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총장은 해당 처장 및 총무처장의 의견을 참조하고,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2-2-2> 직원의 신규 임용절차



일반적으로 신규 채용 시 자격 조건 및 직급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채용 시험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심사는 공정하게 처리되며, 우리 대학의 설립이념에 부합하는 기독교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구체적 채용과정을 보면 서류심사위원회 구성(서류심사) 1차 선발 → 심층면접 및 시험 → 1차 발표 → 서류심사위원회와 별도로 면접위원 선발 → 항목별 성적반영을 통한 공정한 면접 심사 → 최종발표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심사위원회로부터 적격자가 추천되면 총장의 임용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임용을 결정한다.



4) 포상실적

어느 조직에서나 포상은 직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근무평가가 평가 자체로 끝나지 않고 포상과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한 조직문화의 한 단면이다.

우리 대학은 근속상과 모범직원에 대한 포상이라는 두 종류의 포상제도를 시행한다. 근속상은 10년을 단위로 10년, 20년, 30년 등 근속할 때 그 기간을 기준으로 포상하는 제도로써, 해당 연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액이 결정되고, 아울러 30일간의 근속 휴가를 부여한다. 모범직원에 대한 포상은 근무평가우수상, 창학이념상, 협성인이 뽑은 ‘상 주고 싶은 사람 상’ 등 다양한 형태의 포상방법을 개발하여 시행 중이다. 매년 개교기념일에 모범직원에 대한 포상을 하며 해당 연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별도의 휴가는 부여되지 않는다. 우리 대학의 직원들에 대한 최근 3년간 포상실적은 다음 <표 2-2-26>의 내용과 같다.

<표 2-2-26> 직원 포상실적(단위 : 명)

구 분	근속상		공로상	포상 내용
	20년	10년		
2007	3	4	4	11명(금50돈)
2008	1	7	4	40명(금50돈)
2009	2	2	5	9명(금20돈/150만원)

주) 20년 근속상에는 금 6돈, 10년 근속상에는 금 4돈, 공로상에는 금 4돈이 포상으로 지급됨.
다만 2009년부터 공로상에 한해서 현금 30만원을 포상으로 지급함.



2.3 교육 및 사회봉사 영역

이 영역은 교육과정, 교육운영 및 사회봉사의 3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의 과정과 운영 이야말로 대학의 본연적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우리 대학에서는 많은 노력을 집중하여 이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우선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편제의 적절성을 교양과 전공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고,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우리 대학의 각종 정책을 포괄하여 살펴보았다. 교육운영 분야에서는 바람직한 교육운영을 위한 우리 대학의 노력을 강의계획서, 강의평가, 학습평가 등을 통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봉사 분야에서는 우리 대학의 사회봉사 관련 프로그램과 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3.1 교육과정

2.3.1.1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및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 등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교육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양교육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되며,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 공존을 위한 열린 사고와 적응방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전공교육은 전공별 특성에 맞추어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적절히 편제되어 있으며, 다양화되고 급변하는 현실세계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복수·부전공 및 교직과정은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분야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중심을 지향하는 대학으로서 이 분야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교육과정 편제 관련 정책

우리 대학은 4년마다 교과과정을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양과목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년마다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학칙시행세칙」 제44조). 이는 학문적 발전과 사회적 요구를 교양과정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 또는 개편을 위해 <표 2-3-1>과 같이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있다.



<표 2-3-1>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각종 위원회

구 분	위원회 종류
본부차원의 위원회	교무위원회
교양/전공/교직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과과정연구위원회, 교양과정위원회, 교양과정연구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2) 졸업 이수학점 규정

우리 대학은 학생 중심의 교과목 편성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 전공, 교양을 비롯한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2009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졸업이수학점 140학점, 교양필수 10학점, 교양선택 21학점, 전공 필수 18학점, 전공 선택 48학점으로 조정하였으며, 교과편성 자율성과 학업선택의 폭을 강화하기 위해 학과별로 90~108학점의 전공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중 단일전공자는 66학점 이수,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의 48학점 및 제2전공의 39학점 이수, 부전공자는 제1전공의 66학점 및 부전공 21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직이수자는 제1전공의 66학점 및 교직과목 29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 2-3-2> 교육과정 졸업 이수 학점 및 편성 비율 (2009학년도 기준)

구분	교양			전공			선택				졸업 학점
	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소계	복수 전공	부전공	교직	자유 선택	
학점	10	21	31	18(24)	48	66(72)	39	21	29	43	140
비율(%)	7.1	15.0	22.1	12.9	34.3	47.1	27.9	15.0	20.7	30.7	100.0

- 주 1) 학점 이수 이외 일반학과(부)의 신입생은 예배 6학기, 편입생은 예배 2학기를 Pass하여야 함.
 신학부의 신입생은 예배 8학기, 편입생은 예배 4학기를 Pass하여야 함.
 2) () 내 학점은 신학부에만 해당함.
 3) 복수전공, 부전공 및 교직이수학점은 자유선택 43학점 내에서 이수하여야 함.



3) 교육과정 편성 비율

교양과 전공별 필수와 선택의 구성비는 학과(전공)의 특성과 학생 선택권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다. 졸업이수 학점 중 교양과목 비중은 22.1%, 전공과목 비중은 47.1%이다. 또 필수과목은 20.0%, 선택과목은 49.3%, 자유선택 30.7%의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과 학문의 특수성을 고려한 필수과목과 학습자의 학문적 선택의 폭을 반영하는 선택과목의 비율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3.1.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전공분야의 학문연구에 앞서 더욱 폭넓은 교양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인 전문지식과 지성 및 창의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 믿음·사랑·봉사를 실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가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주의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참 인간으로 교육
- ② 국제적인 감각과 외국어로 무장한 세계시민으로 교육
- ③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능력을 겸비한 정보화 시민으로 교육
- ④ 전공분야의 기본 탐구력과 실력을 갖춘 전문 지성인으로 교육
- ⑤ 리더십과 자신감을 겸비한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의 교육 등이다.

1) 교양교육과정 편성비율

우리 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은 총 140학점이다. 이 중 교양교육 교과목은 교양필수 10학점, 교양선택 21학점, 합계 31학점이다. 편성 비율을 보면 교양필수 7.1%, 교양선택 15.0%로 합계 2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교양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보편적 지성인을 추구하는 대학교육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편성비율이라 할 수 있다.

2)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강화

우리 대학은 교양교육과정을 통해 올바른 인성함양을 할 수 있도록 교양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전인적 교양인의 양성을 위해 채플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교양교과목은 인간과 문화, 사회와 생활, 자연과 과학, 예술과 스포츠, 외국어와 외국문화, 진로와 취업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또 사이버 강좌를 확대해 시행하고 교과과정 이외의 분야에서도 학점 인정 과목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채플을 통하여 믿음·사랑·봉사의 생활화를 주지시키고, 자신의 삶에 대한 소중함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교양인의 모습은 지·덕·체를 겸비한 종합 교양인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표 2-3-3> 인성함양을 위한 교양선택 교과목 현황(2009학년도 기준)

구 분	교과목 명	과목수
인간과 문화	성서고고학, 성서의 이해, 기독교와 문화, 철학과 삶, 동양사상의 이해, 그리스철학, 한국사, 한국의 사상과 철학, 한국의 민속 문화, 서양의 역사와 문화, 오리엔트문명사, 현대인과 언어생활, 서양문학의 이해, 문학과 성, 문학치료, 성서지리학, 기독교세계관, 성서와 문학, 인간과 종교, 세계종교의 이해, 서양사상의 이해, 논리와 사고, 한국현대사의 이해, 동양의 역사와 문화,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 그리스신화, 동양고전의 이해, 세계문학 감상, 문학과 예술, 문학과 영화	30
사회와 생활	한국현대정치, 법과 생활, 종교와 생태학, 사회학의 이해, 세계화의 이해, NGO와 시민운동, 합리적인 소비생활, 한국경제의 이해, 개인자산관리, 매스컴과 현대사회, 인간관계훈련, 생활 속의 창의성, 여성학, 심리학의 이해, 섬기는 리더십, 남북한관계와 통일, 현대인의 성과 사랑, 리더십의 이해, 과학기술과 윤리, 현대사회와 정보, 현대사회와 복지, 성역할의 사회화, 세계경제와 무역, 현대인의 세무 상식, 미디어비평, 생활 속의 창의성, 결혼과 가정, 청년기의 심리이해, 현대인의 정신건강, 기독교와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의 이해, 미래학, 세계지리탐구, 북한사회의 이해, 현대사회와 저작권	35
자연과 과학	과학사, 자연과학개론, 수의세계, 생활 속의 통계, 지구의 탐구, 기후와 생활, 현대과학의 조류, 생명의 신비, 생명공학과 미래, 생활과 건강, 가족보건, 식생활과 다이어트, 과학사, 자연과학개론, 기후와 생활, 천체의 신비, 생활 속의 화학, 인간과 환경, 미래사회와 첨단기술, 생활과 건강, 식품과 건강, 여성과 건강, 생활원예	23



예술과 스포츠	음악과 미술의 만남, 기독교 음악의 이해, 한국미술감상, 미술이론과 감상, 디자인여행, 생활사진, 세계건축기행, 대중예술의 이해, 세계의 음식문화, 댄스스포츠1,2 호신술1,2 실내스포츠, 운동과 몸 관리, 음악감상법, 음악 위인과의 만남, 세계미술감상, 애니메이션의 이해, 생활과 실내장식, 아시아 건축기행, 영화의 이해, 의상과 복식문화, 구기스포츠, 스포츠맛사지, 레저 스포츠	26
외국어와 외국문화	생활영어회화1,2 영어강독, 스크린영어, 영어문서작성법, 토플1,2 토익1,2 기초중국어, 생활중국어, 기초일본어, 생활일본어, 비즈니스일본어, 비즈니스중국어, 기초독일어, 영국문화이해, 프랑스문화이해, 이스라엘문화이해, 라틴문화이해, 중국문화이해, 몽골문화이해, 해외어학연수1,2,3,4 생활영어회화1,2 비즈니스영어, 스크린영어, 영어문서작성법, 여행독일어, 독일문화의 이해, 미국문화의 이해, 일본문화이해, 인도문화이해, 이슬람문화이해	37
진로와 취업	컴퓨터활용, 오피스활용, 엑셀초급, 중급, 파워포인트, 홈페이지제작, 포토샵, 한문의 이해, 취업과 경력개발, 면접과 프리젠테이션, 직업윤리와 예절, 명사초청강좌, 컴퓨터활용, 인터넷활용, 엑셀 고급 파워포인트, 플래쉬, 생활한자, 경영자의 능력개발, 취업과 경력개발, 직업과 진로탐색, 창업사례분석, CEO 인물탐구, 명사초청강좌1,2, 글로벌인턴쉽1,2	27

2.3.1.3 전공교육과정 편성

우리 대학은 2009학년도 교과과정을 개편하면서 학생들의 전공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리고 각 학과의 전공교과목 개설은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학과별 전문성과 참신성, 그리고 체계적인 전공교과목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른 전공교과목 편성은 사회가 원하는 전문 지식인을 배출하기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1) 전공교육과정 편성비율의 적절성

우리 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은 총 140학점이다. 이 중 전공교육 교과목은 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48학점, 합계 66학점이다. 편성 비율을 보면 전공필수 12.9%, 전공선택 34.3%로 전체 47.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공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전문 지식인 양성을 추구하는 대학교육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편성비율이라 할 수 있다.



2) 다전공(복수, 부, 교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용

우리 대학은 2009학년도 교과과정을 개편하면서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제2전공 학점 및 부전공 학점은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하였고, 교직교과과정의 학점은 다소 확대하였다. 따라서 다전공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 선택의 폭은 과거와 같이 유지하는 동시에 교직교과과정은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부족함 없는 교과목 편성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교육중심을 지향하는 대학의 적절한 교과과정 운용이라 할 수 있다.

가. 다전공(복수, 부, 교직) 편성비율

우리 대학의 졸업이수학점 총 140학점 중 단일전공자 최저 이수학점은 66학점이다. 복수전공자의 최저 이수학점은 제1전공의 48학점 및 제2전공의 39학점이며, 부전공자의 최저 이수학점은 제1전공의 66학점 및 부전공 21학점이다. 교직이수자의 최저 이수학점은 전공 66학점과 교직 29학점이다. 편성 비율을 보면 복수전공의 제2전공은 27.9%, 부전공은 15.0%, 교직교과과정은 20.7% 등이다. 이처럼 다전공 편성 비율은 상당히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폭넓은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편성비율이라 할 수 있다.

나. 다전공(복수, 부, 교직) 학생 이수율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폭넓은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표 2-3-4>에서 보듯이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최근 3년간 평균 이수율은 각각 0.17% 및 0.63%로 다전공 편성 비율과 비교하면 이수율이 현저히 낮다. 따라서 학생들의 복수 및 부전공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학교 당국의 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선택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교직과정에 참여하는 재학생의 비율은 5.4%로 비교적 적절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표 2-3-5>는 대학별 다전공 이수 학생 수를 보여주고 있다. 부전공은 경영대학이 0.6%, 인문사회대학이 0.4%, 복수전공은 인문사회대학이 2.5%, 경영대학이 1.9%로 나타났으며, 교직과정은 예술대학이 4.7%, 신학대학이 4.3%였다.



<표 2-3-4> 최근 3년간 다전공 이수 학생수

구 분		2006 1학기	2006 2학기	2007 1학기	2007 2학기	2008 1학기	2008 2학기	합 계
전체 학생 수		4,155	3,901	4,215	3,861	4,315	3,985	24,432
부 전공	학생 수	3	1	8	3	20	7	42
	이수율(%)	0.07	0.03	0.19	0.08	0.16	0.18	0.17
복수 전공	학생 수	18	23	24	20	38	31	154
	이수율(%)	0.43	0.59	0.57	0.52	0.88	0.77	0.63
교직	학생 수	220	225	194	252	176	242	1,309
	이수율(%)	5.29	5.76	4.60	6.53	4.08	6.07	5.36
소계	학생 수	241	249	226	275	234	280	1,505
	이수율(%)	5.80	6.38	5.36	7.12	5.42	7.03	6.16

<표 2-3-5> 최근 3년간 대학별 평균 다전공 이수 학생 수

구분		경영대학	신학대학	예술대학	이공대학	인문사회 과학대학	합 계 (평균비율)
전체 학생 수		3,030	1,016	2,925	2,129	3,585	12,981
부 전공	학생 수	18	0	6	3	15	42
	이수율(%)	0.59	0.00	0.21	0.14	0.41	0.32
복수 전공	학생 수	56	0	1	1	88	146
	이수율(%)	1.85	0.00	0.03	0.05	2.5	1.1
교직	학생 수	0	44	137	0	115	296
	이수율(%)	0.00	4.33	4.68	0.00	3.20	2.28
소계	학생 수	74	44	144	4	218	484
	이수율(%)	2.44	4.33	4.92	0.18	6.08	3.72

주) 전체 학생 수는 3년간 재학생 수의 합(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이며, 부·복수전공 학생 수는 원래의 소속 단과대학이 아닌 부·복수전공을 이수한 단과대학 학생 수로 계산하였음.



2.3.1.4 교육과정 내실화

우리 대학은 교육중심 대학으로서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각 대학 해당 기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대학 본부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학과(전공)별 교수 회의를 통해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대학차원의 내실화 노력

가. 강의평가 내용의 변경 및 실시

1999학년도부터 전공과목을 포함한 전 과목에 대해 강의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강의평가 내용 중 일부 비합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08학년도부터 강의평가 내용을 수정하여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강의평가 결과는 담당교수에게 통보되며, 자신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참조하여 강의준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수행하는 교수업적평가 중 교육영역 평가에 강의평가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나. 현장학습 강화

우리 대학은 사회와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과별로 실무중심의 현장실습 교과목을 편성하여 현장학습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한다.

<표 2-3-6> 단과 대학별 주요 실무중심 교육(현장실습) 교과목 예시

구 분	실무중심 교육(현장실습) 교과목	교과목 수
경영대학	기본적으로 매년 1회 관련 기업 방문 및 현장 실습	—
신학대학	목회실습 I, II, III, IV	4
예술대학	현장실습, 워크숍, 실무실습 I, II, 실무디자인 I, II, 사진실습	7
이공대학	건축실무, 도시공간디자인, 설계스튜디오, 지역사회 및 보건교육 실습	4
인문사회대학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현장실습 I, II, 사회복지실천론	5



위 <표 2-3-6>은 단과대학별 현장실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 교과목 몇몇을 열거한 것이다. 물론 이 표에 제시된 교과목 이외에도 학과별 혹은 전공별로 다수의 실습과목이 있다. 학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교과목의 약 1/4 가량이 실습과 관련된 교과목이며, 교내 전임 교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의 전문가 혹은 산업체 겸임 교수 등이 담당한다.

다. 외부 전문가 초빙강의

각 대학 또는 학과(전공)별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양 및 전공 과목을 강의하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2-3-7>은 대학별로 외부 초빙강의 실적을 보여주는데 대학별로 매우 활발하게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09학년도부터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명사들을 초빙하여 1학기 11회, 2학기 14회에 걸쳐 ‘명사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직업을 바르게 선택하기 위한 사전정보를 축적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표 2-3-7> 외부 전문가 초빙강의 실적

구 분	초빙강의 실적 건 수					합 계
	신학대학	인문사회 과학대학	경영대학	이공대학	예술대학	
2006	11	15	7	9	10	52
2007	15	20	21	14	8	78
2008	9	18	20	21	17	85
2009	6	10	9	10	20	55
합 계	41	63	57	54	55	270

라. 해외탐방 프로그램

우리 대학은 2002학년도부터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3인을 한 팀으로 하여 30여 팀을 선정하며, 자신의 전공영역과 관련된 국가와 기업 및 사회단체에서 현장체험을 하도록 유도한다. 학기 중 해외탐방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선발된 팀은 방학중 출국하며 이들에게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한다. 탐방지역은 미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4개



지역이며, 탐방기간은 14박 15일이다. 탐방 후에는 탐방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하고, 탐방보고서를 심사하여 우수탐방팀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해외탐방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2-3-8> 최근 3년간 해외탐방 연수지원제도 실시 현황

연도	참여 팀 수 및 인원 수	지원 금액(천원)
2006	30팀, 90명	184,937
2007	30팀, 90명	190,711
2008	30팀, 90명	209,802

마. 연구년 제도 운용

우리 대학은 2000학년도부터 교수의 연구 성과와 학문발전에 이바지하고 전공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며,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수 연구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초 임용 후 6년째에 연구년을 신청하고, 그다음 해에 연구년을 보장하고 있다. 연구년 지정을 받은 후 교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구년을 연기해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연구년은 7년째 마다 12개월 연구년을 신청하고 지정받으며, 연구년 1회 사용 이후에는 3년마다 6개월씩의 연구년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연구년 실시 현황은 <표 2-3-9>와 같으며, 2008학년도에는 전체교수의 20.5%가 연구년의 혜택을 받았다.

<표 2-3-9> 연구년 제도 실시 현황

연도	전임교원 수 (명)	전임교원 연구년 실시(명)			연구년 실시 비율(%)
		12개월	6개월	합 계	
2006	114	13	3	16	14.0
2007	114	3	9	12	9.5
2008	112	8	15	23	20.5



2) 교육과정 개정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정의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과정은 시대적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교육환경의 변화는 주기적인 교육과정 개정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교육과정 개정은 그 과정과 내용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교육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리 대학의 교과과정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은

- ① 4년 단위 교과과정 전면 개편
- ② 학과차원에서 교육과정 개정
- ③ 교과과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위원회 구성
- ④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개정
- 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표 2-3-10>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기 능	구 성
교무위원회	교육과정 확정	교무위원
교육과정위원회	교육과정 검토	교무처장(위원장), 교무과장, 기타 위원 14명
교직과정위원회	교직과목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	교무처장(위원장), 교직과목 개설학과 학과장
교과/교직과정 연구위원회	·각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및 기타 중요사항 검토 및 평가 ·교육과정 기본 구조 개편안 작성	학과(전공)별 1명의 위원
교양과정위원회	교양교육 강화방안 마련, 교양교과목 교체 및 신설 검토 확정	교무처장(위원장), 교양교직 학부장, 교목실장, 위원(3인)

우리 대학은 「학칙시행세칙」 제10장(교과과정) 제44조(교과과정 개정) “교과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4년마다 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있다. 2009학년도 제9차 교과과정은 ①학부제에서 학과제로의 전환에 따른 조기 개편, ②제8차 교과과정에서의 부분 개편, ③학문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편, ④교육 수요자 중심의 산학 연계형 맞춤형 개편이라는 배경에 따라 개정되었다. 현재 우리 대학의 교과과정 개정 주기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주기라 판단된다.



<표 2-3-11> 교과과정 주기

교과과정	기 간	주요 특징
7차 교과과정	2002~2003	교양교육 이수 학점 확대
7.5차 교과과정	2004~2005	학부제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정립
8차 교과과정	2006~2008	전공필수 이수 학점 확대
9차 교과과정	2009~2012	학과제로의 전환에 따른 조기 개편

2.3.2 교육운영

교육운영은 우리 대학과 학생들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제도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를 ‘강의계획서에 의한 수업관리’, ‘강의평가’, ‘학습평가’ 등 3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2.3.2.1 강의계획서에 의한 수업 관리

1) 강의계획서 내용 및 체제

강의계획서에는 해당 강의에 대한 기본 정보, 학습 개요와 목적, 수업 진행방법, 평가 방법, 성적평가 비율, 수업 일정과 내용, 교재, 부교재 및 참고문헌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강의계획서 내용 확인만으로도 수강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학사정보시스템 운영

우리 대학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교수들이 강의계획서를 입력하고 있다. 강의계획서는 매 학기가 시작되기 이전, 그리고 학생들의 수강신청 이전에 입력기간이 담당교수들에게 통보되며, 강의계획서 입력이 모두 완료되어야 학생들이 강의계획서를 참고로 수강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학사정보시스템에 강의계획서를 입력한 현황을 보면 입력기간 이전에 입력한 평균 비율은 전임교원 72.3%, 비전임교원



54.0%, 전체 60.2%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미입력 강좌 수가 전임교원 4.9%, 비전임교원 17.3%, 전체 13.1% 등으로 나타나 강의계획서 입력 비율이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2-3-12> 최근 3년간 강의계획서 입력 현황

구 분 연 도			2006 1학기	2006 2학기	2007 1학기	2007 2학기	2008 1학기	2008 2학기	합 계
전 임 교 원	전임 교원 강좌 수		310	307	344	310	300	298	1,869
	입력 기간 이전 입력	강좌 수	168	219	240	258	233	234	1,352
		비율(%)	54.2	71.3	69.8	83.2	77.7	78.5	72.3
	입력 기간 이후 입력	강좌 수	123	88	97	29	43	45	425
		비율(%)	39.7	28.7	28.2	9.4	14.3	15.1	22.7
	미입력 강좌 수	강좌 수	19	0	7	23	24	19	92
		비율(%)	6.1	0	2.0	7.4	8.0	6.4	4.9
비 전 임 교 원	비전임 교원 강좌 수		613	596	605	585	663	628	3,690
	입력 기간 이전 입력	강좌 수	226	303	308	402	390	363	1,992
		비율(%)	36.9	50.8	50.9	68.7	58.8	57.8	54.0
	입력 기간 이후 입력	강좌 수	238	271	249	51	103	148	1,060
		비율(%)	38.8	45.5	41.2	8.7	15.5	23.6	28.7
	미입력 강좌 수	강좌 수	149	22	48	132	170	117	638
		비율(%)	24.3	3.7	7.9	22.6	25.6	18.6	17.3
합 계	총 개설 강좌 수		923	903	949	895	963	926	5,559
	입력 기간 이전 입력	강좌 수	394	522	548	660	623	597	3,344
		비율(%)	42.7	57.8	57.7	73.7	64.7	64.5	60.2
	입력 기간 이후 입력	강좌 수	361	359	346	80	146	193	1,485
		비율(%)	39.1	39.8	36.5	8.9	15.2	20.8	26.7
	미입력 강좌 수	강좌 수	168	22	55	155	194	136	730
		비율(%)	18.2	2.4	5.8	17.3	20.1	14.7	13.1



<표 2-3-13>은 최근 3년간 대학별 강의계획서 입력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입력 기간 이전 평균 비율은 경영대학 87.5%, 인문사회대학 81.0%, 교양·교직학부 77.2%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입력 강좌 수도 예술대학은 30.8%에 이르고 있다. 강의계획서 입력 지체 혹은 미입력의 원인을 찾아내어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2-3-13> 최근 3년간 대학별 평균 강의계획서 입력 현황

대 학			경영 대학	신학 대학	예술 대학	이공 대학	인문사회 과학대학	교양교 직학부	합 계 (비율)
구 분									
전 임 교 원	전임 교원 강좌 수		403	101	546	239	452	108	1,849
	입력기간 이전입력	강좌 수	358	86	284	208	385	99	1,420
		비율(%)	88.8	85.2	52	87	85.2	91.7	76.8
	입력기간 이후입력	강좌 수	31	9	183	24	60	5	312
		비율(%)	7.7	8.9	33.5	10	13.3	4.6	16.9
	미입력 강좌 수	강좌 수	14	6	79	7	7	4	117
		비율(%)	3.5	5.9	14.5	2.9	1.6	3.7	6.3
비 전 임 교 원	비전임 교원강좌 수		351	129	1648	299	549	712	3,688
	입력기간 이전입력	강좌 수	288	90	593	183	426	534	2,114
		비율(%)	82.1	69.8	36	61.2	77.6	75	57.3
	입력기간 이후입력	강좌 수	50	30	458	83	91	138	850
		비율(%)	14.3	23.3	27.8	27.8	16.6	19.4	23.1
	미입력 강좌 수	강좌 수	13	9	597	33	32	40	724
		비율(%)	3.7	7	36.2	11	5.8	5.6	17.3
합 계	총 개설 강좌 수		754	230	2,194	538	1,001	820	5,537
	입력기간 이전입력	강좌 수	646	176	877	391	811	633	3,534
		비율(%)	85.7	76.5	40.0	72.7	81	77.2	63.8
	입력기간 이후입력	강좌 수	81	39	641	107	151	143	1,162
		비율(%)	10.7	17	29.2	19.9	15.1	17.4	21
	미입력 강좌 수	강좌 수	27	15	676	40	39	44	841
		비율(%)	3.6	6.5	30.8	7.4	3.9	5.4	15.2



2.3.2.2 강의평가

강의평가는 학생들이 한 학기 수업을 마친 후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생영역 5문항, 교수영역 5문항, 수업영역 5문항, 실습·실기영역 3문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모든 교수에게 통보되며, 그 결과는 강의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한다.

1) 강의평가의 내용 및 과정

가. 강의평가 목적의 명료성

우리 대학의 강의평가는 교수의 수업 능력과 이바지도 평가,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강의평가 목적은 교수 자신의 강의 계획, 강의방법, 강의내용, 강의평가 방식 등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효과적인 강의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나. 강의평가 기준의 엄정성 및 항목의 적절성

우리 대학은 수업운영방식, 수업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자료를 교수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학기 기말고사 후에 일정기간 동안 강의평가를 하고 있다. 2008학년도부터는 합리적인 강의평가를 위해 평가내용을 수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학생·교수·수업 및 실습·실기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그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 강의평가 절차의 합리성

강의평가는 매 학기말 성적확인 직전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강의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동시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 강의 평가가 정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담당교수는 일체 강의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학생 본인이 학교 학사정보시스템에 평가결과를 직접 입력하도록 하며, 그 결과는 전산 정보실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는 담당교수, 학과장, 대학장에게 통보되어 수업능력 향상 및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라. 강의평가 결과분포 및 적절성

우리 대학 강의평가는 학생영역, 교수영역, 수업영역, 실습·실기영역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평가는 ‘전적으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등 5등급으로 구분한다. <표 2-3-14>에 제시된 최근 3년간의 강의평가 결과를 보면 전임·비전임 각각 4.0으로 ‘그렇다’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었다. 강의평가 내용이 변경된 2008학년도부터는 강의평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4.2점으로 강의평가 평균이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또 <표 2-3-15>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최근 3년간 대학별 강의평가 결과를 보면 전임교원은 신학대학 4.12점, 이공대학 4.07점, 예술대학 4.04점 순이며, 비전임교원은 예술대학 4.13점, 신학대학 4.11점, 인사대학 3.99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강의평가 결과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표 2-3-14> 최근 3년간 강의평가 결과

구 분		2006 1학기	2006 2학기	2007 1학기	2007 2학기	2008 1학기	2008 2학기	평 균
전 임 교 원	담당 과목 수	314	311	341	310	295	292	310.5
	A(4.1~5.0점)	92	108	126	156	217	220	153.1
	B(3.1~4.0점)	216	199	212	151	74	71	153.8
	C(2.1~3.0점)	6	4	3	3	3	1	3.3
	D(1.1~2.0점)	0	0	0	0	0	0	0.0
	E(0.1~1.0점)	0	0	0	0	1	0	0.2
	평균	3.89	3.9	3.92	3.98	4.21	4.21	4.0
비 전 임 교 원	담당 과목 수	606	571	585	565	647	618	598.6
	A(4.1~5.0점)	201	202	198	235	434	421	281.8
	B(3.1~4.0점)	393	358	381	318	209	189	308.0
	C(2.1~3.0점)	12	10	6	9	4	8	8.2
	D(1.1~2.0점)	0	1	0	3	0	0	0.7
	E(0.1~1.0점)	0	0	0	0	0	0	0.0
	평 균	3.91	3.92	3.93	3.93	4.19	4.2	4.0
합 계		131.9	126.5	132.8	125.5	135.1	130.6	130.4



<표 2-3-15> 최근 3년간 대학별 평균 강의평가 결과

구분		경영 대학	신학 대학	예술 대학	이공 대학	인문사회 과학대학	교양교 직학부	합 계
전 임 교 원	담당 과목 수	403	101	546	239	452	108	1849
	A(4.1~5.0점)	198	64	280	132	202	29	905
	B(3.1~4.0점)	202	32	240	105	250	79	908
	C(2.1~3.0점)	2	0	16	0	0	0	18
	D(1.1~2.0점)	0	0	0	0	0	0	0
	E(0.1~1.0점)	0	0	1	0	0	0	1
	평 균	4.01	4.12	4.04	4.07	3.99	3.83	—
비 전 임 교 원	담당 과목 수	351	129	1,648	299	549	712	3,688
	A(4.1~5.0점)	148	59	921	127	258	169	1682
	B(3.1~4.0점)	200	40	609	168	285	531	1,833
	C(2.1~3.0점)	2	0	39	0	4	4	49
	D(1.1~2.0점)	0	0	4	0	0	0	4
	E(0.1~1.0점)	0	0	0	0	0	0	0
	평 균	3.96	4.11	4.13	3.95	3.99	3.85	—
전체 평균		3.98	4.11	4.08	4.01	3.99	3.84	—

2) 강의평가 결과활용

강의평가 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처리·통보·관리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평가목적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 대학은 강의평가의 근본 목적대로 교수 자신의 수업 개선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임교원 교수업적평가에도 활용하고 있다. 강의평가 결과는 담당교수, 학과장, 대학장에게 통보하여 교수로 하여금 수업 개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임교원 승진 업적평가 시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학과장은 해당 전공 강사 선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3.2.3 학습평가

우리 대학 학습평가는 수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담당교수의 엄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학기 초 담당교수가 강의계획서에 학습평가 방법을 제시하며, 대부분 공정하게 평가된다.

1) 학습평가의 내용 및 방법

효율적인 학습평가 산출을 위하여 학습자의 성실한 수업참여도와 수업내용 인지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수업특성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수강 신청한 모든 학생은 일정수준 이상 반드시 수업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결석하면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소정 기간을 수강하고도 병역 의무 때문에 학기말 시험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교수가 학점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하되 학점 등급별 분포에 있어서 탄력성을 두고 있다. 「학칙시행세칙」(제35조)에 의한 원칙적인 성적 분포비율은 아래 <표 2-3-16>과 같다.

<표 2-3-16> 성적 분포율

구 분	A+, A	B+, B	C+, C	D+, D	F
성적 분포 비율	10~20%	20~40%	40~70%		

2) 학습평가 내용의 적절성

우리 대학은 성적 산출에 관한 「학칙시행세칙」(제8장 33조)에 의거, 담당교수는 중간고사(30%), 기말고사(40%), 출석 및 과제물(30%) 등을 종합하여 성적을 평가하도록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담당교수는 평가항목의 다양화를 위해 제시된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과제발표, 수업참여 및 이바지도, 수시 시험 등의 기준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3) 학습평가 결과의 적절성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학습평가 결과가 <표 2-3-17>에 제시되어 있다. 성적 분포율을 보면 A⁺와 A 학점은 43.6%, B⁺와 B 학점은 35.0%, C⁺와 C 학점은 12.9%, D⁺와 D 학점은 3.4%, F 학점은 4.1% 등이다. 이 결과는 「학칙시행세칙」에 제시된 원칙적 성적 분포율과 약간 차이가 있다. 즉, A 학점 이상의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비율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평가자인 교수가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선호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표 2-3-18> ~ <표 2-3-20>에는 최근 3년간의 전공, 교양 및 교직과목의 성적 분포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A 학점 이상 학습평가를 받은 학생은 각각 46.0%, 41.3%, 86.1%로 전공과목이 교양과목보다 다소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교직과목은 학생 대부분이 A 학점 이상의 학습평가 결과를 얻었다. 교직과목은 각 학과에서 상위 30% 이내의 재학생만이 수강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때문인데, 이러한 결과는 교직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보다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학습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담당 평가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선 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 시스템에서 성적분포도 비율에 맞게만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변경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표 2-3-17> 최근 3년간 성적 분포율(단위 : %)

구 분	A+	A	B+	B	C+	C	D+	D	F
2006	19.7	23.0	21.5	14.7	8.3	5.2	1.6	1.6	3.4
2007	21.7	23.2	20.2	14.0	7.8	5.0	1.7	1.6	4.2
2008	21.0	22.2	20.7	14.0	7.8	4.5	1.9	1.9	4.7
평 균	20.8	22.8	20.8	14.2	8.0	4.9	1.7	1.7	4.1



<표 2-3-18> 최근 3년간 전공과목 성적 분포 비율(단위 : 명, %)

등급	2006 1학기	2006 2학기	2007 1학기	2007 2학기	2008 1학기	2008 2학기	성적 분포 비율
A+	3,141 (19.1)	3,329 (21.6)	3,167 (19.0)	3,379 (22.5)	3,439 (20.7)	3,353 (23.2)	19,808 (20.8)
A	3,993 (24.3)	4,020 (26.1)	4,258 (25.7)	3,993 (26.6)	4,081 (24.6)	3,699 (24.3)	23,981 (25.2)
B+	3,819 (23.2)	3,374 (21.9)	3,775 (22.7)	3,280 (21.8)	3,680 (22)	3,225 (21.2)	21,153 (22.2)
B	2,584 (15.7)	2,229 (14.5)	2,473 (14.9)	2,115 (14.1)	2,355 (14.2)	2,140 (14.1)	13,896 (14.6)
C+	1,229 (7.5)	1,098 (7.1)	1,192 (7.1)	920 (6.1)	1,211 (7.3)	967 (6.4)	6,617 (6.9)
C	778 (4.7)	615 (4.0)	711 (4.2)	635 (4.2)	724 (4.4)	686 (4.5)	4,149 (4.3)
D+	308 (1.8)	199 (1.3)	248 (1.5)	201 (1.3)	313 (1.9)	228 (1.5)	1,497 (1.6)
D	255 (1.5)	199 (1.3)	249 (1.5)	168 (1.1)	269 (1.6)	174 (1.1)	1,314 (1.4)
F	349 (2.1)	325 (2.1)	548 (3.3)	335 (2.2)	521 (2.1)	551 (3.6)	2,629 (2.8)
합계(명)	16,456	15,388	16,648	15,026	16,593	15,205	95,316

<표 2-3-19> 최근 3년간 교양과목 성적 분포 비율(단위 : 명, %)

등급	2006 1학기	2006 2학기	2007 1학기	2007 2학기	2008 1학기	2008 2학기	성적 분포 비율
A+	2,052 (19.0)	1,941 (20.0)	2,368 (20.8)	2,412 (24.1)	2,492 (20.3)	2,207 (20.2)	13,472 (20.7)
A	2,289 (21.1)	2,066 (21.3)	2,279 (20.0)	2,248 (22.5)	2,554 (20.8)	1,980 (18.1)	13,416 (20.6)
B+	2,234 (20.6)	1,986 (20.5)	2,153 (18.9)	1,758 (17.6)	2,398 (19.5)	2,177 (19.9)	12,706 (19.5)
B	1,622 (15.0)	1,355 (14.0)	1,684 (14.8)	1,212 (12.1)	1,678 (13.6)	1,500 (13.7)	9,051 (13.9)



C+	1,036 (9.6)	904 (9.3)	1,096 (9.6)	862 (8.6)	1,068 (8.7)	1,017 (9.0)	5,983 (9.2)
C	684 (6.3)	561 (5.8)	654 (5.7)	589 (6.0)	698 (5.7)	810 (7.4)	3,996 (6.1)
D+	243 (2.2)	196 (2.0)	231 (2.0)	204 (2.0)	254 (2.1)	266 (2.4)	1,394 (2.1)
D	200 (1.8)	200 (2.1)	278 (2.4)	156 (1.6)	321 (2.6)	279 (2.6)	1,434 (2.2)
F	467 (4.3)	498 (5.1)	643 (5.6)	573 (5.7)	841 (6.8)	695 (6.4)	3,717 (5.7)
합계(명)	10,827	9,707	11,386	10,009	12,304	10,931	65,164

<표 2-3-20> 최근 3년간 교직과목 성적 분포 비율(단위 : 명, %)

등급	2006 1학기	2006 2학기	2007 1학기	2007 2학기	2008 1학기	2008 2학기	성적 분포 비율
A+	138 (62.7)	105 (20.5)	149 (76.8)	174 (69.0)	143 (81.3)	153 (63.2)	862 (65.9)
A	45 (20.5)	60 (26.7)	36 (18.6)	61 (24.2)	17 (9.7)	47 (19.4)	266 (20.3)
B+	23 (10.5)	37 (16.4)	8 (4.1)	12 (4.8)	9 (5.1)	17 (7.0)	106 (8.1)
B	9 (4.1)	18 (8.0)	0 (0.0)	2 (0.8)	5 (3.0)	11 (4.5)	45 (3.4)
C+	2 (1.0)	2 (1.0)	0 (0.0)	0 (0.0)	1 (0.6)	7 (3.0)	12 (0.9)
C	2 (1.0)	3 (1.3)	0 (0.0)	2 (0.8)	0 (0.0)	1 (0.4)	8 (0.6)
D+	0 (0.0)	0 (0.0)	0 (0.0)	0 (0.0)	1 (0.6)	2 (0.8)	3 (0.2)
D	1 (0.5)	0 (0.0)	0 (0.0)	1 (0.4)	0 (0.0)	3 (1.2)	5 (0.4)
F	0 (0.0)	0 (0.0)	1 (0.5)	0 (0.0)	0 (0.0)	1 (0.4)	2 (0.2)
합계(명)	220	225	194	252	176	242	1,309



2.3.3 사회봉사

2.3.3.1 사회봉사 프로그램

대학의 3대 기능은 교육, 연구, 봉사이다. 이 중 봉사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 대학은 교수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는 교무과, 학생복지과, 교목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2-3-21>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 체계

구 분	업 무 내 용
학생복지과	자원봉사동아리 지원, 사회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해외자원봉사자 선발 및 파견, 사회봉사자 모집 및 관리, 기타 봉사관련 업무 기획
교목실	해외선교 봉사활동 및 지역 사회 봉사 활동 추진
교무과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등

1) 사회봉사 프로그램

가.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는 ‘실천하는 신앙인’, ‘봉사하는 지도자’, ‘능력 있는 전문인’이다. 이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실천하는 신앙인’을 길러 내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믿음·사랑·봉사의 교훈 아래 봉사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기적인 삶의 추구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분명히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회봉사라는 형태로 실천하고자 한다.

우리 대학은 ‘사회봉사’ 교양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론과 실습으로 1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각종 동아리의 사회봉사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봉사를



생활화하도록 하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반영하도록 여러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그 내용 또한 그 목적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우리 대학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학생복지과 및 교목실에서 운영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관심과 예산 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학과별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술대학 가구디자인학과와 예를 들어보면 전체 재학생들이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화성시 보건소와 공동으로 ‘장애아동 학습 환경 만들어주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그 내용이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소개되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대학 당국이 사회봉사활동 수료증을 발급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각 단과대학 혹은 학과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3-22>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실적

구분	학생복지과	교무과
2008	태안 기름유출 봉사(80명)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단체 헌혈(63명)	
2009	이공대학 농활 봉사(러시아 1명)	

<표 2-3-23> 최근 우리 대학의 학생 사회봉사활동 수료증서 발급 실적

구분	2008	2009	계
봉사활동 수료증 발급 횟수	120	124	244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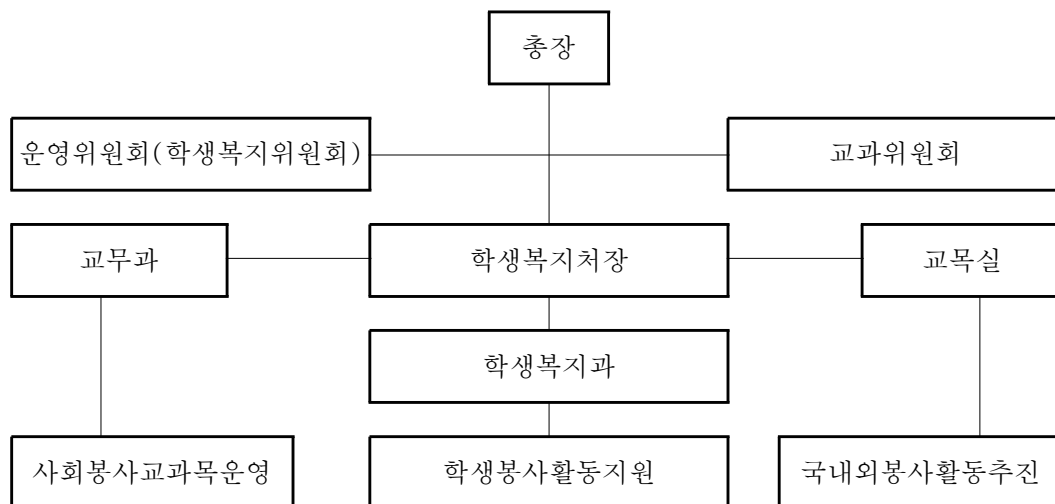
가. 사회봉사 활동 지원 관련 규정

우리 대학의 학생 봉사활동을 위한 지원 관련 규정으로는 「학칙시행세칙」 가운데 ‘사회와 봉사활동 운영규정’이 있으며, 교수 봉사활동은 ‘교수업적 평가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는 사회봉사 목적, 사회봉사 영역의 범위 및 사회봉사 기관의 선정 기준, 학생 봉사활동 지도 및 운영방안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나. 사회봉사 활동 지원 조직

우리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은 주로 학생복지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무과와 교목실에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각 업무내용은 아래 <그림 2-3-1>과 앞의 <표 2-3-21>에 나타나 있다. 우리 대학은 더욱 효율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체제를 다듬는 중이다. 아직 조직이나 업무 내용이 다소 미흡하지만 차츰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니 추후 바람직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3-1> 사회봉사 지원 조직도





우리 대학의 사회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은 2개 부서에서 6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전담이 아닌 겸직 직원들이다. 지원예산은 연간 2008년의 경우 약 4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지원부서 및 인력 그리고 예산 규모가 아주 초라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2.3.3.2 전임교원의 사회봉사 활동

교수는 국가 장래를 이끌고 나아갈 인재들을 육성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따라서 숭선수범하여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바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러한 교수의 사회봉사활동은 교육적 차원에서도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대학은 교수가 사회봉사활동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장려하고 있다. ‘교수업적 평가규정’에서는 교수의 교내봉사와 교외봉사를 업적평가 규정 가운데 ‘봉사영역부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것을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 교수들은 다양한 기관과 방법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표 2-3-24>에서 보듯이 우리 대학 교수들의 교외 학술단체 임원 및 공공기관 위원 활동 참여율을 보면 2006학년도는 48.2%, 2007학년도는 54.5%, 2008학년도는 56.8% 등이었다. 우리 대학 교수들의 최근 3년간 대외 봉사활동 평균 참여율은 53.1%로 전체 교수 가운데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대외봉사활동을 하였다. 1인의 교수가 복수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모두 한 건의 실적으로만 계산하였고, 비공식 분야에 대한 봉사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회봉사 참여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봉사 분야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 2-3-24> 최근 3년간 전임교원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율

년도	전임교원 수 (명)	사회봉사 활동 참여 전임교원 수 (명)	전임교원 사회봉사 활동 참여 비율(%)
2006	114	55	48.2
2007	112	61	54.5
2008	111	63	56.8

주) ‘전임교원의 사회봉사’란 교수의 사회봉사활동으로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역사회, 각종 협회의 등의 자문 활동, 학술 단체 임원이나 편집위원으로 참가한 경우를 의미함.

2.3.3.3 재학생의 사회봉사 활동

우리 대학의 재학생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농촌 봉사활동, 적십자 헌혈, 학과 봉사활동 등이 주요 대상이다.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의 개인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교양필수 1학점으로 환산해 주고 있다. 봉사활동을 통한 학점 취득제도는 개인의 봉사활동의 장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봉사활동 방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 대학 재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현실적인 통계자료 미흡으로 참여율을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2009학년도부터 정확한 통계자료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참여율도 더욱 높이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 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대학의 학생복지과에서는 2009년 10월 사회봉사자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본적인 봉사소양과 행정지원체계를 학습했다. 2010년부터는 “협성사회봉사단(가칭)”을 학생복지처 주관으로 설립하여, 인간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봉사와 해외봉사 등 사회봉사분야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할 계획이다.

2.4 연구 및 산학협력 영역

국내외의 모든 대학 평가기관이 대학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 중의 하나로 교원의 연구 성과를 제시한다. 이는 교원의 연구 성과가 해당 대학의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우리 대학은 비록 연구중심대학이 아니고 교육중심대학이긴 하나 교원의 연구실적을 중시해 왔다. 교원의 연구실적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중 연구영역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심사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교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도 2008년 ‘교원업적 평가 개정’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종전보다 강화된 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구는 교육과 봉사 등과 함께 대학이 수행하는 3대 역할 중의 하나이다. 대학에서 연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학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켜 나아갈 것이다. 연구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발표된 학술논문과 저서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수와 질이다.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 스스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 체제 및 환경을 최대한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연구 논문 게재실적과 연구비 수주액 및 교내 연구기금, 교내 부설연구소의 활동실적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실적의 평가를 통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산학연 활성화 방안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 영역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첫째는 우리 대학 교원의 연구성과와 관련된 분야이고, 둘째는 산학협력에 대한 평가이다. 우선 교원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는 우리 대학 전임교원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실적, 발표 논문 수, 저서 수 실적 현황을 파악하고, 단과대학별 교원업적평가 결과 및 최근 3년간 증가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내 연구지원에 대한 평가는 수준 높은 교수 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내 연구 지원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산학협력에 대한 평가는 산업체 연계 교육 프로그램, 특허와 기술이전 등의 산업재산권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산학협력 실적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2.4.1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우리 대학의 이번 자체평가에서 교원의 연구 성과는 논문, 학술대회 발표, 저·역서 발간 등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실적평가의 기간은 2006.3.1~2009.2.28일까지의 3년간이었으며, 평가 시 각종 지표의 개념, 계산방법 등은 주로 대학교육협회의 평가기준을 활용하였다(부표 참조). 교원 수는 협성대학교 현황 자료 중의 교원 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규 채용 혹은 교수 퇴임이 있었고, 교과부 보고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연구 실적은 국내학술지 게재와 국제학술지 게재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국내의 연구실적은 국내 저명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와 국내 일반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제외)로 구분하였고, 국제학술지는 국제 저명학술지(이공계-SCI, SCIE, 사회과학-SSCI, 인문-A&HCI)와 국제 일반학술지(국제저명학술지 제외)로 구분하였다. 다만 예술대학의 연구실적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평가지표를 구하기가 어려워 우리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국내외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2.4.1.1 국내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수

<표 2-4-1>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전임교수 1인당 국내 저명학술지 게재 실적은 대학 전체로서는 총 345명의 교수가 174.5편을 게재하여, 전임교수 1인당 평균 0.51편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실적과 견주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중심대학인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저명학술지 교수 1인당 평균 논문 수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신학대학 0.71편, 인문사회과학대학 0.61편, 경영대학 0.46편, 이공대학 0.32편, 예술대학 0.35편이고, 교양교직학부 0.75편으로 나타났다.



<표 2-4-1> 국내 저명학술지 연구실적 및 1인당 논문 수

연도	전체 전임교원	논문 수	1인당 논문 수 (논문 수/전체 전임교원 수)
2006	114	48.8	0.43
2007	112	57.3	0.51
2008	119	68.4	0.59

<표 2-4-2> 국내 저명학술지 연구실적 증가율

연도	연구실적 증가율(%) (당해연도 연구실적-전년도 연구실적)/전년도 연구실적
2006~2007	17.30
2007~2008	19.28
2006~2008	39.95

2.4.1.2 국내 일반학술지 게재 논문 수

<표 2-4-3>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전임교수 1인당 국내 일반학술지 게재 실적은 대학 전체로서는 총 345명의 교수가 130.7편을 게재하여, 전임교수 1인당 평균 0.38편을 보이고 있어 약간 낮은 정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일반학술지 교수 1인당 평균 논문 수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신학대학 0.74편, 인문사회과학대학 0.46편, 경영대학 0.41편, 이공대학 0.59편, 예술대학 0.04편이고, 교양교직학부 0.16편이다.

<표 2-4-3> 국내 일반학술지 연구실적 및 1인당 논문 수

연도	전체 전임교원	논문 수	1인당 논문 수 (논문 수/전체 전임교원 수)
2006	114	38.3	0.34
2007	112	53.0	0.47
2008	119	39.5	0.33



<표 2-4-4> 국내 일반학술지 연구실적 증가율

연도	연구실적 증가율(%) (당해연도 연구실적-전년도 연구실적)/전년도 연구실적
2006~2007	38.51
2007~2008	-25.52
2006~2008	3.16

2.4.1.3 국제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수

<표 2-4-5>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전임교수 1인당 국제 저명학술지 게재 실적은 대학전체로서는 총 345명의 교수가 9.01편을 게재하여, 전임교수 1인당 평균 0.03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대학의 특성상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의 질적 개선보다는 먼저 양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제 저명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현행보다 개선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구실적 우수교원에 대하여 포상하는 등의 특별한 동기부여가 요구된다.

<표 2-4-5> 국제 저명학술지 연구실적 및 1인당 논문 수

연도	전체 전임교원	논문 수	1인당 논문 수 (논문 수/전체 전임교원 수)
2006	114	2.2	0.02
2007	112	3.8	0.03
2008	119	3.0	0.03

2.4.1.4 국제 일반학술지 게재 논문 수

<표 2-4-6>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전임교수 1인당 국제 일반학술지 게재 실적은 대학전체로서는 총 345명의 교수가 10.4편을 게재하여, 국제 저명학술지와 마찬가지로 전임교수 1인당 평균 0.03편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그 증가율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실적이 매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6> 국제 일반학술지 연구실적 및 1인당 논문 수

연도	전체 전임교원	논문 수	1인당 논문 수 (논문 수/전체 전임교원 수)
2006	114	1.0	0.08
2007	112	3.3	0.03
2008	119	6.1	0.05

2.4.1.5 국내 학술대회 게재 논문 수

<표 2-4-7>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전임교수 1인당 국내학술대회 게재 실적은 대학 전체로서는 총 345명의 교수가 66.85편을 게재하여, 전임교수 1인당 평균 0.2편을 보이고 있어 약간 낮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내학술대회 교수 1인당 평균 발표논문 수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신학대학 0.36편, 인문사회과학대학 0.16편, 경영대학 0.26편, 이공대학 0.29편, 예술대학 0.06편이고, 교양교직학부 0.21편으로 나타났다.

<표 2-4-7> 국내 학술대회 발표실적 및 1인당 논문 수

연도	전체 전임교원	논문 수	1인당 논문 수 (논문 수/전체 전임교원 수)
2006	114	17.3	0.15
2007	112	25.0	0.22
2008	119	26.6	0.22

<표 2-4-8> 국내 학술대회 발표실적 증가율

연도	증가율(%) (당해연도 연구실적-전년도 연구실적)/전년도 연구실적
2006~2007	44.84
2007~2008	6.36
2006~2008	54.06



2.4.1.6 국제 학술대회 게재 논문 수

<표 2-4-9>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전임교수 1인당 국제학술대회 게재 실적은 대학 전체로서는 총 345명의 교수가 41.3편을 게재하여, 전임교수 1인당 평균 0.12편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제학술대회 교수 1인당 평균 발표논문 수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신학대학 0.14편, 인문사회과학대학 0.02편, 경영대학 0.16편, 이공대학 0.25편, 예술대학 0.12편이고, 교양교직학부 0.05편이다.

<표 2-4-9> 국제 학술대회 발표실적 및 1인당 논문 수

연도	전체 전임교원	논문 수	1인당 논문 수 (논문 수/전체 전임교원 수)
2006	114	10.3	0.09
2007	112	12.2	0.11
2008	119	18.8	0.16

2.4.2 저서·역서 실적

<표 2-4-10>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전임교수 1인당 저서 발간 실적은 대학 전체로는 3년간 총 345명의 교수가 65편을 발간하였고, 교수 1인당 0.2편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저서 발간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75.6%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지원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4-10> 저서 실적 및 1인당 저서 수

연도	전체 전임교원	저서 수	1인당 저서 수 (저서 수/전체 전임교원 수)
2006	114	16.0	0.14
2007	112	20.8	0.19
2008	119	28.2	0.24



<표 2-4-11> 최근 3년간 저·역서 증가율

연도	저·역서 증가율(%) (당해연도 연구실적-전년도 연구실적)/전년도 연구실적
2006~2007	29.82
2007~2008	35.27
2006~2008	75.61

2.4.3 연구비 수혜 실적

2.4.3.1 교내 연구비 수혜 실적

<표 2-4-12>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전임교수 교내 연구비 수혜실적은 대학 전체로서 총 345명의 교수가 402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전임교수 1인당 평균 1.17건이다. 그리고 교내연구비 1인당 평균 수혜액은 2,03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실적도 매년 향상되었다.

<표 2-4-12> 교내 연구비 수혜 실적

연도	전체 전임교원 (명)	과제 수 (건)	연구비 (천원)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연구비/전체 전임교원 수, 천원)
2006	114	103	168,200	1,475
2007	112	140	257,200	2,296
2008	119	159	276,675	2,325

2.4.3.2 교외 연구비 수혜 실적

<표 2-4-13>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전임교수 교외 연구비 수혜실적은 대학전체로서 총 345명의 교수가 113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전임교수 1인당 평균 0.33건이다. 그리고 교외연구비 1인당 평균 수혜액은 12,47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교외 연구비 수혜실적 증가율은 28.0%로 나타났다.



<표 2-4-13> 교외 연구비 수혜 실적

연도	전체 전임교원 (명)	과제 수 (건)	연구비 (천원)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연구비/전체 전임교원 수, 천원)
2006	114	29	1,413,800	12,401
2007	112	41	1,081,500	9,656
2008	119	43	1,809,664	15,207

2.4.4 산학연 인적 교류

우리 대학은 대학의 내실화를 기하고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산학연 인적 교류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최근 3년간의 구체적 실적을 보면 산학연 협정체결 또는 자매결연 등이 총 46건이었으며, 총 교류 수는 106명의 교수와 1,653명의 학생 등 총 1,759명으로 나타났다.

산학연 인적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산업체와의 연계교육을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역사가 짧고 아직 산학연 공동 연구가 부진한 실정이라 이러한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학교 당국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다. 우리 대학의 특허 등록 건수는 2007년 1건, 2008년 2건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개선 방안으로 현재 교내 연구비 인센티브 외에 특허 출원 등록비를 지원하고, 개인명의 특허 등록을 학교 명의로 변경 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표 2-4-14> 산학연 인적 교류 실적

연 도	건 수	교류 인원 수(명)	
		교 수	학 생
2006	11	19	378
2007	16	31	574
2008	19	56	701



<부 표> 연구 및 산학협력 영역

<부표 2-4-1> 단과대학별 국내 저명학술지 연구실적 및 1인당 논문 수

연도	계 열	교원 수	논문 수	1인당 논문 수
2006	신학대학	13	7.00	0.54
	인문사회과학대학	28	12.58	0.45
	경영대학	23	10.58	0.46
	이공대학	14	2.45	0.18
	예술대학	27	9.33	0.35
	교양교직학부	9	6.90	0.77
	합 계	114	48.84	0.43
2007	신학대학	13	9.00	0.69
	인문사회과학대학	29	22.50	0.78
	경영대학	21	8.48	0.40
	이공대학	14	2.40	0.17
	예술대학	27	8.67	0.32
	교양교직학부	8	6.25	0.78
	합 계	112	57.30	0.51
2008	신학대학	16	14.00	0.88
	인문사회과학대학	29	17.33	0.60
	경영대학	21	10.83	0.52
	이공대학	17	9.69	0.57
	예술대학	28	10.92	0.39
	교양교직학부	8	5.58	0.70
	합 계	119	68.35	0.59

주 1) 교원 수는 2009년 3월 1일 전임 교원 기준임

2) 국내저명학술지는 전임교원이 2006. 3. 1 ~ 2009. 2. 28 기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또는 후보지 학술지(국내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 제외)에 기재한 논문 수입

3) 논문게재 실적은 산정 기준은 단독저자인 경우 실적은 1건이며,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 교신일 경우 $\{1/(n^*+1)\} \times 2$, 교신 또는 참여저자인 경우 $\{1/(n^*+1)\}$ 임



<부표 2-4-2> 단과대학별 국내 일반학술지 연구실적 및 1인당 논문 수

연도	계 열	교원 수	논문 수	1인당 논문 수
2006	신학대학	13	9.00	0.69
	인문사회과학대학	28	12.06	0.43
	경영대학	23	8.67	0.38
	이공대학	14	6.52	0.47
	예술대학	27	1.00	0.04
	교양교직학부	9	1.00	0.11
	합 계	114	38.25	0.34
2007	신학대학	13	13.00	1.00
	인문사회과학대학	29	19.25	0.66
	경영대학	21	11.34	0.54
	이공대학	14	7.39	0.53
	예술대학	27	1.00	0.04
	교양교직학부	8	1.00	0.13
	합 계	112	52.98	0.47
2008	신학대학	16	9.00	0.56
	인문사회과학대학	29	7.96	0.27
	경영대학	21	6.67	0.32
	이공대학	17	12.83	0.75
	예술대학	28	1.00	0.04
	교양교직학부	8	2.00	0.25
	합 계	119	39.46	0.33

주 1) 교원 수는 2009년 3월 1일 전임 교원 기준임

2) 전임교원이 2008. 3. 1 ~ 2009. 2. 28 기간에 국내발간 학술지(한국 학술진흥재단 후보지 및 등재지 제외)에 게재한 논문 수

3) 논문게재 실적은 산정 기준은 단독저자인 경우 실적은 1건이며,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 교신일 경우 $\{1/(n^*+1)\} \times 2$, 교신 또는 참여저자인 경우 $\{1/(n^*+1)\}$ 임



<부표 2-4-3> 단과대학별 국내 저명학술지 연구실적 증가율(단위 : %)

계 열	2006~2007	2007~2008	2006~2008
신학대학	28.60	55.56	100.00
인문사회과학대학	78.90	-23.00	37.76
경영대학	-20.00	27.71	2.36
이공대학	-2.00	303.80	296.51
예술대학	-7.10	25.95	17.04
교양교직학부	-9.40	-10.70	-19.13
합 계	17.30	19.28	39.95

주) 연구실적 증가율은 {(기준연도 연구실적-전년도 연구실적)/전년도 연구실적}×100%로 계산하였음

<부표 2-4-4> 단과대학별 국내 일반학술지 연구실적 증가율(단위 : %)

계 열	2006~2007	2007~2008	2006~2008
신학대학	44.44	-30.77	0.00
인문사회과학대학	59.62	-58.65	-34.00
경영대학	30.80	-41.18	-23.07
이공대학	13.34	73.61	96.78
예술대학	0.00	0.00	0.00
교양교직학부	0.00	100.00	100.00
합 계	38.51	-25.52	3.16

주) 연구실적 증가율은 {(기준연도 연구실적-전년도 연구실적)/전년도 연구실적}×100%로 계산하였음



<부표 2-4-5> 단과대학별 국제 저명학술지 연구실적 및 1인당 논문 수

연도	계 열	교원 수	논문 수	1인당 논문 수
2006	신학대학	13	0.00	0.00
	인문사회과학대학	28	0.00	0.00
	경영대학	23	1.20	0.05
	이공대학	14	0.00	0.18
	예술대학	27	1.00	0.04
	교양교직학부	9	0.00	0.00
	합 계	114	2.20	0.02
2007	신학대학	13	1.00	0.08
	인문사회과학대학	29	0.33	0.01
	경영대학	21	1.25	0.06
	이공대학	14	0.25	0.02
	예술대학	27	1.00	0.04
	교양교직학부	8	0.00	0.00
	합 계	112	3.83	0.03
2008	신학대학	16	1.00	0.06
	인문사회과학대학	29	0.00	0.00
	경영대학	21	0.00	0.00
	이공대학	17	0.98	0.06
	예술대학	28	1.00	0.04
	교양교직학부	8	0.00	0.00
	합 계	119	2.98	0.03

주 1) 교원 수는 2009년 3월 1일 전임 교원 기준임

2) 전임교원이 2006. 3. 1 ~ 2009. 2. 28 기간에 SCI급(사회과학-SSCI, 인문-A&HCI, 이공계-SCI, SCIE 등)에 게재된 논문 수, 국내에서 발행되는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포함.

3) 논문게재 실적은 산정 기준은 단독저자인 경우 실적은 1건이며,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 교신일 경우 $\{1/(n^*+1)\} \times 2$, 교신 또는 참여저자인 경우 $\{1/(n^*+1)\}$ 임



<부표 2-4-6> 단과대학별 국제 일반학술지 연구실적 및 1인당 논문 수

연도	계 열	교원 수	논문 수	1인당 논문 수
2006	신학대학	13	0.00	0.00
	인문사회과학대학	28	0.00	0.00
	경영대학	23	1.00	0.04
	이공대학	14	0.00	0.00
	예술대학	27	0.00	0.00
	교양교직학부	9	0.00	0.00
	합 계	114	1.00	0.01
2007	신학대학	13	1.00	0.08
	인문사회과학대학	29	0.00	0.00
	경영대학	21	1.33	0.06
	이공대학	14	1.00	0.07
	예술대학	27	0.00	0.00
	교양교직학부	8	0.00	0.00
	합 계	112	3.33	0.03
2008	신학대학	16	0.00	0.00
	인문사회과학대학	29	0.00	0.00
	경영대학	21	3.00	0.14
	이공대학	17	3.07	0.18
	예술대학	28	0.00	0.00
	교양교직학부	8	0.00	0.00
	합 계	119	6.07	0.05

주 1) 교원 수는 2009년 3월 1일 전임 교원 기준임

2) 전임교원이 2006. 3. 1 ~ 2009. 2. 28 기간에 국제발간학술지(SCI급 제외)에 게재한 논문 수 (국제일반논문 발표 포함)

3) 논문게재 실적은 산정 기준은 단독저자인 경우 실적은 1건이며,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 교신일 경우 $\{1/(n^*+1)\} \times 2$, 교신 또는 참여저자인 경우 $\{1/(n^*+1)\}$ 임



<부표 2-4-7> 단과대학별 국내 학술대회 연구실적 및 1인당 논문 수

연도	계 열	교원 수	논문 수	1인당 논문 수
2006	신학대학	13	4.00	0.31
	인문사회과학대학	28	3.00	0.11
	경영대학	23	6.59	0.29
	이공대학	14	1.67	0.12
	예술대학	27	1.00	0.04
	교양교직학부	9	1.00	0.11
	합 계	114	17.26	0.15
2007	신학대학	13	4.00	0.31
	인문사회과학대학	29	5.00	0.17
	경영대학	21	3.50	0.17
	이공대학	14	6.58	0.47
	예술대학	27	3.67	0.14
	교양교직학부	8	2.25	0.28
	합 계	112	25.00	0.22
2008	신학대학	16	7.00	0.44
	인문사회과학대학	29	6.00	0.21
	경영대학	21	6.92	0.33
	이공대학	17	4.67	0.27
	예술대학	28	0.00	0.00
	교양교직학부	8	2.00	0.25
	합 계	119	26.59	0.22

주 1) 교원 수는 2009년 3월 1일 전임 교원 기준임

2) 전임교원이 2006. 3. 1 ~ 2009. 2. 28 기간에 게재한 발표 논문 수.

3) 논문게재 실적은 산정 기준은 단독저자인 경우 실적은 1건이며,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 교신일 경우 $\{1/(n^*+1)\} \times 2$, 교신 또는 참여저자인 경우 $\{1/(n^*+1)\}$ 임



<부표 2-4-8> 단과대학별 국내 학술대회 연구실적 증가율(단위: %)

계 열	2006~2007	2007~2008	2006~2008
신학대학	0.00	75.00	75.00
인문사회과학대학	66.67	20.00	100.00
경영대학	-46.89	97.71	5.01
이공대학	294.01	-29.03	179.64
예술대학	267.00	-100.00	-100.00
교양교직학부	125.00	-11.11	100.00
합 계	44.84	6.36	54.06

주) 연구실적 증가율은 $\{(\text{기준연도 연구실적} - \text{전년도 연구실적}) / \text{전년도 연구실적}\} \times 100\%$ 로 계산하였음



<부표 2-4-9> 단과대학별 국제 학술대회 발표실적 및 1인당 논문 수

연도	계 열	교원 수	논문 수	1인당 논문 수
2006	신학대학	13	2.00	0.15
	인문사회과학대학	28	1.00	0.04
	경영대학	23	2.33	0.10
	이공대학	14	0.92	0.07
	예술대학	27	4.00	0.15
	교양교직학부	9	0.00	0.00
	합 계	114	10.25	0.09
2007	신학대학	13	2.00	0.15
	인문사회과학대학	29	0.00	0.00
	경영대학	21	3.00	0.14
	이공대학	14	4.20	0.30
	예술대학	27	3.00	0.11
	교양교직학부	8	0.00	0.00
	합 계	112	12.20	0.11
2008	신학대학	16	2.00	0.13
	인문사회과학대학	29	1.00	0.03
	경영대학	21	5.33	0.25
	이공대학	17	6.25	0.37
	예술대학	28	3.00	0.11
	교양교직학부	8	1.17	0.15
	합 계	119	18.75	0.16

주 1) 교원 수는 2009년 3월 1일 전임 교원 기준임

2) 전임교원이 2006. 3. 1 ~ 2009. 2. 28 기간에 게재한 논문 수

3) 논문게재 실적은 산정 기준은 단독저자인 경우 실적은 1건이며,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 교신일 경우 $\{1/(n^*+1)\} \times 2$, 교신 또는 참여저자인 경우 $\{1/(n^*+1)\}$ 임



<부표 2-4-10> 예술대학 국내·외 공연·전시 실적 및 1인당 실적 수

연도	교원 수	논문 수(공연, 전시)		1인당 논문 수	
		국내	국외	국내	국외
2006	27	21.42	5.20	0.79	0.19
2007	27	16.71	4.00	0.62	0.15
2008	28	30.81	7.66	1.10	0.27

주 1) 교원 수는 2009년 3월 1일 전임 교원 기준임

2) 논문게재 실적은 산정 기준은 단독저자인 경우 실적은 1건이며,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 교신일 경우 $\{1/(n^*+1)\} \times 2$, 교신 또는 참여저자인 경우 $\{1/(n^*+1)\}$ 임

<부표 2-4-11> 단과대학별 저서 실적 및 1인당 저서 수

연도	계 열	교원 수	저서 수	1인당 저서 수
2006	신학대학	13	6.16	0.47
	인문사회과학대학	28	4.80	0.17
	경영대학	23	3.50	0.15
	이공대학	14	0.57	0.04
	예술대학	27	0.00	0.00
	교양교직학부	9	1.00	0.11
	합 계	114	16.03	0.14
2007	신학대학	13	8.08	0.62
	인문사회과학대학	29	3.21	0.11
	경영대학	21	5.83	0.28
	이공대학	14	3.21	0.23
	예술대학	27	0.00	0.00
	교양교직학부	8	0.48	0.06
	합 계	112	20.81	0.19
2008	신학대학	16	7.12	0.45
	인문사회과학대학	29	4.40	0.15
	경영대학	21	10.83	0.52
	이공대학	17	2.70	0.16
	예술대학	28	0.00	0.00
	교양교직학부	8	3.10	0.39
	합 계	119	28.15	0.24

주 1) 교원 수는 2009년 3월 1일 전임 교원 기준임

2) 저서와 역서 실적은 전임교원이 2006. 3. 1 ~ 2009. 2. 28 기간 중 단행본 저술실적(단위 : 건수)을 의미하며, 산정 기준은 단독저술 실적의 경우 1건이며, 공동저술의 경우 1/n임.



<부표 2-4-12> 단과대학별 저·역서 증가율(단위: %)

구 분	계 열	2006~2007	2007~2008	2006~2008
저·역서	신학대학	31.17	-11.88	15.58
	인문사회과학대학	-33.13	37.07	-8.33
	경영대학	66.57	85.76	209.43
	이공대학	463.16	-15.89	373.68
	예술대학	0.00	0.00	0.00
	교양교직학부	-52.00	545.83	210.00
	합 계	29.82	35.27	75.61

주) 연구실적 증가율은 {(기준연도 연구실적-전년도 연구실적)/전년도 연구실적}×100%로 계산하였음

2.5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영역

대학이 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습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학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원체계는 학생, 교육 및 정보지원 체계로 나눌 수 있다. 학생지원 체계의 평가는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장학금과 상담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학생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후생 복지시설을 갖추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교육과 정보지원 체계는 각각 교육과 연구 수행을 지원함에 있어서 시설, 설비, 정보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하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2.5.1 학생지원 체계

2.5.1.1 장학금 수혜 실적

대학 교육에서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과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서 우선으로 시행해야 할 학생지원체제이다. 대학의 장학제도는 대학의 재정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 아니라 사회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잣대가 된다. 우리 대학의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되며, 장학금의 종류와 내용은 <표 2-5-1>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표 2-5-1>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장학금 이외 동문목회자들이 별도의 과정을 통해 매년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장학금 내용을 분석해 보면, 등록금 대비 장학금 평균 비율은 12.7%이었고,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22.5%이었다(<표 2-5-2> 참조). 장학금 비율은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 대학과 예산 규모와 재학생 수가 비슷한 대학 중 A 대학의 9.9%, H 대학의 11.7%와 비교해 볼 때 양호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 액수는 74만 원이었다. 앞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 대학의 장학금 수혜율과 규모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교육수요자의 입장과 대학발전을 위해서 수혜율을 높이고 규모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2-5-1> 우리 대학의 장학금 종류와 내용

종 류	내 용
1.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① 전체 수석 장학금 ② 단과대학 수석장학금 ③ 학과, 학부(전공별) 수석장학금
2. 신입생특기 장학금	① 대상 : 신입생으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자
3. 성적우수 장학금	① 성적기준으로 상위 10%
4. 법인본인, 자녀, 배우자 장학금	① 수혜대상 : 동일 법인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자녀 또는 배우자
5. 학생회 간부장학금	① 수혜대상 :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학생회, 학과(전공)학생회 간부
6. 공로장학금	① 수혜대상 : 신문사, 방송국, 생활관, 졸업준비위원회 임원
7. 보훈장학금	① 수혜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자
8. 북한 이탈주민 교육지원 장학금	① 수혜대상 : 통일부 지침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지정된 자 ② 성적기준 : 통일부지침에 따른다.
9. 근로 장학금	① 수혜대상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근로장학생의 근로시간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10. 학업장려 장학금	① 수혜대상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장학금액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11.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족장학금	① 수혜대상 :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생활보장대상자로 지정된 자 또는 가족 ② 장학금액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12. 사회봉사 장학금	① 수혜대상 : 사회봉사(농촌, 지역)를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자 ② 장학금액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 학점이수를 위한 사회봉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3. 특별 장학금	① 수혜대상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장학금액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14. 해외탐방 연수장학금	① 수혜대상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장학금액 :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5. 형제자매 장학금	① 수혜대상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장학금액 : 1. 2명이상-하위학년(학번) 학생 등록금의 50% 2. 3명이상-하위학년(학번) 학생 등록금 전액 면제
16. 설봉 장학금	① 운영 : 설봉장학기금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수혜대상 : 「설봉장학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 ③ 장학금액 : 「설봉장학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
17. 군종사관후보생 장학금	① 군종사관후보생 합격자에 대하여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등록금액의 50%). ② 해당학기 성적인 3.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목회실습이 NP인 경우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18. 외국인장학금	① 외국인 장학금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9. 산업체 특별장학금	① 수혜대상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17학점 이상 ③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 1. 산업체 특별전형자(도시행정 및 경영정보 야간 전공), 2. 공무원은 등록금의 50%, 취업자 만학도는 30% 지급



<표 2-5-2> 최근 3년간 장학금 수혜율

연도	장학금 수혜자 비율 (%, 장학생 수 /재학생 수)	장학금 수혜 비율 (%, 장학금/전체등록금)	학생 1인당 장학금 규모 (단위: 천원)
2006	21.7	13.3	693
2007	23.8	13.0	741
2008	22.1	11.8	799
평 균	22.5	12.7	744

주) 장학금에는 학비감면액이 포함되어 있음

2.5.1.2 학생 편의와 복지시설

학생 편의와 복지시설은 학생회관, 기숙사, 학생종합봉사실, 학생식당, 서점, 안경점, 휴게실, 동아리방, 체육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학생들이 강의 및 공강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학생 편의와 복지시설의 운영은 학생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는 총무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학생회관에는 대부분 외부 기업에서 운영하는 학생 식당, 서점, 안경점, 매점, 피트니스 센터, 당구장, 커피숍 등이 입점하고 있다. 학생 편의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의견인데,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조사하여 수용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생활관이 준공되어 유학생들의 주거환경을 제고하는 한편,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표 2-5-3> 최근 3년간 기숙사 수용률

연도	기숙학생 수		재학생 수	기숙사 수용률 (%, 기숙학생 수/재학생 수)	
2006	1학기	283	4,155	1학기	6.8
	2학기	284		2학기	6.8
2007	1학기	282	4,215	1학기	6.7
	2학기	281		2학기	6.7
2008	1학기	280	4,315	1학기	6.5
	2학기	283		2학기	6.6

주) 재학생 수는 학부생 기준임



학생회관의 각종 편의시설 이외 우리 대학의 주요 복지시설 가운데 하나는 기숙사이다. 최근 3년간 기숙사 수용률은 6.7%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기숙사 입사자 수보다 입사 희망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대학은 2010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숙사 확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2.5.1.3 학생 상담지도체제와 실적

우리 대학은 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과 사회적응, 취업진로와 관련된 상담과 지도를 위하여 교목실, 학생복지처, 생활관 등에 다양한 상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복지처 안에는 학생 복지과, 진로교육지원센터, 보건진료소를 배치하여 전문상담사를 두고 학생 생활 상담을 하고 있다.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상담 참여율은 평균 3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학생 상담은 상담일지를 통하여 자료가 관리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는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산화된 상담일지를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학교생활 상담 보다는 사회적응과 취업진로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졸자 취업률이 최근 4년간 계속 하락하는 사회적 상황과 연관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생활 상담실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로상담 지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표 2-5-4> 최근 3년간 상담 및 진로지도 건 수(5122)

연도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상담학생 수(A)	재학생 수(B)	참여율 (%, A/B)
2006	1,152	4,155	28
2007	1,326	4,215	31
2008	1,321	4,315	31

주) 재학생 수는 학부생 기준임



<표 2-5-5> 학생 생활상담실 주요 업무 내용

업무 구분	세부 업무 내용
심리 검사	성격 및 진로적성검사를 통해 개인의 선천적인 심리경향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보다 잘 맞는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상담실에서 실시되고 있는 검사는 성격유형검사(MBTI), 다면적인성검사(MMPI), 홀랜드적성탐색검사(Holland), SCT문장완성검사, K-WAIS(지능검사), Full-battery(종합심리검사)를 실시 및 해석상담(50분)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 상담	대인관계, 가족문제, 성격 및 정서문제, 적성 및 진로문제 등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어 더욱 적극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토록 한다. 개인상담은 일주일에 한번 50분씩 진행되고 있다.
집단 상담	특정 주제별로 이루어지므로 특별히 부족하거나 계발하고 싶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집단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집단마다 참가 대상과 인원, 집단의 크기가 제한되는데 보통 8~10명의 인원으로 16~30시간 정도 진행되며 2~3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성 상담	성 상담 및 교육, 성폭행 상담 및 예방활동을 통해 올바른 성의식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협성대 학생들이 편안한 대학생활을 영위토록 노력하고 있다.
기타	신입생, 재학생들의 특성과 욕구 등을 실제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생생활상담 및 진로지도 계획에 도움을 주고 연구지를 발간하고 있다.

2.5.2 교육지원 체계

2.5.2.1 교지 및 교사

대학은 교육과 연구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종 시설과 설비를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유지해야 한다. 2009년 9월 현재 우리 대학의 교지 확보율은 87%이며, 교사 시설 확보율은 98% 수준이다. 수도권 대학 가운데 우리 대학과 예산규모와 재학생 수가 비슷한 A대학의 교지확보율이 69.5%이고 H대학의 교지확보율이 72%인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 대학 평가에서는 강의실과 실험 실습실을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나, 정보공시 이후 평가에서는 전체 교사시설확보 현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 대학의 교사 확보율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교사시설은 크게 교육 기본시설과 교육 지원시설로 구분한다. 먼저, 교육 기본시설에는 강의실, 실험 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등 교육에 필요한 필수 시설들이 포함되며, 우리 대학의 교육 기본시설은 52,801㎡이다. 다음으로 교육 지원시설은 체육관, 강당, 전자계산소, 기숙사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 지원시설은 9,059㎡에 달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의 교사시설은 2008년 기준으로 재학생 기준 61,860㎡이며, 법정면적 기준인 62,460㎡의 99.6%에 해당해 교사시설 확보는 매우 우수하다. 또한, 이 수치는 우리 대학의 학생 증가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면적이다.

우리 대학은 교사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표 2-5-7>에서처럼 실험 실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크게 증가시켰다. 아직 국내외 우수 대학의 실험실습 투자에 비한다면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학교 당국의 지속적 관심과 투자증가로 앞으로는 상당한 교육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2-5-6> 본교의 교사시설(단위: ㎡)

교사 기준시설					연구 시설 (b)	부속 시설 (c)	기타 시설 (d)	합계 (a+b+c+d)
보 유			기준	확보율 (%)				
기본시설	지원시설	계(a)						
52,801	9,059	61,860	62,460	99.0	493	583	135	63,071

주) 확보율은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표 2-5-7> 최근 3년간 실험실습비 증가 추이(단위: 천원)

연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A)	재학생(B)	재학생 1인당 구입비(A/B)
2006	358,154	4,715	81.7
2007	359,267	4,750	75.6
2008	420,872	4,857	86.7

주) 재학생수에는 대학원생 포함



2.5.2.2 시설관리 지원

<표 2-5-8>은 최근 3년간 우리 대학의 시설관리와 관련된 지출 내역이다. 시설관리 부문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지출 규모는 총 61억원이었다.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건축물 관리비가 전체의 6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07년 말 학생 회관, 신학관 및 예술관 실습동이 차례로 준공되어 그에 따른 관리비의 증가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들어 우리 대학의 조경관리비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학교 당국이 정책적으로 녹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5-8> 최근 3년간 시설관리비 지출 내역(결산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건축물관리비	583,741	772,342	2,489,712
장비관리비	124,846	185,587	202,499
조경관리비	33,700	23,237	297,340
시설용역비	9,768	456,200	642,465
기타 시설관리비	58,199	67,814	177,532
합 계	810,254	1,505,180	3,809,548

2.5.2.3 체육 시설 및 기타 교육 지원시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수업 및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체육장 면적은 13,200㎡이며 학생 1인당 면적은 3.06㎡이다. 현재 우리 대학교에는 체육관련 학과가 없어 전용 체육관 시설은 없다. 다만 부족한 체육관 시설은 향후 건축예정인 실내 체육관이 완공되면 해소될 것으로 본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축구, 육상, 농구, 배구, 족구 등의 구기 종목에 사용된다. 이들 체육시설은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수업, 각종 체육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로서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체육행사나 생활체육장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체육장 주변에는 노천 스탠드가 마련되어 있어, 각종 공연 등에 사용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주요 교육지원시설 중 하나로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는 유일무이한 성서고고학 박물관이 있다. 성서고고학 박물관은 특수 박물관으로서 본관 7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총 297점의 유대교(Judaism)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각종 유물은 현지 전문가들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수집한 것으로 고고학적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모든 재학생과 지역주민, 교계 인사와 전문가 등에게 개방하여 활용 가치를 크게 높이고 있다.

2.5.3 정보지원 체계

2.5.3.1 도서관 예산과 장서

대학은 학생과 교수의 학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포함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정보처리 체제를 구축하여 실용화하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전문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표 2-5-9>에서처럼 우리 대학은 대학 총 예산의 평균 1% 내외를 도서관 예산에 사용하고 있다. 2009년 기준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는 90,700원으로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다. 도서구입비의 증가에 힘입어 학생 1인당 장서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표 2-2-12> 참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년 10% 정도씩 증가해 왔다.

<표 2-5-9> 도서관 예산 비율

연도	도서관 예산(A) (천원)	전체예산(B) (천원)	도서관예산비율 (%, A/B)
2006	467,930	44,733,922	1.04
2007	428,888	47,494,548	0.90
2008	424,265	43,414,185	0.97



<표 2-5-10> 학생 1인당 장서 수

연도	총장서 수(A)	재학생 수(B)	학생 1인당 장서 수(A/B)
2006	250,081	4,155	60.2
2007	281,086	4,215	66.7
2008	313,591	4,315	72.7

주) 재학생수는 학부생 기준이며, 장서수는 도서, 비도서,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E-learning자료 포함)· 수의 합계임

2.5.3.2 비도서 정보자료의 확보 및 활용

2008년도부터 비도서 정보자료의 확보 및 활용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여 최근 들어 비도서 자료가 도서자료를 대체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상응한다. 우리 대학은 2008년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화된 전자도서 자료수가 45,980점으로 양호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표 2-5-11>은 최근 3년 동안 전자도서의 활용 상황인데, 매년 전자도서 자료 수 뿐 아니라 학생 1인당 대출회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활동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는 최근 3년간 평균 6만 7천원이며 우리 대학에서는 정제된 도서관 예산을 확충하여 양질의 도서구입을 늘려갈 예정이다.

<표 2-5-11> 전자도서 현황 및 활용 실적

연도	전자도서 자료 수 (A)	재학생 수(B)	대출 회수 구분	전자도서 자료의 대출회수(C)	전자도서 자료당 대출회수(C/A)	학생1인당 대출회수 (C/B)
2006	17,743	4,155	접속	381,683	21.51	91.86
			다운로드	13,757	0.78	3.31
2007	24,881	4,215	접속	507,188	20.39	120.33
			다운로드	19,291	0.78	4.58
2008	45,980	4,315	접속	612,658	13.32	141.98
			다운로드	34,232	0.75	7.93

주) 재학생수는 학부생 기준임



2.5.4 학술활동 지원

우리 대학은 교내 학술활동을 위하여 각 연구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는 음악연구소, 산업경영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한국교회연구소, 협성신학연구소, 도시환경계획연구소, 디자인연구소 등 모두 7개의 연구소가 있다. 각 연구소의 주요 기능은 5개 단과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이 예술,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분야별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성과물로 발간하는 데 있다.

최근 3년간 교내 연구소별 지원액 및 지원 현황과 주요 성과는 <표 2-4-12>와 <표 2-4-13> 및 <표 2-4-14>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 당국의 넉넉지 못한 예산 지원에 비한다면 적지 않은 활동을 수행하였다. 산업경영연구소, 도시환경계획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등은 주로 학술지 발간에 치중한 활동을 한 반면, 음악연구소와 한국교회연구소는 각종 연주회, 학술강연회 등에 더욱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우수연구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소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내중점연구소 선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며, 외부 연구비 수주를 통한 자생력 강화 유도, 우수 연구소에 대한 전임연구 인력 확보 등 연구 환경을 개선하여 연구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표 2-5-12> 최근 3년간 교내연구소 지원액 및 지원 현황

연도	지원 건수	지원액(천원)
2006	9	14,790
2007	15	16,610
2008	7	9,778



<표 2-5-13> 교내 연구소별 지원액 및 지원 현황(단위: 천원)

기준년도	연구소명	학문분야	연구비 수주액(교내)
2006	음악연구소	예술	9,000
	산업경영연구소	사회과학	1,590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2,000
	협성신학연구소	인문과학	2,200
	평 균		3,698
2007	음악연구소	예술	5,000
	산업경영연구소	사회과학	1,464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2,020
	한국교회연구소	인문과학	3,026
	협성신학연구소	인문과학	3,100
	도시환경계획연구소	자연과학	2,000
	평 균		2,768
2008	음악연구소	예술	400
	산업경영연구소	사회과학	1,400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1,700
	한국교회연구소	인문과학	1,877
	협성신학연구소	인문과학	1,600
	도시환경계획연구소	자연과학	2,000
	디자인연구소	예술	800
	평 균		1,397



<표 2-5-14> 최근 3년간 연구소별 성과

연도	성 과	
2006	음악연구소	· 교수 연주회 및 피아노연주회(06.11) · 음악학과 김현숙 교수 합창제 · 오페라‘정조대왕의 꿈“ 반주비 (06.12) · 협성피아노 앙상블 정기 연주회(06.11) · 2006년 화성합창제 ‘춤·노래 합창의 대향연’
	산업경영연구소	· 「산업경영연구」 10집 발간
	사회과학연구소	· 학술포럼 개최 및 「사회복지연구」 제13호 발간
	협성신학연구소	· 학술강연회 ‘하나님 나라와 평화’ (5.24) 개최 · 학술강연회 ‘하나님 나라와 평화’ (5.24) 개최
2007	음악연구소	· 피아노앙상블(교수연주회)/콘서트콰이어 정기연주회 · 돈 지오반니 오페라/ · 협성앙상블(교수연주회) · 음악학과 김현숙 교수 용인시청 연주회
	산업경영연구소	· 「산업경영연구」 제11집 발간 · 조형학부 특성화 사업인 ‘학교기업창작가특성HS운영사업’ 자문과 인력제공
	한국교회연구소	· 한국교회 역사탐방 · 한국교회연구소 학술강연회(5.18) · 역사현장 탐방 지원(5.7~5.29) · 「사회복지연구」 발간 건에 관한 논문심사비 지원 · 「사회복지연구」 14호 발간
	도시환경계획연구소	· 제34차 협성신학연구소 추계 정기 학술 강연회(11.21) · 학술강연회 ‘디지털 시대의 인간성 회복’(5.30) · 학술강연회 ‘디지털 시대의 인간성 회복’(11.21) · 「이공연구」 5집 발간
2008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복지연구」 발간
	도시환경계획연구소	· 「이공연구」 발간
	산업경영연구소	· 「산업경영연구」 발간
	한국교회연구소	· 정기학술강연회 및 역사탐방 지원
	협성신학연구소	· 학술강연회 특강 지원



2.6 대외협력 및 국제화 영역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대학의 국제화 지수는 대학 간 경쟁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대학마다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해당 대학의 핵심 과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대학 입시 홍보를 위한 신문 및 방송 광고에 지구촌 · 국제화 · 세계화 · 글로벌화 등 유사하거나 의미가 같은 용어가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으로 상황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대학에서 지구촌 시대를 대비한 교육 및 지원체계를 얼마나 체계적·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실행하느냐 하는 것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 차원의 대학 경쟁에 돌입할 때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란한 수사의 포장을 벗겨 내면 많은 대학이 시대 변화의 흐름을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고 또 실제로 내용을 갖춰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체평가에서 대외협력 및 국제화 영역을 포함하여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에서도 이 두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2.6.1 대외협력

대외협력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원과 재학생의 해외교류 및 협력이다. 우리 대학은 오래 전부터 미국의 쉐터너리대학과 세인트폴대학, 중국의 연산대학, 영국의 웨슬리대학 등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어학연수생 파견을 포함한 각종 협력을 지속해 왔다. 2008년에는 중국의 목단강대학, 사천외국어대학, 사천사범대학 및 하남사범대학, 일본의 야마나시에이와대학, 러시아의 연해주농업대학, 아프리카 토고의 로메신학대학 등과 새로이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에도 미국의 게렛대학과 클레어몬트대학, 중국의 하문화하직업대학과 하문동해직업대학 등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더욱 광범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대외협력은 재학생이 얼마나 자주 해외교류를 갖는 가로 평가할 수 있는데, 재학생의 해외교류를 평가할 지표로는 해외인턴십, 해외탐방 및 해외어학연수가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측정은 재학생의 참여 비율로 표시한다. 먼저 우리 대학에서 해외인턴십과 해외탐방, 그리고 해외어학연수 제도가 최근 3년간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2-6-1> 외국 대학과의 교류·협력 현황

연도	교류·협력 체결 대학
2006년 이전	연산대학(중국, 1998), 호프 인터네셔널대학(미국, 1999), 상해사범대학(중국, 2002), 센터너리대학(미국, 2005), 뮌헨대학(독일, 2005), 세인트폴대학(미국, 2006), 웨슬리대학(영국, 2005), 세인트 폴 신학대학원(미국, 2006)
2007	웨슬리대학(영국)
2008	목단강대학(중국), 사천외국어대학(중국), 사천사범대학(중국), 하남사범대학(중국), 야마나시에이와대학(일본), 연해주농업대학(러시아), 로메신학대학(토고)
2009	게렛대학(미국), 클레아몬트대학(미국), 하문화하직업대학(중국), 하문동해직업대학(중국)

우리 대학에서 해외인턴십지원제도는 매년 20명의 학생을 호주에 파견하여 외국 기업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취업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방학 중 6주간 시행하며, 학생 개인당 200만 원씩 지원한다.

해외탐방연수지원제도는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외협력 분야의 프로그램이다. 학생 선발은 매년 1학기 초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지역별로 나누어 공모하는 방식을 취한다. 참여 희망 학생들로부터 공모 기간에 해외탐방연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계획서의 검토와 면접심사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0명의 학생을 선발하며 왕복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여름 방학 중 약 15일 동안 계획서에서 제시한 국가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기업체, 대학 등을 탐방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 대학의 재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해외어학연수지원제도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제적 감각과 어학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우리 대학은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매년 20명 내외의 재학생을 선발하여 자매결연을 한 미국 센터너리 대학교, 중국 연산대학교와 목단강대학교에 파견한다. 이들 재학생은 외국어 실력 향상과 문화체험에 초점을 맞춘 현지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선발된 학생 전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체재비 등이 지원된다.



재학생들의 대외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참여비율과 학교 당국의 지원 현황이 다음 <표 2-6-2> ~ <표 2-6-5>에 제시되어 있다. 넘겨지 못한 재정 여건에도 앞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대학은 대외협력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재학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실적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참여 비율이 낮은 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3년간 참여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주목하여,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학생들의 해외교류를 확대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인턴십과 해외어학연수 분야에 대한 재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외협력 분야의 전체적인 실적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 2-6-2> 주요 대외 협력 분야의 재학생 참여 비율

평가지표	2006		2007		2008	
	참여 학생 수(명)	참여 비율(%)	참여 학생 수(명)	참여 비율(%)	참여 학생 수(명)	참여 비율(%)
해외인턴십	11	0.2	7	0.1	6	0.1
해외탐방	90	2.1	90	2.1	90	2.0
해외어학연수	32	0.7	24	0.5	15	0.3

주) 참여 비율은 (참여 학생 수 ÷ 재학생 수)의 비율을 표시한 것임

<표 2-6-3> 해외인턴십 지원 현황

연도	참여 학생 수	지원방식	지원액(천원)
2006	11	항공권 및 경비 일부 지원	24,200
2007	7		16,200
2008	6		12,500



<표 2-6-4> 해외탐방 연수 지원 현황

시행연도	참여 팀 수 및 인원 수	지원액(천원)	비고
2006	30팀 90명	184,937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2007	30팀 90명	190,711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2008	30팀 90명	209,802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표 2-6-5> 해외어학연수 지원 현황

시행연도	참여 학생 수	지원방식	지원액(천원)
2006	32	항공료	27,663
2007	24	항공료 및 체재비	41,150
2008	15	항공료 및 체재비	19,446

앞에서 언급한 대외협력 프로그램은 모든 재학생이 그 대상이다. 이와는 별도로 단과대학 혹은 학문 분야별 대외협력 사업도 수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학대학의 세계선교훈련원 운영이다. 신학대학은 세계선교훈련원을 설립해 세계적 선교 상황에 맞추고 감리교 정신에 입각한 선교자의 양성 및 선교현장과 연계된 실질적 훈련을 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여름과 겨울, 2학기(학기당 14주) 과정으로 단기 선교훈련을 수행하는 세계선교훈련원은 우리 대학 정체성과 관련되는 대외협력의 좋은 사례이다. 또 예술대학 가구디자인학과 재학생들은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열린 국제가구박람회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해외 전시와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우리 대학은 증가하는 대외협력 수요에 부응하여 2008년 국제교류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서부터 교수 및 학생 교환프로그램, 언어 습득과 문화 이해를 위한 학생 어학연수프로그램, 외국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특별전형 등 각종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의 국제화와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대학의 대외협력 분야에는 해외학생교류만이 아니라 국내 다른 대학과의 교류도 포함된다.



우리 대학은 경인지역 25개 대학과 함께 6학점씩 학점교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OCU(열린 사이버대학) 강좌 수강도 이수 영역이 겹치지 않으면 제한 없이 허용하여 재학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 대학 강좌 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6.2 국제화

국제화 분야는 외국인 유학생 수, 해외파견 교환학생 수, 외국인 교원 비율 등으로 평가한다. 우리 대학은 역사가 짧고 학문 분야가 다양하지 않아 유학생과 교환학생의 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08년에 국제교류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2009년에는 대학원(신학과) 2명을 포함하여 해외 유학생 90명(중국 89명, 네팔 1명)이 재학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재학생 대비 유학생의 비율은 2%에 불과하다. 학교 당국은 국제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2012년까지 전체 재학생 대비 유학생의 비중을 8%까지 높일 계획이다.

우리 대학의 외국인 전임 교원의 수는 5명 내외에 불과하며, 원어 강의의 비율도 5% 미만으로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의 규모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비교할 수 있는 수도권의 비슷한 규모 몇몇 대학을 조사해 본 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의 국제화에 대한 당위성과 현실과의 거리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표 2-6-6> 국제화 영역 주요 지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측정 방법	2006	2007	2008	2009.10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수 (대학원생 2명 포함)	0	1	0	90
	자비 유학생	자비 유학생 수	0	1	0	90
외국인 교원	외국인 전임교원	외국인 전임교원 수(비율)	5 (4.4%)	4 (3.5%)	4 (3.6%)	7 (5.0%)
		전임교원 수	114	114	112	140
	원어강좌	원어강좌 교과목 수(비율)	24 (3.9%)	24 (3.9%)	24 (3.9%)	24 (3.9%)
		총 개설 교과목 수	608	608	608	608



그러나 국제화가 최근 대학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생각할 때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우리 대학의 국제화 수준이 낮지 않다고 그것이 위안이 될 수는 없다. 이에 우리 대학도 학생들의 국제화 능력을 높이고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여 창의적 지식인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표 2-6-7> 2009년 외국인 유학생 전공별 현황

대 학	구 분 (대학원, 학부/과)	인 원		
		신입생	편입생	합 계
신학대학	신학부	1	0	1
인문사회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1	0	1
	문예창작학과	4	0	4
	사회복지학과	1	1	2
	아동보육학과	1	0	1
	도시지역학부	2	1	3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3	0	3
	금융보험학과	5	0	5
	세무회계학과	2	0	2
	광고홍보영상학과	6	0	6
	유통경영학과	1	0	1
	국제통상학과	32	19	54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1	0	1
	보건관리학과	1	0	1
예술대학	음악학부	1	0	1
	실내디자인학과	1	0	1
	제품디자인학과	2	0	2
	시각디자인학과	2	0	2
합 계		67	21	88



제3장 요약 및 종합논의

3.1 요약

3.2 종합논의

H Y U P S U N G U N I V E R S I T Y



협성대학교
HYUPSUNG UNIVERSITY



제Ⅲ장 요약 및 종합 논의

3.1 영역별 요약

3.1.1 대학 경영 영역

3.1.1.1 대학 경영

- 우리 대학의 창학이념, 교육목표, 경영전략 등은 모두 긴밀히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대학의 창학이념은 국가의 보편적 교육목적인 교육이념과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 신학과 경건주의 신앙생활에 입각한 진리탐구와 참된 인간의 가치추구이다. 교육목적은 창학이념에 충실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기독교 전문 사역자와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고 믿음·사랑·봉사를 실천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양성에 있다. 창학이념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실천하는 신앙인, 봉사하는 지도자, 능력 있는 전문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 위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4년 ‘협성대학교 비전과 대학종합 발전계획’을 세워 6대 추진전략과 23개 구체적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웅비2022’를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꾸준히 노력한 결과 대부분의 세부 추진목표와 과제는 추진 완료되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 학생의 교육여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몇몇 지표를 2004년과 2006~2008년의 3년간을 비교해 본 결과, 재학생 1인당 교육비(590천원 → 684천원), 교사확보율(76% → 98%) 등은 크게 개선되어 2010년의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하였음.
 - 다만 지속적인 노력에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와 등록금 의존율은 아직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2009년 한 해 동안에만 26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하여 2009년의 교원 확보율(편제정원 기준)이 59.1%에 이르렀고, 2010년 이후엔 전임교수 확보율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3.1.1.2 대학 발전 및 특성화

- 우리 대학은 2004년 ‘협성대학교의 비전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이후 2008년에는 다시 2008~2022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2003~2008년 기간이 교육중심대학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였다면, 2008~2022년까지는 우리 대학 제2의 창학을 준비하면서 교육중심 선도대학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1) 전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2)인성교육의 제도적 강화, 3) 현장 교육 시스템의 확립, 4) 섬김과 나눔 화합의 다기능 캠퍼스 구축, 5) 특성화된 교육 중심 교육모델 제시 등임.
 - 위의 추진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교육여건의 개선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므로 2017년까지 공학관(테크노센터), 국제관, 협성비전센터, 외국어교육원, 학술정보관, 박물관, 생활관, 대학교회, 산학협력관, 실내종합스포츠센터 등을 신·증축해 계획임. 이미 공학관(테크노센터)의 신축이 확정되어 2010년 초부터 건축이 시행될 예정임.
- 대학발전과 특성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 아래 우리 대학은 2004년 특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산·학·연·관 프로그램’을 특성화 과제로 추진하였다.
 - 특성화 사업 추진 결과 이와 관련된 다수의 교내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우리 대학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따라서 2010년 이후 우리 대학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특성화 사업이 필요한 시점임.
 - 최근에는 학과 단위의 특성화도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 ‘재래시장 육성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전문유통인 양성교육프로그램 구축사업(유통경영학과)’, ‘학교기업 「나무망치」 운영사업(가구디자인학과)’ 등이 그것으로 언론에서도 좋게 평가함.

3.1.1.3 대학 재정

- 우리 대학의 연간 총 수입액은 약 400억 원이며, 가장 큰 수입원은 등록금, 전입 및 기부금, 교육 부대수입, 교육 외 수입 등으로 구성된 운영수입이며, 전체 수입의 90%를 차지한다.



- 우리 대학의 법인은 순수 학교법인으로 사업체를 통한 수입원이 없음. 따라서 법인으로 부터의 전입금 수입은 1% 미만의 저조한 실정임. 또 학교의 역사가 짧고 교세가 약 해서 외부로부터의 기부금, 교육 외 수입 등도 적은 편임. 다만 기부금의 규모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간 구성원들의 기부금 모금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음.
 - 이 결과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은 비교적 높아서 2006년 83.0%, 2007년 70.0%, 2008년 85.0% 등을 나타내고 있음.
- 지출은 크게 운영지출, 자산 및 부채지출, 차기 이월금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수년 동안 몇몇 신축 건물을 완공하거나 신축 부지의 매입이 이루어지면서 투자와 기타 자산에 대한 지출 및 고정자산 매입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특히 고정자산 매입을 위해 2006~2008년 3년간 전체 결산액의 30%에 해당하는 370 억원(2006년 101억원, 2007년 121억원, 2008년 54억원)을 지출하였음. 학교 당국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줌.
- 전체 지출 중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운영지출은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 외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 전체 교직원의 보수는 총 지출액의 약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균형 잡힌 비중임.
 - 2007년 말 몇몇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서 관리운영비의 지출이 종래의 10% 수준에서 17%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앞으로 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장학금과 학비감면의 규모는 총 지출액의 약 10% 수준으로 전국의 일반 대학과 비슷한 수준이며, 연구비는 총 지출의 1%에 미달하여 연구 여건은 열악한 수준임.

3.1.2 구성원 영역

- 이 영역에서는 대학의 주체인 학생 · 교수 · 직원에 대해 모두 28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그 중 19개 항목은 정량적 평가, 나머지 9개 항목은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 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간이었으며, 자료 이용이 가능한 일부 항목은 2009년의 최근 자료까지 취합하여 평가하였다. 아울러 우리 대학의 현재 위치가 국내 주변 대학과 어느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경기권에 소재하는 몇몇 대학을 선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우리 대학과 매년 합동 입시 설명회를 하는 4개 대학, 건학 이념이 유사하면서도 규모가 비슷한 2개 대학 등 모두 6개 대학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6개 대학의 정보는 ‘대학 알리미’를 통해 추출하였다.

3.1.2.1 학생

- 우리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기회균형선발을 포함한 다양한 입학전형 방법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입시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년도 입시결과 분석 → 개선방안 도출 → 정책조정위원회 검토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확인’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 우리 대학의 신입 및 편입학 경쟁률, 신입 및 편입생 충원율, 재학생 유지율 등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중도 탈락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우리 대학과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유사한 규모의 경기권 내 다른 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그동안 우리 대학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임과 동시에 우리 대학이 추구해 온 교육이념, 인재상, 대학발전과 비전 등이 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1> 학생 분야 주요 지표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신입학 경쟁률	11.2 : 1	15.2 : 1	13.9 : 1
편입학 경쟁률	4.4 : 1	4.6 : 1	3.1 : 1
신입생 충원율(%)	98.6	100.2	100.6
편입생 충원율(%)	92.2	89.7	87.2
재학생 유지율(%)	96.1	97.5	99.8
중도 탈락률(%)	5.7	7.2	7.5

- 교육의 성과 중 하나는 학생의 진로로 나타나고, 학생의 진로는 졸업생의 취업률과 진학률로 계산된다. 우리 대학은 기업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였고, 그 결과 60% 이상의 취업률 성과를 보였다. 취업자의 전공



일치 비율은 70%를 웃돌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의 불경기 여파가 취업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취업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우리 대학의 진학률과 정규직 취업률은 최근 3년간 다소 낮은 추이를 보이는데, 이는 우리 대학의 성격이 교육중심 대학이고, 또 2008년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불황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표 3-1-2> 졸업생 취업 관련 주요 지표 추이(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졸업생 취업률	67.8	62.8	64.2
졸업생 진학률	11.4	7.4	3.8
정규직 취업률	48.0	44.6	40.1
취업자의 전공일치 비율	73.7	75.4	72.0

-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평가지표로서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교육비 환원율의 두 개념이 사용된다. 1인당 교육비는 ‘교육 관련 제비용’으로 계산되는데, 제비용에는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기타학생경비, 집기비품비,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대비 운영비와 기자재 및 도서 구입비 등 학교 교육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 대학은 최근 3년 동안 학생회관, 신학관, 예술대 실습관 등을 잇달아 신축하면서 건축용 비용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교육비의 증가가 여의치 못했다. 우리 대학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경기권 소재 몇몇 대학의 교육비와 비교할 때 우리 대학의 수준이 낮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교육비 관련 두 지표의 비율을 높이지 않고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에 치중할 예정이다.

<표 3-1-3> 재학생 교육비 관련 주요 지표 추이

구 분	2006	2007	2008
재학생 1인당 교육비(천원)	504	795	753
교육비 환원율(%)	7.6	12.0	10.3



3.1.2.2 교수

- 바람직한 학생지도와 대학 교육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전임교원의 적정 비율 확보는 대학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도 2004년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원 확보율을 높이도록 정책적 조치를 취한바 있다. 우리 대학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09년 다수의 전임교원을 충원하였고, 그 결과 전임교원 확보율, 강의담당 비율, 1인당 학생 수 등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었다.
- 전임교원의 충원과 함께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전임교원 역량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립(2005)하여 교수매체 제작과 활용법에 관한 워크샵,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세미나, 전공별 교수법 세미나, e-class를 활용한 강의 지원 등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3-1-4> 교원 분야 주요 지표 추이(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전임교원 확보율(편제정원 기준)	47.7	49.1	47.5	59.1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43.3	43.8	40.2	41.8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36.4	37.0	38.5	30.9
신규 임용 전임교원 중 산업체 경력 비율	100.0	100.0	66.6	66.6

3.1.2.3 직원

- 우리 대학 직원의 직군은 일반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등으로 분류하며, 우리 대학의 「행정업무편람」에 행정부서별 명확한 업무분장이 서술돼 있다. 또 업무의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나이, 능력, 자격, 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 직군별 분포 : 2009년 10월 현재 정규직 직원 총 70명, 그 중 일반직 48명, 기술직 10명, 기능직 9명, 기타(별정직) 3명이며, 비정규직은 모두 7명으로 전산실, 시설관리, 운전기사, 교목실, 평생교육원, 상담실 등에 배치되어 있음.
 - 나이별 분포 : 30세 이하 11.4%, 31세~50세 : 65.7%, 50세 이상 22.9%



- 직원 1인당 교원 수 : 2006 ~ 2008년 기간 중 1.6명, 2009년 1.8명
- 직원 1인당 학생 수 : 2006년 58.5명, 2007년 59.4명, 2008년 62.5명, 2009년 56.2명
- 직원 능력개발과 후생복지 : 교직원 보험, 콘도 4계좌, 각종 협의회 참석을 위한 교육 출장 정도로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함.

3.1.3 교육 및 사회봉사 영역

- 이 영역은 교육과정, 교육운영 및 사회봉사의 3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의 과정과 운영 이야말로 대학의 본연적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교육과정 분야는 교양과 전공과정 편제의 적절성 및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우리 대학의 각종 정책을 포괄하여 살펴보았다. 교육운영 분야는 바람직한 교육운영을 위한 우리 대학의 노력을 강의계획서, 강의평가, 학습평가 등을 통해 정리하였다. 사회봉사 분야는 우리 대학의 사회봉사 관련 프로그램과 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1.3.1 교육과정

- 우리 대학의 교과과정은 4년마다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간에 학문 발전과 사회적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2009학년도 제9차 교과과정 개편 시 졸업이수학점 140점, 그 중 교양필수 10학점, 교양선택 21학점, 전공필수 18학점, 전공 선택 48학점 등으로 조정하였다. 교과편성의 자율성과 학업선택의 폭을 강화하기 위해 학과별로 90~108학점의 전공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 이 중 단일전공자는 66학점 이수,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의 48학점 및 제2전공의 39학점 이수, 부전공자는 제1전공의 66학점 및 부전공 21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직이수자는 제1전공의 66학점 및 교직과목 29학점을 이수해야 함.
 - 학생들이 폭넓은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등을 권유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의 평균 이수율은 복수 및 부전공은 1% 미만, 교직과정 5.4% 등으로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선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로서 현장학습 강화, 외부 전문가의 초청 강의 확대, 해외탐방프로그램 실시, 교원의 연구년제도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장학습 강화 : 각 단과대학별 다수의 현장실습과목 운영
 - 외부 전문가의 초청 강의 확대 : 2006~2008년 기간에 ‘명사초청강연’ 215회 실시
 - 해외탐방프로그램 실시 : 매년 여름 방학 중 3인 1팀, 약 30팀을 선발하여 항공권과 14박 15일 동안의 체재비 전액을 지원함.



- 교원의 연구년제도 운영 : 이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지도비를 제외한 급여 전액을 지원하고, 연도별 수혜율은 2006년 14.0%, 2007년 9.5%, 2008년 20.5% 등임.

3.1.3.2 교육운영

- 우리 대학은 체계적인 교육과 합리적인 학습평가를 위해 교육운영의 내용을 강의계획서에 의한 수업관리, 강의평가 및 학습평가로 나누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강의계획서에 의한 수업관리 :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 이전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가 학사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함. 학습 개요와 목적, 수업 진행방법, 성적 평가방법과 비율, 수업 일정과 내용, 교재 · 부교재 · 참고문헌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음. 최근 3년간 강의계획서 미입력 강좌 수는 전임교원 4.9%, 비전임교원 17.3% 등으로 100% 입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 강의평가 : 강의평가는 학생들이 한 학기 수업을 마친 후 해당 교과목에 대해 학생 · 교수 · 수업 · 실습 영역 등으로 나누어 5단계 평가를 하며, 평가 결과는 모든 교수에게 통보되며, 강의개선을 위한 정보와 교원 인사에 반영됨. 2008년의 강의평가 결과는 5점 만점에 평균 4.2점으로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보여줌.
 - 학습평가 : 「학칙시행세칙」 제33조에 의거, 담당교수는 중간고사(30%), 기말고사(40%), 출석 및 과제물(30%) 등을 종합하여 성적을 평가하고, 동 규정 제35조에 상대평가를 통한 성적 분포비율이 제시되어 있음. 최근 3년간의 성적 분포율을 보면 A 이상 43.6%, B&B⁺ 35.0%, C&C⁺ 12.9%, D&D⁺ 3.4%, F 4.1% 등임. 이 결과는 「학칙시행세칙」에 제시된 원칙보다 다소 상향 조정된 것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다는 증거라 판단됨.

3.1.3.3 사회봉사

- 우리 대학은 믿음·사랑·봉사의 교훈 아래 봉사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은 학생복지과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봉사활동 결과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하여 교원인사에 반영된다. 우리 대학 전임교원이 교외 학술단체 임원, 공공기관 위원 등의 공식적 활동 참여율을 보면 2006년 48.2%, 2007년 54.5%, 2008년 56.8% 등이었다. 1인의 교수가 복수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모두 한 건의 실적으로만 계산하였다는 점, 비공식적 참여 등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수준의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1.4 연구 및 산학협력 영역

- 이 영역에서는 우리 대학 교원의 연구 성과와 산학협력에 대해 평가하였다. 우선 교원의 연구업적은 전임교원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실적, 발표 논문 수, 저서 수 실적 등을 최근 3년간(2006.3.1~2009.2.28) 자료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평가 시 각종 지표의 개념, 계산방법 등은 주로 대학교육협회의 평가기준을 활용하였다. 다음은 교내 연구 지원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체 연계 교육 프로그램, 특허와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산학협력 실적을 분석하였다. 우리 대학은 교육중심대학이긴 하나 교원의 연구실적을 중시해 왔다. 교원의 연구실적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중 연구영역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심사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3.1.4.1 연구

- 논문은 국내외 저명학술지(국내는 학진 등재후보지 이상, 국외는 SCI급 이상)와 일반학술지로 구분하였다. 우리 대학 전임교원 345명(3년간 누적 인원)의 1인당 연구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저명학술지 게재 실적과 저·역서 발간실적은 전국 평균 이상의 양호한 결과로 나타났고, 그 외 연구실적은 다소 미흡하였다. 다만 전 학술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게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의 실적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1-5> 전임 교원 연구실적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실적(2006~2008, 1인당 평균 편수)
국내 저명학술지게재 실적	0.51
국내 일반학술지게재 실적	0.38
국제 저명학술지 게재 실적	0.03
국제 일반학술지 게재 실적	0.03
국내 학술대회 발표 실적	0.20
국제 학술대회 발표 실적	0.12
저서·역서 발간 실적	0.20



3.1.4.2 연구지원

- 우리 대학은 교수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각종 시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연구비 지원, 산학연 교류협력사업 확대, 교내 연구소 활성화 등이다. 구체적인 실적을 보면 교내외 연구비 수혜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산학연 협력사업과 교내 연구소의 활동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산학연 교류 확대와 교내 연구소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 교내 연구비 수혜실적 : 전임교원 345명(3년간 누적인원)이 402과제 수행, 1인당 평균 1.17건에 해당하며, 1인당 평균 수혜액은 2,035천 원이었고, 그 실적도 매년 향상되고 있음.
- 교외 연구비 수혜실적 : 총 345명의 교수가 113과제 수행, 1인당 평균 0.33건에 해당하며, 1인당 평균 수혜액은 12,478천 원이었고, 3년간 평균 28.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교내 연구소 지원 : 우리 대학은 7개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연구소당 약 2,000천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액과 실적이 비교적 저조함. 앞으로 교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이 요구됨.

3.1.4.3 산학협력

- 우리 대학의 산학연 교류협력사업 : 3년간 산학연 협정체결 또는 자매결연 등이 총 46건, 참여 교수 수는 106명, 참여 학생 수는 1,653명이었다. 특히 출원이나 등록 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우리 대학의 특허 등록 건수는 2007년 1건, 2008년 2건에 불과하였다.

3.1.5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영역

- 이 영역은 대학이 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학내 지원체계에 대해 평가한다. 지원체계는 크게 학생지원, 교육지원, 정보지원 등으로 구분한다. 학생지원체계는 적정수준의 장학금 규모 여부, 상담 서비스 제공, 적절한 후생 복지시설 등이 주요 평가지표가 되고, 교육과 정보지원체계는 각각 교육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 설비, 정보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가 주요 평가지표가 된다.



3.1.5.1 학생지원

- 우리 대학에는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우수 장학생에서부터 산업체 특별 장학생에 이르기까지 대략 19종의 공식 장학금 종류가 있고, 그 외 외부 기관, 기업, 개인 등의 위탁에 의한 수시 장학금이 있다. 최근 3년간 장학금 내용을 분석해 보면, 등록금 대비 장학금 평균 비율은 12.7%였고,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22.5%였으며, 1인당 평균 장학금 액수는 74만 원이었다. 우리 대학의 장학금 수혜율과 규모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교육수요자의 입장과 대학발전을 위해서 수혜율을 높이고 규모를 늘리기 위해 각종 정책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학생 편의와 복지시설은 학생회관, 기숙사, 학생종합 봉사실, 학생식당, 서점, 안경점, 휴게실, 동아리방, 체육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학생들이 수업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주요 복지시설 가운데 하나는 기숙사이다. 최근 3년간 기숙사 수용률은 6.7% 정도인데, 입사 희망자 수가 실제 입사자 수보다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2010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숙사 확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 우리 대학은 학생의 학업, 학교생활, 사회적응, 취업진로, 건강의료 등과 관련된 상담과 지도를 위하여 교목실, 학생복지처, 생활관 등에 다양한 상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종 상담 및 지도 참여율은 연간 평균 30% 정도로서 상담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3.1.5.2 교육지원

- 우리 대학의 교지 확보율은 87%이며, 교사 시설 확보율은 98% 수준이다. 교사시설은 크게 교육 기본시설과 교육 지원시설로 구분하는데, 교육 기본시설에는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등 교육에 필요한 필수 시설들이 포함되며, 우리 대학의 교육 기본시설은 52,801㎡이다. 다음으로 교육 지원시설은 체육관, 강당, 전자계산소, 기숙사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 지원시설은 9,059㎡에 달한다. 교지와 교사 시설 확보율은 법정 필요 면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우리 대학과 경쟁 관계에 있는 몇몇 수도권 대학에 견주어도 양호한 수준이며, 우리 대학의 학생 증가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면적이다.



3.1.5.3 정보지원

- 우리 대학은 총 예산의 평균 1% 내외를 도서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재학생 1인당 도서 구입비는 90,700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다. 도서관 예산 중 도서구입비의 증가에 힘입어 학생 1인당 장서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년 10% 정도씩 증가해 왔다.
- 최근에는 비도서 정보자료의 확보 및 활용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여 최근 들어 비도서 자료가 도서자료를 대체하는 시대적 변화에 상응한다. 2008년 기준 우리 대학의 디지털화된 전자도서 자료 수는 45,980점이며, 전자도서의 수와 학생 1인당 대출횟수도 급증하고 있다.

3.1.6 대외협력 및 국제화 영역

3.1.6.1 대외협력

- 대외협력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직원과 재학생의 해외교류이다. 우리 대학은 오래 전부터 미국의 센터너리대학과 세인트폴대학, 중국의 연산대학, 영국의 웨슬리대학 등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어학연수생 파견을 포함한 각종 협력을 지속해 왔다. 2008년에는 중국의 사천외국어대학을 포함한 5개 국가의 7개 대학과 새로이 교류협정을 맺었으며, 2009년에도 미국의 게렛대학을 포함한 4개 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더욱 광범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우리 대학에서 재학생의 해외교류를 평가할 주요 지표는 해외인턴십, 해외탐방, 해외어학연수 등이다. 구체적인 측정은 재학생의 참여 비율로 표시하는데 연간 약 3% 정도의 재학생이 직접 참여한다. 넉넉지 못한 재정 여건에도 대외협력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재학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예산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 해외인턴십지원제도 : 매년 20명의 학생을 호주에 파견하여 외국 기업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방학 중 6주간 시행하고, 학생 개인당 200만 원씩 지원함.
 - 해외탐방연수지원제도 : 매년 1학기 초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지역별로 나누어 공모하며, 계획서 검토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90명의 학생을 선발함. 왕복항공권과 체재비 등을 지원하며, 선발된 학생들은 여름



방학 중 약 15일 동안 계획서에서 제시한 국가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기업체, 대학 등을 탐방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해외어학연수지원제도 :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매년 20명 내외의 재학생을 선발하여 자매결연 대학인 미국의 센터너리 대학, 중국의 연산대학과 목단강대학 등에 파견함. 외국어 실력 향상과 문화체험에 초점을 맞춘 현지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왕복 항공권과 체재비 등 각종 장학금이 지원됨.

3.1.6.2 국제화

- 국제화 분야는 외국인 유학생 수, 해외파견 교환학생 수, 외국인 교원 비율 등으로 평가한다. 우리 대학은 역사가 짧고 학문 분야가 다양하지 않아 유학생과 교환학생의 수는 많지 않다. 다만 2008년 국제교류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2009년엔 대학원생 2명 포함 해외 유학생 90명(중국 89명, 네팔 1명)이 재학하고 있다.
- 전체 재학생 대비 유학생의 비율은 2% 정도임. 학교 당국은 국제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2012년까지 전체 재학생 대비 유학생의 비중을 8%까지 높일 계획임.
- 우리 대학의 외국인 전임 교원의 수는 5명이며, 원어민 강의의 비율도 5% 미만으로 대체로 낮은 수준임.
- 우리 대학과 경쟁 관계에 있는 수도권에 비슷한 규모 몇몇 대학을 골라 대외협력과 국제화 수준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국제화가 최근 대학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3.2 종합 논의

- 우리 대학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학생 증원이 어렵다는 불리함이 있는가 하면 신입생 확보가 용이하다는 유리함도 있다. 최근에는 유리함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데, 특히 우리 대학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지역 내 인구 증가와 상업의 발달이 현저히 가시화 되었고, 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 편리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한층 유리해졌다.



- 우리 대학은 외부 요인에서 비롯되는 약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협성대학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교육여건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뚜렷이 개선되었다. 교지와 교사 확보율의 교과부 기준 충족, 각종 건축물의 신·증축에 따른 교육·편의·정보 시설에 대한 지원 등 놀랄만한 외연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재학생 1인당 교육비의 증가, 학생 등록금 의존율 감소, 건전한 재정 운용, 합리적 학사 체계와 교육과정, 전임 교원의 대규모 신규 채용 등은 우리 대학의 내실화 노력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 이 결과 대외적으로 우리 대학의 위상을 대표하는 각종 지표, 예를 들면 신·편입생 경쟁률과 충원율, 재학생 유지율, 졸업생의 취업률 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우리 대학과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유사한 규모의 수도권 내 다른 대학과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 앞으로도 이러한 유리한 여건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내실화와 대외 협력 강화, 전임교원 확보율의 지속적 향상과 산학협력 확대, 교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적 배려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대내외적 교육 여건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 대학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 또한 적지 않다.

첫째, 미래를 향한 보다 명확한 발전계획과 비전의 제시, 우리 대학의 대표 브랜드로 키울 수 있는 확실한 특성화 사업의 구상과 실천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최근 교육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충분한 교육공간과 지원시설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험실습을 위한 교육공간의 확보, 도서관과 학생복지를 위한 각종 지원시설을 위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간과 시설확보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투자, 특히 재단 전입금의 증가와 기부금 확보, 교과부대수입의 증가는 바람직한 대학 경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졸업생의 취업률과 진학률은 중요한 교육성과 중의 하나이다. 이를 더욱 높이기 위한 진로교육 지도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담 기구의 설치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

램의 개발에 의한 상시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또 바람직한 교육의 성과는 교직원의 전반적 역량개발에 의해 가능한 것이므로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 전임교원의 지속적 증원, 연구 분위기 진작을 위한 연구비 증가, 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우리 대학의 역사, 규모,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외협력, 국제화, 산학협력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분야이다. 대외협력이나 국제화 관련 지표가 요즈음 대학의 경쟁력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소홀히 할 여유가 없다. 바람직한 대외협력 및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4장 결과 활용 및 향후 계획

4.1 결과 활용

4.2 향후 계획

HYUPSUNG UNIVERSITY



협성대학교
HYUPSUNG UNIVERSITY



제Ⅳ장 결과 활용 및 향후 계획

4.1 결과 활용

평가의 기획 및 실행과 그 결과의 활용 및 피드백은 매우 중요한 두 축이다. 활용과 피드백이 없다면 평가의 의의는 반감할 것이다. 정부가 대학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각 대학이 자체평가의 시행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대학의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하거나, 학내 재정배분, 대학 구조조정 등에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도 평가 결과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당연히 그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2008년도 대학 자체평가 시범대학에 참여한 대부분의 대학도 평가의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 결과와 관련된 주요 활용방식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
- ② 대학 특성화 전략 수립에 반영
- ③ 교직원 업적, 직무평가 등에 반영하고 우수 개인 혹은 우수 단위 포상에 활용
- ④ 예산배분, 행정개선 및 구조조정에 반영

우리 대학의 활용 방안도 크게는 위에서 언급한 범주 내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구체적 추진 방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04년도의 ‘협성대학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의 결과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0년에는 과거의 발전계획을 되돌아보고 이번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웅비2022’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우리 대학의 특성화 재검토 및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은 2004년 특성화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으나 구체성의 결여로 바람직한 성과를 얻는데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대학 발전계획과 함께 새로운 특성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 성과주의의 확립과 대학 구조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2005년도의 대학종합평가 수용 등을 통해 자기 점검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소홀히 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 학문단위별(학과별) 평가와 행정부서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과 구조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4.2 향후 계획

이번 자체평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보고를 위한 목적과 공시지표의 관리를 위한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하나 우리 대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점검의 기회가 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자체평가는 매년 수행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효과적인 자체평가를 위해 몇몇 개선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향후 계획 및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2.1 평가지표의 개발

이번 자체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일반대학 51개 공시지표 항목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대부분의 현황 지표는 계량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대학발전, 특성화, 교과과정 등 계량화가 어렵거나 그동안의 실적이 미미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분야가 적지 않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표의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우리 대학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대학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표의 추가 개발이 절실하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공시지표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거점대학이면서 수도권의 중위권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목표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4.2.2 결과 활용과 성과주의 문화의 확립

이번 평가 결과를 냉정히 분석하여 성과주의와 연계시키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내외 대학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대학도 이제는 무사안일의 균등 분배주의에 안주해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각 학문 및 행정 단위별로 합리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전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각 학문 및 행정 단위별 성과 결과를 상호 확인 가능토록 하며, 평가 대상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체제가 정착되면 목표 달성이 미진하거나 어려운 점이 발견되더라도 즉각적인 대안의 발굴 및 조직적 대응이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구성원들의 성과관리를 통한 대학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4.2.3 성과의 상시 관리와 외부평가에 대한 준비

과거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종합평가체제와 최근 국내외 언론, 전문 평가기관 등의 대학 평가는 규모와 질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과거에 비해 보다 다양한 평가, 객관적 평가, 심층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신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제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가 대학의 위상을 사실상 결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상시적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 평가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할 시점이다.

4.2.4 전략중심형 조직으로 발전

위에서 언급한 몇몇 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의 조직이 전략중심형 조직으로 재구축 되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은 중장기적 전략 목표의 설정에서부터 목표의 달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본부가 전략팀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발전전략의 수립에서부터 성과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전략팀의 존재는 종국적으로 우리 대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다.